

일반농촌 지역의 생활권 변화 분석

유학열·박경철·강마야·이도경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2

제2장 일반농촌 지역의 생활권 변화

- 1. 사례지역 마을의 기능 변화 5
- 2. 주민 생활권 현황 및 특성 27
-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45

제3장 20년 사업 마을의 정주 환경 변화

- 1. 대전시 서구 증촌마을 50
- 2.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72
- 3.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94
- 4.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120
- 5. 종합고찰 144

부록 171

참고문헌 178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연구 필요성

1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요인 분석 및 마을단위 개발연구', 2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정주공간 및 공동체 활동', 3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을 다각도로 고찰하는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농촌 마을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마을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확대된 공간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과 고령화와 과소화 및 새로운 유입 인구 등 급변하고 있는 농촌마을 거주자 특성별 생활상을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 마을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읍면 중심지, 주변 중소도시(대도시)까지 포함한 농촌 생활상 변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었다.

최근 농촌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다각화, 외부와 교류 확대, 귀농귀촌인 증가, 여가활동 다양화 등의 요인에 의해 일상생활의 공간적 범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맞춰, 농어촌 마을 주민의 질 높은 생활서비스 제공과 주변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정부 정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했던 20년사 장기 추적조사 연구 대상마을에 대한 지속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과 대전지역의 20년사 장기 추적조사 대

상 마을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생활권 변화 실태 파악과 사례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실태를 과거 시점(1985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충남, 대전지역 농촌마을의 생활권 현황과 생활권 변화실태를 실증 분석하여 마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농촌마을과 주변 중심지(읍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초촌면 전체 마을(행정리)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공공서비스 이용, 민간서비스 이용, 경제 활동, 커뮤니티 활동, 여가 활동 등)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 마을별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을 도출한다. 특히 조사 대상 마을, 읍면 중심지, 인근 중소도시(대도시)라는 공간 범위에서 생활권이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마을별 생활권 특징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농촌마을 주민 속성별¹⁾ 생활권 특징 차이를 보이는 요인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20년사 장기 추적 조사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을 과거와 비교해 보고 장래 생활권 변화 방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위한 정책 방향과 장래 농촌 생활권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연구조사 분석틀 설정을 위해 연구조사 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고, 농촌마을 생활권 변화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조사분야와 조사항목으로는 서비스이용 활동분야(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경제 활동분야(농산물 생산 판매, 6차산업, 농업 외 직업 등), 외부와의 네트워크 활동분야(동호회 활동, 마을과의 자매결연 활동 등), 여가 활동분야(취미 활동,

1) 예를 들어, 농업인/비농업인, 청장년층/고령층, 기존 주민/귀촌귀농인 등 농촌마을 주민의 속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특성을 파악

여행 등)을 선정하였다.

농촌마을의 생활권 현황과 특성 분석을 위해 충남 초촌면 농촌마을(행정리)의 생활권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활동 유형별 주민들 일상생활 영역(권역) 현황 분석으로 공공, 민간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교류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농촌마을 주민 속성별 일상생활 영역(권역)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촌마을 생활권 분석 결과를 사례지역별, 활동 유형별, 주민 속성별 생활권 등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요약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년사 장기 추적조사 대상 사례 마을(4개 마을)의 생활상 변화 실태 분석을 위해 이전(1985년, 1994년)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항목을 현 시점에서 재조사하여 변화 흐름을 검토하고, 사례마을의 생활상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촌마을의 생활상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농촌 생활권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 향후 생활권 변화를 전망하였다. 또한 한계마을 대책, 작은 거점 활성화, 중심지 기능 활성화 등 장래 농촌 생활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농촌 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충남지역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간구조상 농촌 생활권 위상 변화와 중심지 계층별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공공, 민간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커뮤니티활동, 외부와의 네트워크 활동 측면에서 농촌 중심지와 주변 중소도시(대도시)와의 연계, 생활권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공, 민간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시설별 소요시간 변화,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기초서비스부문 사업체 수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인구 주택총조사의 통근, 통학 자료 등을 통해 통근통학권으로 형성되는 생활권 변화, 인근 도시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공동체활동 측면에서는 전국 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시설 및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하였고,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도농교류 활동 변화 등 대상마을 주민의 여가, 문화시설의 방문 형태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마을은 농촌마을 생활권 분석을 위해 충남 부여군 초촌면 21개 행정리와 20년사 장기추적 조사 대상 마을인 대전시 증촌마을, 부여 초촌면 송국2리,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4개 마을이다.

〈표1-1〉 조사대상 마을

유형	시군	읍면	행정리	비고
일반 농촌지역	부여군	초촌면	전체 25개 행정리 가운데 21개 마을 ²⁾	생활권 분석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20년사 연구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대전시	기성동	증촌마을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관찰 조사, 마을 대표, 마을 주민 대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집단 특성, 경제 특성, 연령 특성, 거주지 특성 등 마을 거주 주민의 특성과 경제활동 영역, 서비스활동 영역, 커뮤니티활동 영역, 여가활동 영역 등 유형별 생활권 영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영역, 서비스활동 영역, 커뮤니티활동 영역, 여가활동 영역을 포함하는 주민 속성별³⁾ 생활권 영역 분석과 서비스의 질적 요구 변화, 외부와의 네트워크 확대, 경제활동의 다각화 등 생활권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사 방식으로는 2단계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예비조사(1회), 본조사(2~3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대표자 심층 인터뷰 조사와 마을 주민 집합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부여군 초촌면 총 25개 행정리 가운데 조사가 어려웠던 신암1리, 송정1리, 진호1리, 소사2리는 제외

3) 예를 들어, 농업인/비농업인, 청장년층/고령층, 기존 주민/귀촌귀농인 등 농촌마을 주민의 속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특성을 파악

제 2 장

일반농촌 지역의 생활권 변화

1. 사례지역 마을의 기능 변화

1.1. 조사 개요

일반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인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행정리 마을이장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조사명 : 농어촌 마을 현황에 관한 마을이장 설문조사
- 조사목적 : 농어촌 마을의 생활 여건 파악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9일 ~ 8월 14일
- 조사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사무소, 21개 행정리 마을이장 가구
- 조사내용 : 인구 및 가구 변화, 생활권 이용 실태, 경제활동 조직 변화, 사회활동 조직 변화, 공동공간 변화, 종합적인 마을 기능 변화 등
 - 마을 내 인구 및 가구 변화, 주요 생활권, 마을 내 경제활동·사회활동 조직과 활동 공간 범위, 마을 내 공동시설 상태 및 활용, 정부지원사업 현황 등
- 조사대상 : 충남 부여군 초촌면 21개 행정리 마을이장(4개 행정리 미응답)
- 조사주체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조사방법 : 집단 설문조사, 가구방문 설문조사, 1:1 보완 인터뷰 조사 등

부여군 초촌면은 11개 법정리, 25개 행정리로 편제되었는데 금번 조사에 응답한 행정리는 미응답 마을인 신암1리, 송정1리, 진호1리, 소사2리 등 4개를 제외하고 총 21개 행정리이다(<표 2-1> 참고).

<표 2-1> 부여군 초촌면 행정리 응답여부 및 지역위치

행정리	응답여부	지역위치
산직1리	○	
산직2리	○	
산직3리	○	
세탑리	○	
소사1리	○	
소사2리	X	
송국1리	○	
송국2리	○	
송정1리	X	
송정2리	○	
신암1리	X	
신암2리	○	
연화리	○	
응평1리	○	
응평2리	○	
응평3리	○	
진호1리	X	
진호2리	○	
진호3리	○	
초평1리	○	
초평2리	○	
초평3리	○	
추암1리	○	
추암2리	○	
추암3리	○	

자료 :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html/kr/intro/intro_050103.html)

부여군 초촌면의 지리적 개황을 소개⁴⁾하면 다음과 같다.

부여군의 동남쪽에 위치해서 동쪽으로는 논산시 노성면과 동남쪽으로는 논산시 광석면과 경계를 나누고 북쪽으로는 공주시 탄천면과 서쪽으로는 석성면, 서북쪽으로는 부여읍과 접하고 있는 초촌면은 역사적으로 깊은 뜻이 풍기는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대체로 북쪽으로는 낮은 산악지대와 아산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나 남쪽과 동쪽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서 황산벌 아래쪽의 곡창지대를 조성하기도 하는 지역이다. 냇물로는 초촌면의 북동쪽에서 흘러와서는 서남쪽으로 흐르는 석성천과 합류하는 하관천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증산천, 응평천 등의 수원이 풍부한 천혜의 지역이다.

부여군 초촌면 설문조사 대상자인 마을이장의 인적 속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60대가 가장 많고(52.4%), 학력별로 중졸 이하가 가장 많았다(47.6%). 직업으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82.6%), 고향마을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66.7%). 마을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4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고).

〈표 2-2〉 부여군 초촌면 마을이장 인구학적 현황

조사항목	구분	표본수(N,명)	비중(%)		
성별	남성	20	95.2		
	여성	1	4.8		
	총계	21	100.0		
연령대	40대	2	9.5		
	50대	4	19.0		
	60대	11	52.4		
	70대 이상	4	19.0		
	총계	21	100.0		
학력	중졸 이하	10	47.6		
	고졸	8	38.1		
	전문대졸	1	4.8		
	대졸 이상	2	9.5		
	총계	21	100.0		
직업 (복수응답)	농업·임업·어업	19	82.6%		
	자영업	2	8.7%		
	사무직(관공서·회사)	1	4.3%		
	기타	1(개인용달 등)	4.3%		
	총계	23	100.0%		
고향여부	고향마을에서 계속 거주	14	66.7		
	현재 마을로 시집/장가	2	9.5		
	귀향	4	19.0		
	결측값	1	4.8		
	총계	21	100.0		
구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bar{x})	표준편차 (SD)
거주기간(년)	21	5.0	71.0	47.0	22.1

1.2. 인구 및 가구 변화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부여군 초촌면 마을별 평균 인구 변화는 2005년 121명, 2010년 117명, 2015년 106명, 2018년 80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마을별 평균

4) 자료 :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부여군지.

가구 변화는 2005년 51호, 2010년 51호, 2015년 52호, 2018년 42호로 감소 추세이다. 가구 당 인구는 2005년 2.4명, 2010년 2.3명, 2015년 2.1명, 2018년 1.9명으로서 가구 당 최소 부부가 거주하는 기준선이 무너졌다(<표 2-3> 참고).

〈표 2-3〉 마을의 평균 인구 및 가구 변화(2005년~2018년)

구분	연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X)	표준편차 (SD)
인구 (명)	2005년	19	24.0	328.0	121.737	69.8569
	2010년	19	40.0	291.0	117.211	60.1439
	2015년	19	36.0	292.0	106.737	59.9063
	2018년	21	29.0	180.0	80.571	44.5439
가구 (호)	2005년	19	20.0	113.0	51.105	22.7154
	2010년	19	18.0	115.0	51.579	25.8033
	2015년	19	18.0	118.0	52.053	27.5912
	2018년	21	17.0	100.0	42.619	23.7770
가구 당 인구 (명/호)	2005년		1.2	2.9	2.4	
	2010년		2.2	2.5	2.3	
	2015년		2.0	2.5	2.1	
	2018년		1.7	1.8	1.9	

주) 2005년, 2010년, 2015년은 결측응답 2명

2018년 현재, 부여군 초촌면 마을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57%에 달하고 마을 내 평균 농가는 31호로서 마을 전체 가구 대비 73.8%를 차지한다. 평균 귀농가구는 2.6호, 평균 귀촌가구는 2.1호, 평균 외지인 가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2-4> 참고).

〈표 2-4〉 마을의 인구 및 세대 특징(2018년 기준)

구분	단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X)	표준편차 (SD)
65세 이상 인구비율	%	21	3.0	90.0	57.943	23.1890
농가	호	21	9.0	71.0	31.333	18.0231
귀농가구	호	12	1.0	7.0	2.667	1.8749
귀촌가구	호	7	1.0	4.0	2.143	1.2150

구분	단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X)	표준편차 (SD)
원주민가구	호	11	1.0	4.0	2.636	1.0269
외지인가구	호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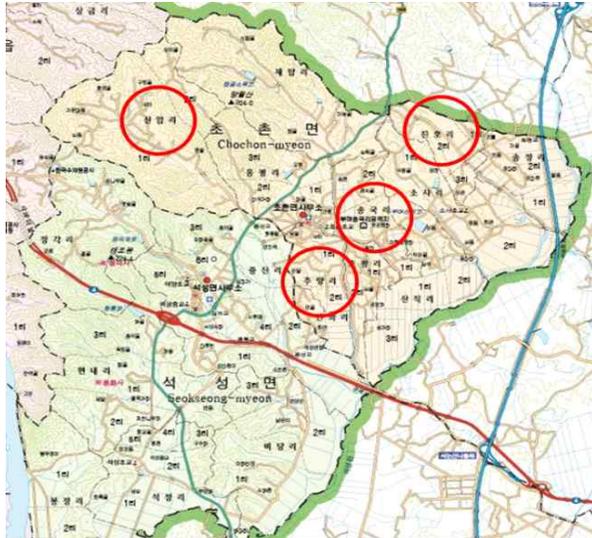
2018년 현재 대비 과거 10년~20년 전과 비교 시, 부여군 초촌면 마을의 가구 변화는 계속 감소한다는 응답 비중이 5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표 2-5〉 마을의 가구 변화(10년~20년 전 비교 시)

구분	빈도수(명)	비중(%)
계속 감소	11	52.4
증가하다가 감소	2	9.5
거의 변동없음	4	19.0
감소하다가 증가	2	9.5
계속 증가	2	9.5
총계	21	100.0

하지만 초촌면 내에서도 행정리별 인구변화에 대한 특성, 차이가 존재한다. 지리적으로 동쪽, 서쪽, 중앙에 있는 행정리인 신암리, 진호리, 송곡리 및 추양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2-1> 참고).⁵⁾

5) 자료 : 유학열 외(2017), 일반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중 강마야 작성 부분.



자료 :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n.go.kr/html/kr/intro/intro_050103.html)
 (그림 2-1) 초촌면 행정리 분포

첫째, 초촌면의 서북쪽에 위치해서 부여읍과 경계를 나누고 남쪽으로는 석성면과 접하는, 비교적 산악지대가 많은 신암1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신암1리의 현재 총 인구수는 약 150명이고 총 가구수는 60호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70%이고, 총 가구수 중 농가비율은 약 50%이다. 2005년 이후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귀향 가구수는 약 10호(귀농가구 6호, 귀촌가구 4호)로서 16.6%를 차지하고, 고령으로 농사짓지 않는 은퇴농가(대략 80세 이상)는 약 20호로서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10년 전 대비 총 인구수는 자연사망율과 인구유입율이 비슷해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총 가구수는 매년 꾸준히 1-2호 가구가 유입되는 추세로서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달리 마을에 활력이 있다. 이유는 도시로 나갔던 자식들이 다시 마을(귀향 가구)로 유입되거나 귀농·귀촌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한살림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업을 시작으로 도농교류 활동도 추진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최근 80호 이상 가구수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81가구 중 40가구 이상이 한살림과 연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한살림과 연계

한 경제활동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도 44%에 달해서 마을 내 친환경농업활동이 마을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초촌면의 서쪽에 위치해서 석성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 추양1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추양1리의 현재 총 인구수는 126명, 총 가구수는 54호이다. 이 중 농가는 43호, 비농가는 11호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현재 총 인구수는 80명, 총 가구수는 37호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80%이고, 총 가구수 중 농가비율은 약 75%이다. 2005년 이후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귀향 가구수는 3가구로서 현재 1가구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2가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고령으로 농사짓지 않는 은퇴농가(대략 80세 이상)는 없고 텃밭 수준이라도 농사는 짓고 있다. 과거 10년 전 대비 총 인구수는 자연사망으로 인해서 20-30명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30-40대 젊은 층 인구유입이 있는 편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추양1리이나 실제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추양리 전체를 통틀어서 5-6명이 유입되었고 이 중 추양1리와 추양2리에 각 2-3명씩 유입되었다.

셋째, 초촌면의 동북쪽에 위치해 북쪽으로 하판천이 흐르고 동쪽 등성을 제외하고 비교적 들밭으로 이뤄진 지역인 진호리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부여군은 전체적으로 원예특화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귀농인들은 재배작물을 보고 귀농하러 오는 편이다. 진호리도 이런 추세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역이다. 귀농인구보다 귀향인구가 좀 더 많은 편이고 특히 30대 초중반 귀향인구가 많은 편이다.

넷째, 초촌면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면사무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송국리(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송국리의 현재 총 인구수는 약 46명 정도이고 대부분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주민 중 60대 이하가 3명뿐이고 50대가 1명, 이장아들이 유일한 30대이다. 70대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율이 높은 편이다. 남자가 6명이고 여성분들은 혼자 생활하고 있다. 마을주민이 1990년 초까지 많았으나 이후 반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이장은 30년 이상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후계인력이 없다. 귀농인은 약 3가구 정도 있고 귀향하려는 자식은 거의 없다. 귀농인은 시설(하우스)농업을 많이 한다. 마을에 사람이 없다보니 옆 마을과 합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인식이 있을 정도이다. 보통 송국리와 같은 평야지대는 사람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벼농사 위주인 지역이라는 특징,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송국리 마을이장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타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보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 후계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이다.

6) 주: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어촌 마을 생활상 실태조사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인용함.

7) 주: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어촌 마을 생활상 실태조사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인용함.

1.3. 생활권 이용 실태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이용 실태를 영역별로 살펴해보도록 한다.

첫째, 식품 등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구입하는 생활권은 주로 과거에 타 시군인 논산 등을 이용했으나 현재는 초촌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촌면과 논산시 이용 현황은 과거와 현재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고).

<표 2-6>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생활필수품 구입(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1	4.2%			1	4.2%
초촌면 내	17	70.8%	5	23.8%	12	47.0%
부여읍			1	4.8%	-1	-4.8%
부여군 내 타 읍면			1	4.8%	-1	-4.8%
타 시군(논산)	6	25.0%	14	66.7%	-8	-41.7%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총계	24	100.0%	21	100.0%	3	0.0%

둘째, 목욕탕, 이.미용실 등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이용하는 생활권은 과거나 현재 모두 주로 타 시군인 논산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촌면 소재지도 과거보다 현재에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고).

<표 2-7>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생활편의시설 이용(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초촌면 내	6	25.0%	2	8.7%	4	16.3%
부여읍	1	4.2%	2	8.7%	-1	-4.5%
부여군 내 타 읍면	1	4.2%	4	17.4%	-3	-13.2%
타 시군(논산)	16	66.7%	15	65.2%	1	1.4%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총계	24	100.0%	23	100.0%	1	0.0%

셋째, 가구, 가전제품, 주방기기 등 물품 구입하는 생활권은 과거나 현재 모두 타 시군인 논산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고).

<표 2-8>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가구, 가전제품 등 구입(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초촌면 내	2	8.3%	4	17.4%	-2	-9.1%
부여읍	1	4.2%		0.0%	1	4.2%
부여군 내 타 읍면	3	12.5%	3	13.0%	0	-0.5%
타 시군(논산)	18	75.0%	16	69.6%	2	5.4%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총계	24	100.0%	23	100.0%	1	0.0%

넷째, 문화행사, 취미강좌 등 여가 및 문화활동하는 생활권은 과거나 현재 모두 타 시군인 논산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참고).

(표 2-9)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여가 및 문화활동(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2	9.1%	1	4.8%	1	4.3%
초촌면 내	5	22.7%	2	9.5%	3	13.2%
부여읍						
부여군 내 타 읍면	5	22.7%	5	23.8%	0	-1.1%
타 시군(논산)	10	45.5%	13	61.9%	-3	-16.5%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총계	22	100.0%	21	100.0%	1	0.0%

다섯째, 감기, 예방접종 등 간단한 진료를 위해 이용하는 생활권은 과거나 현재 모두 초촌면 소재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많이 초촌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참고).

(표 2-10)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간단진료 시(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1	4.3%			1	4.3%
초촌면 내	16	69.6%	10	50.0%	6	19.6%
부여읍			1	5.0%	-1	-5.0%
부여군 내 타 읍면	1	4.3%	1	5.0%	0	-0.7%
타 시군(논산)	5	21.7%	8	40.0%	-3	-18.3%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총계	23	100.0%	20	100.0%	3	0.0%

여섯째, 수술, 입원 등 전문적 진료를 위해 이용하는 생활권은 과거에 타 시군인 논산시였으나 현재는 인근 대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현재에 더 많이 대전광역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고).

(표 2-11)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 전문진료 시(복수응답)

구분	현재(A)		과거(B)		차이(A-B)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살고 있는 행정리						
초촌면 내						
부여읍						
부여군 내 타 읍면	3	10.3%	2	7.7%	1	2.7%
타 시군(논산)	12	41.4%	14	53.8%	-2	-12.5%
타 시군(부여)						
타 시군(대전)	14	48.3%	10	38.5%	4	9.8%
총계	29	100.0%	26	100.0%	3	0.0%

1.4. 경제활동 조직 변화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주로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표 2-12> 참고).

첫째, 마을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조직은 영농조합법인(21.6%), 농수축협을 제외한 협동조합(18.9%), 새마을 영농회(16.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에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현재 소멸한(사라진) 경제활동 조직은 저축계·쌀계(28.6%), 수리계·마을금고·새마을영농회·산림계·어촌계·들넉경영체(각 9.5%), 마을기업 및 농촌공동체 회사·기타(각 7.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을에 예전에는 활발했으나 현재 쇠퇴하는(주민 참여가 줄어든) 경제활동 조직은 새마을 영농회(20.0%), 마을금고·저축계·쌀계(각 15.0%), 농수축협을 제외한 협동조합(10.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을에 예전보다 현재 활성화한(주민 참여가 증가한) 경제활동 조직은 작목반(28.6%), 영농조합법인(21.4%), 마을기업 및 농촌공동체 회사와 농수축협을 제외한 협동조합(각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2〉 마을 내 경제활동 조직 현황(복수응답)

구분	현재 참여조직		현재 소멸조직		현재 쇠퇴조직		최근 활성화조직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① 수리계	1	2.7%	4	9.5%	4	10.0%	·	0.0%
② 마을금고	2	5.4%	4	9.5%	6	15.0%	1	7.1%
③ 저축계·살계	2	5.4%	12	28.6%	6	15.0%	·	0.0%
④ 새마을 영농회	6	16.2%	4	9.5%	8	20.0%	1	7.1%
⑤ 작목반	5	13.5%	1	2.4%	2	5.0%	4	28.6%
⑥ 산림계·어촌계	·	0.0%	4	9.5%	2	5.0%	·	0.0%
⑦ 영농조합법인	8	21.6%	·	0.0%	·	0.0%	3	21.4%
⑧ 농업회사법인	1	2.7%	·	0.0%	2	5.0%	1	7.1%
⑨ 마을기업 및 농촌공동체 회사	·	0.0%	3	7.1%	2	5.0%	2	14.3%
⑩ 협동조합(농수협 제외)	7	18.9%	1	2.4%	4	10.0%	2	14.3%
⑪ 사회적 기업	·	0.0%	2	4.8%	1	2.5%	·	0.0%
⑫ 들녘경영체	1	2.7%	4	9.5%	2	5.0%	·	0.0%
⑬ 기타	4	10.8%	3	7.1%	1	2.5%	·	0.0%
총계	37	100.0%	42	100.0%	40	100.0%	14	100.0%
⑬ 기타 : 구체적 조직명	두레영농조합법인, 마을 내 모임, 대동계, 친환경작목반, 품앗이, 돌계, 동창계(학교 선후배계) 등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주로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의 공간 범위를 살펴보도록 한다(<표 2-13> 참고). 다만, 응답율이 저조하여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

인근 마을 범위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기타 조직이라고 응답하였고, 면 단위 범위에서 활동하는 조직 역시 기타 조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군 단위 범위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기타 응답의 구체적인 조직명은 두레영농조합법인, 마을 내 모임, 대동계, 친환경작목반, 품앗이, 돌계, 동창계(학교 선후배계) 등과 같다.

〈표 2-13〉 마을 내 경제활동 조직 공간 범위(복수응답)

구분	인근 마을 활동		면 단위 활동		군 단위 활동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⑤ 작목반	1	-	-	-	-	-
⑦ 영농조합법인	1	-	-	-	1	-
⑬ 기타	1	-	1	-	-	-
총계	3	-	1	-	1	-
⑬ 기타 : 구체적 조직명	두레영농조합법인, 마을 내 모임, 대동계, 친환경작목반, 품앗이, 돌계, 동창계(학교 선후배계) 등					

1.5. 사회활동 조직 변화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주로 활동하는 사회활동 조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표 2-14> 참고).

첫째, 마을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조직은 마을회·노인회·부녀회(각 21.6%), 청년회(10.8%), 마을개발위원회 및 사업추진조직(7.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에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현재 소멸한(사라진) 사회활동 조직은 상사관련 계(20.0%), 청년회·혼사관련계·친목계·동갑계·놀이계(각 15.6%), 새마을회(11.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을에 예전에는 활발했으나 현재 쇠퇴하는(주민 참여가 줄어든) 사회활동 조직은 청년회(16.3%), 새마을회(14.3%), 농민회(12.2%)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을에 예전보다 현재 활성화한(주민 참여가 증가한) 사회활동 조직은 노인회(40.0%), 마을회(33.3%), 부녀회(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4〉 마을 내 사회활동 조직 현황(복수응답)

구분	현재 참여조직		현재 소멸조직		현재 쇠퇴조직		최근 활성화조직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빈도수 (명)	비중 (%)
① 마을회	18	21.7%		0.0%	5	10.2%	5	33.3%
② 노인회	18	21.7%	1	2.2%	2	4.1%	6	40.0%
③ 청년회	9	10.8%	7	15.6%	8	16.3%		0.0%
④ 부녀회	18	21.7%		0.0%	5	10.2%	3	20.0%
⑤ 새마을회	4	4.8%	5	11.1%	7	14.3%		0.0%
⑥ 농민회	2	2.4%	4	8.9%	6	12.2%		0.0%
⑦ 상사(喪事)관련 계	1	1.2%	9	20.0%	5	10.2%		0.0%
⑧ 혼사(婚事)관련 계	1	1.2%	7	15.6%	3	6.1%		0.0%
⑨ 친목계·동갑계·놀이계	4	4.8%	7	15.6%	4	8.2%		0.0%
⑩ 동호회 (취미·여가활동 모임)	1	1.2%	3	6.7%	1	2.0%	1	6.7%
⑪ 마을개발위원회 및 사업추진조직	6	7.2%		0.0%		0.0%		0.0%
⑫ 귀농·귀촌 조직	1	1.2%	1	2.2%	2	4.1%		0.0%
⑬ 기타		0.0%	1	2.2%	1	2.0%		0.0%
총계	83	100.0%	45	100.0%	49	100.0%	15	100.0%

부여군 초촌면 단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조직으로는 자원봉사조직(34.8%), 지역가꾸기 등 지역개발조직(26.1%), 동호회 등 여가활동조직(13.0%) 순으로 나타났다(〈표 2-15〉 참고).

참고로 기타 응답의 구체적인 조직명은 적십자(임원활동), 동창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봉사), 새마을지도자, 폐품 및 마을청소, 화단가꾸기, 건강마을가꾸기 등과 같다.

〈표 2-15〉 면 단위에서 활발한 사회활동 조직(복수응답)

구분	빈도수 (명)	비중 (%)	그래프
① 자원봉사조직	8	34.8%	
② 지역가꾸기 등 지역개발조직	6	26.1%	
③ 동호회 등 여가활동조직	3	13.0%	
④ 귀농·귀촌 연합회	1	4.3%	
⑤ 기타	3	13.0%	
⑥ 모름	2	8.7%	
총계	23	100.0%	
* 구체적인 조직명	적십자(임원활동), 동창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봉사), 새마을지도자, 폐품 및 마을청소, 화단가꾸기, 건강마을가꾸기 등		

1.6. 공동공간 변화

부여군 초촌면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변화 실태를 시설 및 공간별로 살펴보도록 한다(〈표 2-16〉 참고).

첫째, 마을 내 공동시설이 현재 존재한다고 응답한 결과, 응답율이 90% 이상을 보일 만큼 명확한 차이가 나는 시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각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동네마당·정자(71.4%), 마을소유 토지 및 임야(52.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 내 공동시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 응답율이 90% 이상을 보일만큼 명확한 차이가 나는 시설은 공동퇴비장(100.0%), 공동육묘장·공동작업장·농산물 가공시설(각 95.2%), 구판장(90.5%), 농특산물 직판장·마을숙박과 체험시설(8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마을 내 공동시설 현재 존재 유무

(단위: 명, %)

구분	유	무	결측값	총계
1. 마을소유 토지 및 임야	11	10	0	21
_ 비중(%)	52.4	47.6	0.0	100.0
2. 동네마당·정자	15	6	0	21
_ 비중(%)	71.4	28.6	0.0	100.0
3. 공동우물	9	12	0	21
_ 비중(%)	42.9	57.1	0.0	100.0
4. 마을회관	20	1	0	21
_ 비중(%)	95.2	4.8	0.0	100.0
5. 경로당	20	1	0	21
_ 비중(%)	95.2	4.8	0.0	100.0
6. 공동 창고	7	14	0	21
_ 비중(%)	33.3	66.7	0.0	100.0
7. 공동 육묘장	1	20	0	21
_ 비중(%)	4.8	95.2	0.0	100.0
8. 공동 퇴비장	0	21	0	100
_ 비중(%)	0.0	100.0	0.0	100.0
9. 공동 작업장	1	20	0	21
_ 비중(%)	4.8	95.2	0.0	100.0
10. 정미소	5	16	0	21
_ 비중(%)	23.8	76.2	0.0	100.0
11. 구판장	2	19	0	21
_ 비중(%)	9.5	90.5	0.0	100.0
12. 농산물 가공시설	1	20	0	21
_ 비중(%)	4.8	95.2	0.0	100.0
13. 농특산물 직판장	3	18	0	21
_ 비중(%)	14.3	85.7	0.0	100.0
14. 마을 숙박·체험시설	3	18	0	21
_ 비중(%)	14.3	85.7	0.0	100.0
15. 기타(권역센터 등)	1	3	17	21
_ 비중(%)	4.8	14.3	81.0	100.0

부여군 초촌면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상태 진단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표 2-17〉 참고).

첫째,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상태가 양호한 것은 마을회관(71.4%), 경로당(61.9%), 동네마당·정자(33.3%), 마을소유 토지 및 임야(28.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상태가 보통인 것은 경로당(28.6%), 동네마당·정자(28.6%), 마을소유 토지 및 임야(23.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상태가 노후한 것은 공동창고(28.6%), 공동우물(23.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7〉 마을 내 공동시설 상태 진단

(단위: 명, %)

구분	양호	보통	노후	결측값	총계
1. 마을소유 토지 및 임야	6	5	0	10	21
_ 비중(%)	28.6	23.8	0.0	47.6	100.0
2. 동네마당·정자	7	6	2	6	21
_ 비중(%)	33.3	28.6	9.5	28.6	100.0
3. 공동우물	4	0	5	12	21
_ 비중(%)	19.0	0.0	23.8	57.1	100.0
4. 마을회관	15	4	1	1	21
_ 비중(%)	71.4	19.0	4.8	4.8	100.0
5. 경로당	13	6	1	1	21
_ 비중(%)	61.9	28.6	4.8	4.8	100.0
6. 공동 창고	1	1	6	13	21
_ 비중(%)	4.8	4.8	28.6	61.9	100.0
7. 공동 육묘장	0	1	1	19	21
_ 비중(%)	0.0	4.8	4.8	90.5	100.0
8. 공동 퇴비장	0	0	1	20	21
_ 비중(%)	0.0	0.0	4.8	95.2	100.0
9. 공동 작업장	1	0	1	19	21
_ 비중(%)	4.8	0.0	4.8	90.5	100.0
10. 정미소	1	3	2	15	21

구분	양호	보통	노후	결측값	총계
_ 비중(%)	4.8	14.3	9.5	71.4	100.0
11. 구판장	2	0	1	18	21
_ 비중(%)	9.5	0.0	4.8	85.7	100.0
12. 농산물 가공시설	1	0	1	19	21
_ 비중(%)	4.8	0.0	4.8	90.5	100.0
13. 농특산물 직판장	3	0	1	17	21
_ 비중(%)	14.3	0.0	4.8	81.0	100.0
14. 마을 숙박·체험시설	3	0	1	17	21
_ 비중(%)	14.3	0.0	4.8	81.0	100.0
15. 기타(권역센터 등)	1	0	0	20	21
_ 비중(%)	4.8	0.0	0.0	95.2	100.0

부여군 초촌면 마을 내 공동시설을 비롯한 공동공간 이용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2-18> 참고).

첫째, 마을 내 공동시설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설은 마을회관(47.2%), 경로당(38.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 내 공동시설 중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공동우물(37.5%), 공동창고·공동퇴비장(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마을 내 공동시설 이용 현황(복수응답)

구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설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설	
	빈도수(명)	비중(%)	빈도수(명)	비중(%)
1. 마을 소유 토지 및 임야	1	2.8%	·	0.0%
2. 동네마당, 정자	1	2.8%	1	6.3%
3. 공동우물	·	0.0%	6	37.5%
4. 마을회관	17	47.2%	·	0.0%
5. 경로당	14	38.9%	·	0.0%
6. 공동 창고	·	0.0%	2	12.5%
7. 공동 육묘장	·	0.0%	1	6.3%
8. 공동 퇴비장	·	0.0%	2	12.5%

구분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시설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설	
	빈도수(명)	비중(%)	빈도수(명)	비중(%)
9. 공동 작업장	·	0.0%	1	6.3%
10. 정미소	·	0.0%	1	6.3%
11. 구판장	·	0.0%	1	6.3%
12. 농산물 가공시설	·	0.0%	1	6.3%
13. 농특산물 직판장	·	0.0%	·	0.0%
14. 마을 숙박·체험시설	2	5.6%	·	0.0%
15. 기타(권역센터 등)	1	2.8%	·	0.0%
총계	36	100.0%	16	100.0%

1.7. 마을 공공지원 현황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면 소재지 시설 중 활발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주민자치센터(34.8%), 복지회관(30.4%) 순으로 나타났다(<표 2-19> 참고).

<표 2-19> 면 소재지 시설 중 활발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복수응답)

구분	빈도수 (명)	비중 (%)	그래프
① 없음/모름	6	26.1%	
② 복지회관	7	30.4%	
③ 농업인센터(여성농업인센터)	2	8.7%	
④ 주민자치센터	8	34.8%	
⑤ 도서관, 마을문고	-	-	
⑥ 문화시설	-	-	
⑦ 기타	-	-	
총계	23	100.0%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사업 현황은 주로 마을개발사업, 기초생활인프라사업, 복지관련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표 2-20> 참고).

<표 2-20>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사업 목록

녹색농촌마을사업, 농기계보관창고(시설지원), 도로포장사업, 정보화마을사업, 권역단위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지원, 노인회 각종 지원사업, 건강마을사업 등

최근 마을사업 실태⁸⁾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시도는 좋은데 정착하지 못하고 수익이 많지 않은 편이다.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암리는 정보화마을을 운영했었는데 시행주체의 관심이 끊기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추양3리가 문화마을로 지정되었으나 문화마을에 주민들은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새로 유입한 사람도 있다.

8) 주: 연구를 진행하면서 농어촌 마을 생활상 실태조사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인용함.

2. 주민 생활권 현황 및 특성

2.1. 조사 개요

첫째, 일반 농어촌 지역의 생활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인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행정리 마을주민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조사명 : 농어촌 마을 현황에 관한 마을주민 설문조사
- 조사목적 : 농어촌 마을의 생활 여건 파악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0일 ~ 8월 20일
- 조사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 가구
- 조사내용 : 정주 생활 환경, 생활권 이용 현황,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활동
 - 면 소재지 생활 이용실태 및 변화, 군청 소재지 생활 이용실태 및 변화, 다른 시군 생활 이용실태 및 변화, 농업활동지역, 현재 직업과 직장위치, 다른 지역 거주 의사, 참여활동 종류, 추구하는 삶의 가치 등
- 조사대상 : 충남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 136호
- 조사주체 : 설문조사 전문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방법 : 가구방문 설문조사

둘째, 마을주민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심층 파악하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세부내용은 본문에서 해당부분에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조사명 : 농어촌 마을 생활상 실태조사
- 조사목적 : 농어촌 마을의 생활 여건 심층 파악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9일, 8월 22일
- 조사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 송국리, 신암리
- 조사내용 : 마을주민 경제,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문화·여가, 일상생활, 사회복지, 교육, 정보통신, 교통, 주거환경, 노후준비, 주변환경, 가족관계, 사회관계, 소비지출 현황 등
- 조사대상 : 충남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 및 마을이장 무작위 방문
- 조사주체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조사방법 : 마을 현장조사, 가구방문 심층인터뷰 등

부여군 초촌면 설문조사 대상자인 마을주민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66.9세, 현재 마을에 평균 거주한 기간은 14.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45.6%), 학력별로 무학 혹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다(56.6%). 직업으로는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4.1%),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다(40.4%)(<표 2-21> 참고).

〈표 2-21〉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 인구학적 현황

조사항목	구분	표본수(N,명)	비중(%)
성별	여성	68	50.0
	남성	68	50.0
	총계	136	100.0
연령대	29세 이하	1	0.7%
	30세~39세	5	3.7%
	40세~49세	12	8.8%
	50세~59세	18	13.2%
	60세~69세	38	27.9%
	70세 이상	62	45.6%
	총계	136	100.0%
혼인상태	기혼	131	96.3%
	미혼	5	3.7%
	총계	136	100.0%
차량소유	있다	61	44.9%
	없다	75	55.1%
	총계	136	100.0%
월평균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5	40.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1	30.1%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1	15.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2	8.8%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	4.4%

조사항목	구분	표본수(N,명)	비중(%)		
	500만 원 이상	1	0.7%		
	소득 없음	0	0.0%		
	총계	136	100.0%		
학력	무학 혹은 초등학교	77	56.6%		
	중학교	17	12.5%		
	고등학교	31	22.8%		
	전문대학	6	4.4%		
	4년제 대학	5	3.7%		
	대학원 이상(석사, 박사)	0	0.0%		
	총계	136	100.0%		
직업 (복수응답)	농업임업어업	60	44.1%		
	자영업	8	5.9%		
	사무·전문직	7	5.1%		
	생산·기능·노무직	9	6.6%		
	무직	16	11.8%		
	은퇴	0	0.0%		
	학생, 주부 등 기타	36	26.5%		
	총계	136	100.0%		
구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bar{x})	표준편차 (SD)
연령(년)	136	28	95	66.90	14.228
현재 마을 거주기간(년)	17	1	35	14.53	9.592

2.2. 사례 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환경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정주 생활환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현재 동거가족 형태는 배우자만 함께 거주(54.4%), 혼자 거주(19.1%),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1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농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2> 참고).

<표 2-22> 현재 동거가족 및 주거 형태

현재 동거가족 형태			주거 형태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혼자 거주	26	19.1%	농가주택	125	91.9%
배우자만 함께 거주	74	54.4%	전원주택	9	6.6%
자녀만 함께 거주	8	5.9%	아파트/빌라/다가구 주택 등	0	0.0%
배우자 및 자녀 (들)이 함께 거주	19	14.0%	농막/컨테이너 등 임시 거처	0	0.0%
가족 3대 이상 함께 거주	6	4.4%	상가주택	1	0.7%
부모님	2	1.5%	교회	1	0.7%
부모님과 형제/자매	0	0.0%	절/사찰	0	0.0%
배우자와 형제/자매	1	0.7%	숙박업소	0	0.0%
시부모님	0	0.0%	총계	136	100.0%
총계	136	100.0%			

둘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다른 지역 거주여부 응답 결과,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거주하는 경우는 인근 지역인 논산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참고).

〈표 2-23〉 다른 지역 거주 여부 및 거주 지역

다른 지역 주거 여부			거주 지역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있다	4	2.9%	논산시	1	25.0%
없다	132	97.1%	논산시 광석면	1	25.0%
총계	136	100.0%	서울시 송파동	1	25.0%
			시흥시 신천동	1	25.0%
			총계	4	100.0%

셋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현재 거주 지역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현재 마을에 평균 거주기간은 14.5년, 현재 거주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51.5%), 결혼으로 인하여 현재 마을로 이주한 경우(36.0%)가 뒤를 이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사람은 대부분 귀촌인으로서 현재 시군의 다른 마을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부터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2-24> 참고).

〈표 2-24〉 현재 거주 지역 생활 실태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명)	비중(%)
현재 거주지역 생활 초기시기 실태	고향이고 계속 거주	70	51.5%
	현재 마을로 시집/장가를 옴	49	36.0%
	고향이지만 타지에서 살다가 들어옴	6	4.4%
	현재 마을에 연고 없이 들어옴	11	8.1%
	남편의 고향이기에 다른곳에 살다가 들어옴	0	0.0%
	부인의 고향이기에 다른곳에 살다가 들어옴	0	0.0%
	총계	136	100.0%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명)	비중(%)		
이주 전 거주지역	다른 시군	16	94.1%		
	현재 시군의 다른 마을	1	5.9%		
	총계	17	100.0%		
이주 유형	귀농인	3	17.6%		
	귀촌인	14	82.4%		
	총계	17	100.0%		
구분	표본수 (N)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값 (X)	표준편차 (SD)
현재 마을 거주기간(년)	17	1	35	14.53	9.592

넷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미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직장 문제, 가족과의 동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불편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5> 참고).

〈표 2-25〉 다른 지역 이주 계획 여부 및 이주 이유

다른 지역 이주 계획			이주 이유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다	132	97.1%	수익이 더 나은 사업을 하려고	0	0.0%
현재 살고 있는 면 지역의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할 계획이다	1	0.7%	직장에 다니려고	1	25.0%
현재 살고 있는 군 지역의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할 계획이다	0	0.0%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고	1	25.0%
농촌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할 계획이다	3	2.2%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불편해서	2	50.0%
총계	136	100.0%	병원이 멀어서	0	0.0%
			총계	4	100.0%

다섯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외부 지역으로 출타할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농어촌 버스(50.0%), 자가용(49.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6> 참고).

〈표 2-26〉 외부 출타 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

구분	빈도수(명)	비중(%)
자가용	67	49.3%
농어촌 버스	68	50.0%
택시	0	0.0%
오토바이	1	0.7%
도보	0	0.0%
전동휠체어	0	0.0%
자녀의 자가용	0	0.0%
시외버스	0	0.0%
없다	0	0.0%
총계	136	100.0%

2.3. 사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이용 현황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전반적인 생활권 이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이용 실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2-27> 참고).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표 2-27〉 생활 서비스 영역별 이용 장소

(단위: 명, %)

영역	마을	면 소재지	다른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다른 시군 지역	총계
① 식료품, 기초 생필품 구입	8	66	3	3	56	136
_ 비중(%)	5.9%	48.5%	2.2%	2.2%	41.2%	100.0%
② 아미용실,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	10	53	5	6	62	136
_ 비중(%)	7.4%	39.0%	3.7%	4.4%	45.6%	100.0%
③ 가전, 가구 등 고가상품 구입 혹은 상업서비스 이용	0	1	1	7	127	136
_ 비중(%)	0.0%	0.7%	0.7%	5.1%	93.4%	100.0%
④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이용	12	105	2	6	11	136
_ 비중(%)	8.8%	77.2%	1.5%	4.4%	8.1%	100.0%
⑤ 보건소, 병의원 등 간단한 진료	14	93	1	6	22	136
_ 비중(%)	10.3%	68.4%	0.7%	4.4%	16.2%	100.0%
⑥ 종합병원 등 전문 진료	0	0	1	3	132	136
_ 비중(%)	0.0%	0.0%	0.7%	2.2%	97.1%	100.0%
⑦ 문화여가취미 활동	35	64	0	7	30	136
_ 비중(%)	25.7%	47.1%	0.0%	5.1%	22.1%	100.0%
⑧ 친목 모임	33	63	4	13	23	136
_ 비중(%)	24.3%	46.3%	2.9%	9.6%	16.9%	100.0%

① 식료품, 기초 생필품 등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구입하는 생활권은 주로 면 소재지(48.5%), 다른 시군 지역(41.2%)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로서 진호리의 경우, 젊은 층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논산시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 대부분 마을주민 자녀들이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다 보니 가끔 대전광역시로 나가는 주민도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을 가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송국리의 경우,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논산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면소재지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등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 생필품 등은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식료품 등은 논산시 대형마트를 이용하여 구입한다. 10년 전까지는 생필품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생활비 등 소비지출 현황은 평균 월 생활비로 보통 1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노령연금, 기초수당으로 월 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는 식비

지출로 사용한다. 핸드폰은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모두 갖고 있고 통신비용은 자식들이 대신 납부한다. 핸드폰 기능은 최소한 통화기능만 사용한다. 겨울철에는 전기 매트를 사용하고 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대신 겨울철 낮 시간대는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편이라서 난방비를 절약하며 생활한다.

② 이.미용실,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하는 생활권은 주로 다른 시군 지역(45.6%), 면 소재지(39.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 가구 등 고가상품 구입 혹은 상업서비스 이용하는 생활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시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촌면 소재지 상권실태를 살펴보면, 초촌면은 부여군 내에서 작은 면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권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예를 들면, 식당도 8개 정도로 거의 없는 편인데 치킨 집 2곳만이 외식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③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이용하는 생활권은 거의 대부분 면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촌면 농촌지역 안에서도 면소재지를 이용하는 패턴 중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다. 대부분 마을어른들은 면소재지 공공기관, 우체국,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30~40대의 젊은 주민은 면소재지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읍내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해결한다. 시골에 사는 60대 이상의 주민은 나름대로의 일정한 생활패턴이 있어서 면 소재지 이용에 익숙하다. 면 소재지에는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 외에도 학교교육 실태는 초촌초등학교와 소사초등학교(폐교)가 있다. 지역 내 주민들은 초촌초등학교와 소사초등학교 출신으로 나뉜다. 소사초등학교는 폐교된 지 오래되었고 초촌초등학교 학교 전체 인원이 23명이다. 유치원도 있었는데 폐교되었다. 젊은 층의 인구는 거의 유입하고 있지 않거나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건소, 병원 등 간단한 진료 목적을 위한 생활권은 거의 대부분 면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등 전문적인 진료 목적을 위한 생활권은 거의 대부분 다른 시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서 진호리의 경우, 의료치료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를 나가는데 주로 논산시나 초촌면 내 작은 의료원을 이용한다. 미용실, 병원, 약국 등은 이용하는 곳만을 이용한다. 농민약국이 부여읍내에 있는데 어른들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가끔씩 오고 젊은 층들은 봉사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른들이 주로 논산시로 갈 때는 병원 등 의료치료를 목적으로 나갈 때가 많다.

송국리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에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마을주민 대부분은 주로 허리나 무릎 등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한의원)은 물리치료 침을 맞기 위해 이용을 많이 한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검진 등을 받고 있어서 의료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다. 요양원이 있지만 마을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다.

⑤ 문화.여가.취미 활동을 이용하는 생활권은 주로 면 소재지(47.1%), 다른 시군 지역(22.1%) 순으로 나타났다. 친목모임을 위해 이용하는 생활권은 거의 대부분 면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서 진호리의 경우, 마을 내 어른들은 마을회관, 계모임을 통해서 소재지로 나오는 편이라고 한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문화시설 이용은 적극적인 주민만 이용하는 편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면소재지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지 않아서 논산시를 주로 이용한다.

반면, 송국리의 경우, 쉬는 날에는 주로 마을회관에 모여 있다. 여름철, 점심 이후, 겨울철 등은 마을회관에 주로 모여 있고 십시일반하여 쌀, 김치 등을 모아서 끼니를 차려서 먹는다. 음식을 차리는 사람들은 당번이 있기보다는 알아서 각자 돌아가면서 차린다. 마을회관에 남성들은 거의 안 오고 주로 여성들이 차지하는 편이다.

둘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이용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표 2-28, 29, 30, 31> 참고).

① 월 평균 면 소재지 방문횟수는 10.6회(주 단위 환산 시 2.65회), 군청 소재지 방문횟수는 3.0회(주 단위 환산 시 0.7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년 전과 비교했을 시, 방문횟수 변화 중 면 소재지의 경우는 비숫(36.0%), 증가(30.4%), 감소(18.4%) 순으로 나타났고, 군청 소재지의 경우는 비숫(44.8%), 감소(25.6%), 증가(17.6%) 순으로 나타났다(<표 2-28> 참고).

〈표 2-28〉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월 평균 방문횟수 및 과거 방문횟수 변화

구분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빈도수(명)	비중(%)	빈도수(명)	비중(%)	
크게 줄었다	8	6.4%	9	7.2%	
줄었다	23	18.4%	32	25.6%	
비슷하다	45	36.0%	56	44.8%	
늘었다	38	30.4%	22	17.6%	
크게 늘었다	11	8.8%	6	4.8%	
모름/무응답	0	0.0%	0	0.0%	
총계	125	100.0%	125	100.0%	
구분	표본수(N)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값(X)	표준편차(SD)
면 소재지 월 평균 방문횟수(회/월)	136	1	30	10.60	8.976
군청 소재지 월 평균 방문횟수(회/월)	136	1	25	3.04	4.341

② 방문횟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면 소재지의 경우는 면 소재지에 상점 및 업소의 폐업 혹은 감소(35.5%), 면 소재지로 가는 교통편의 부족 혹은 불편함(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 소재지의 경우는 군청 소재지로 가는 교통편의 부족 혹은 불편함(46.3%), 직장이전 문제(24.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29> 참고).

<표 2-29>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방문횟수 감소 이유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면 소재지에 상점, 업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11	35.5%	군청 소재지에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어서	10	24.4%
건강이 악화되어 자주 움직이기 힘들어서	6	19.4%	더 큰 도시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나아서	3	7.3%
면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불편하거나 차편이 줄어서	10	32.3%	건강이 악화되어 자주 움직이기 힘들어서	4	9.8%
면 소재지에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어서	4	12.9%	큰 도시로 가는 도로가 나아지거나 차편이 늘어서	3	7.3%
인터넷, 홈쇼핑 등 택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서	0	0.0%	군청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불편하거나 차편이 줄어서	19	46.3%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0	0.0%	인터넷, 홈쇼핑 등 택배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서	0	0.0%
군청 소재지에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	0	0.0%	갈 이유가 없어서	0	0.0%
총계	31	100.0%	결혼 후 나갈 일이 없어서	1	2.4%
			병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1	2.4%
			총계	41	100.0%

③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면 소재지와 군청 소재지의 경우 둘다 면 소재지에서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 이용(각 30.6%, 28.6%)을 꼽았다. 그 외에도 면 소재지의 경우는 면 소재지에서 이뤄지는 각종 모임참여 계기(32.7%)를 꼽았다(<표 2-30> 참고).

<표 2-30>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방문횟수 증가 이유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면 소재지에서 원하는 물품, 서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5	30.6%	군청 소재지에서 직장을 갖거나 일을 하게 되어서	2	7.1%
면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예전보다 더 참여하게 되어서	16	32.7%	군청 소재지에서 원하는 물품, 서비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5	53.6%
면 소재지에 있는 취미/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8	16.3%	군청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예전보다 더 참여하게 되어서	8	28.6%
마을 근처에서 이용하던 각종 시설이 줄거나 없어져서	0	0.0%	군청 소재지에 있는 취미/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1	3.6%
면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나아지거나 차편이 늘어나서	4	8.2%	군청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나아지거나 차편이 늘어서	2	7.1%
면 소재지에서 직장을 갖거나 일을 하게 되어서	4	8.2%	행정적 업무 때문에	0	0.0%
정보이용이 수월해서	1	2.0%	봉사 활동 때문에	0	0.0%
병원에 가기 위해서	0	0.0%	병원에 가기 위해서	0	0.0%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1	2.0%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0	0.0%
총계	49	100.0%	총계	28	100.0%

면소재지에 각종 모임참여 계기가 생긴 이유는 면소재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서 모임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⁹⁾으로는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참여계층

은 면민 전체), 노인건강교실(참여계층은 노인층), 풍물교실과 서예교실(참여계층은 장년층), 건강제조교실(참여계층은 여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꾸준히 면민을 위한 문화, 여가, 취미활동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취미생활모임으로 시군 단위별로 축구, 배드민턴, 배구 모임 등이 있는데 초촌면은 배구모임이 있다. 주 연령대는 50대가 주를 이루는데 젊은 층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 이외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부여군 지역 내에서의 활동(문화, 예술) 단체들은 없다고 본다.

④ 면 소재지와 군청 소재지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둘 다 대체로 만족함(각 47.8%, 40.4%)으로 나타나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군청 소재지 만족도는 면 소재지에 비해서 보통(47.1%)이라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2-31> 참고).

<표 2-31>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구분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빈도수(명)	비중(%)	빈도수(명)	비중(%)
매우 만족	7	5.1%	2	1.5%
대체로 만족	65	47.8%	55	40.4%
보통	40	29.4%	64	47.1%
대체로 불만족	22	16.2%	14	10.3%
매우 불만족	2	1.5%	1	0.7%
총계	136	100.0%	136	100.0%

이와 같이 면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이용실태에 차이가 나는 원인 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정보통신 및 교통여건으로 볼 수 있다.

사례로서 진호리의 경우, 초촌면은 공주시나 논산시와 인접해 있지만 타 지역 시내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신암리의 경우, 교외생활권이고 보통 부여군으로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동네이다. 버스시간, 장이 열리는 날짜 등을 고려하면서 생활한다.

9) 자료 : 부여군 초촌면 홈페이지(http://tour.buyeo.go.kr/html/dong16/jachi/jachi_0502.html?&GotofPage=3)

송국리의 경우, 교통여건이 불편하다고 한다. 하루에 7~8대의 교통버스가 운행되는데 이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송국리에서 부여읍내까지 약 15~20분 내외가 소요된다. 논산시로 나가는 마을버스는 1시간에 1대 정도 있는데 논산시까지 마을버스로 20분, 자동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송국리는 부여읍내로 나가는 시간과 논산시로 나가는 시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버스정류소까지 20여분 정도 소요되는 게 단점이다. 시골길은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 버스를 타러 가기까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걸어가는 이동시간이 더 길다는 문제이다.

셋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 중 과거에는 이용 가능했지만 현재 이용하기 힘들어진 시설은 대부분 없음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그 외에도 5일장(13.6%), 상설시장 및 목욕탕 등(각 3.8%) 순으로 나타났다(<표 2-32> 참고).

<표 2-32> 면 소재지 시설 중 과거와 비교 시 현재 이용 힘들어진 시설(복수응답)

구분	빈도수(명)	비중(%)
5일장	18	13.6%
상설시장	5	3.8%
목욕탕	5	3.8%
농협 등 은행	0	0.0%
초등학교	4	3.0%
보건지소, 약국 등 진료기관	3	2.3%
버스가 줄었다	2	1.5%
없다	94	71.2%
모름/무응답	1	0.8%
총계	132	100.0%

넷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월 평균 다른 시군 지역으로 출타하는 횟수는 약 6.25회, 이는 곧 주 1.56회 출타함을 알 수 있다. 주로 방문하는 지역은 논산시가 압도적이고, 과거 20년 전과 비교했을 시 증가(32.8%), 비슷(28.8%)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33> 참고).

〈표 2-33〉 다른 시군 지역 월 평균 출타횟수, 방문지역, 변화 정도

방문지역			변화 정도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논산시	125	91.9%	크게 줄었다	1	0.8%
대전시	6	4.4%	줄었다	26	20.8%
서울시	4	2.9%	비슷하다	36	28.8%
공주시	1	0.7%	늘었다	41	32.8%
총계	136	100.0%	크게 늘었다	20	16.0%
			모름/무응답	1	0.8%
			총계	125	100.0%
구분	표본수(N)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값(X)	표준편차(SD)
다른 시군 평균 출타횟수(회/월)	136	1	30	6.25	6.107

2.4. 사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활동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의 현재 직업은 주로 농림어업이므로(44.1%)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위치도 대부분 거주하는 면 지역(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참고).

〈표 2-34〉 현재 직업과 직장 위치

현재 직업			직장 위치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농업임업어업	60	44.1%	재택 근무	0	0.0%
자영업	8	5.9%	마을	2	8.3%
사무전문직	7	5.1%	거주하는 면 지역	20	83.3%
생산기능노무직	9	6.6%	군청 소재지	0	0.0%
무직	16	11.8%	거주하는 시군의 타 읍/면	2	8.3%
은퇴	0	0.0%	인근 시군 지역	0	0.0%
학생, 주부 등 기타	36	26.5%	대도시 혹은 서울, 부산 등 광역도시	0	0.0%
총계	136	100.0%	총계	24	100.0%

둘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은 농업 활동을 위한 농경지 위치도 대부분 마을(6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외 다른 경제활동 참여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부여군 초촌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 마을로서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만 수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농지 위치, 직장 위치도 마을이라는 공간 특성을 공유한다(<표 2-35> 참고).

〈표 2-35〉 농업 활동을 위한 농경지 위치 및 농업 외 다른 경제활동 참여 여부

농경지 위치			다른 경제활동		
구분	빈도수(명)	비중(%)	구분	빈도수(명)	비중(%)
마을	38	63.3%	농사만 수행	55	91.7%
거주하는 면 지역	21	35.0%	농산물 가공	1	1.7%
인근 시군 지역	1	1.7%	주말농장, 체험활동 등 농촌관광	0	0.0%
총계	60	100.0%	농외 취업 혹은 부업	2	3.3%
			식당, 상점 등 자영업	0	0.0%
			농기계 등 농작업 대행	1	1.7%
			축산	1	1.7%
			총계	60	100.0%

셋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지역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으로서 대부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읍·면단위 조직 활동(64.7%)을 꼽고 있다. 없다는 응답(22.0%)도 높은 편에 속하였다(〈표 2-36〉 참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의 저조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동체 의식이 많이 없어지고 마을부녀회를 참여하려고 해도 세대차이가 발생하니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즉, 생각이 있고 적극적인 젊은 사람들만 참여하기에는 정서적 차이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신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중심으로 모임을 참여하고 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일을 신경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표 2-36〉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활동(복수응답)

구분	빈도수(명)	비중(%)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읍·면단위 조직 활동	97	64.7%
농민회, 한농연 등 농민단체 활동	9	6.0%
자율방범대, 봉사단체 등 자원봉사활동	3	2.0%

구분	빈도수(명)	비중(%)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취미/ 여가 활동	4	2.7%
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	1	0.7%
환경 및 자연 보존 활동	2	1.3%
없다	33	22.0%
모름/무응답	1	0.7%
총계	150	100.0%

넷째,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이 추구하는 삶을 살펴보면 돈과 시간 측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삶보다 “돈은 적게 벌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79.4%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삶보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를 원하는 사람이 58.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방향에서는 도시처럼 생활이 편한 곳보다는 “농촌다운 특성이 잘 보전되고 지켜진 곳”을 원하는 사람이 73.5%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표 2-37〉 참고).

〈표 2-37〉 마을주민이 추구하는 삶, 가치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명)	비중(%)
돈과 시간	바쁘게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삶	28	20.6%
	돈은 적게 벌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	108	79.4%
	총계	136	100.0%
네트워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80	58.8%
	간섭 안 받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한다	56	41.2%
	총계	136	100.0%
지역의 발전방향	도시처럼 생활이 편리한 곳	36	26.5%
	농촌다운 특성이 잘 보전되고 지켜진 곳	100	73.5%
	총계	136	100.0%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3.1. 요약

부여군 초촌면 21개 행정리의 마을이장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일반농촌지역의 생활권 변화 실태 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마을주민들의 영역별 주요 생활권 이용실태 분석결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즉, 생활필수품 구입,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관공서 등 방문, 간단한 의료진료, 여가 및 문화활동, 친목모임 활동을 위해서 주로 면소재지(초촌면)를 이용한다. 나머지 생활편의시설 이용,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주요 물품구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해서 인근 도시지역(논산시)을 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의료진료가 필요하게 되면 인근 대도시(대전광역시)를 이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만 마을이장과 마을주민 응답을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하는 편이다. 가끔 부여읍 등 군청 소재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횡수나 이용측면에서 제한적이고 인지하는 수준도 미미하다(<그림 2-2>, <표 2-38> 참고).

<표 2-38> 생활권 이용 실태 요약

영역	마을이장		마을주민
	과거	현재	현재
1) 생활필수품 구입	논산시	초촌면	면 소재지
	66.7%	70.8%	48.5%
2) 생활편의시설 이용	논산시	논산시	다른 시군 지역
	65.2%	66.7%	45.6%
3) 가구, 가전제품 등 구입	논산시	논산시	다른 시군 지역
	69.6%	75.0%	93.4%
4) 여가 및 문화활동	논산시	논산시	면 소재지
	61.9%	45.5%	47.1%
5) 간단한 진료	초촌면	초촌면	면 소재지
	50.0%	69.6%	68.4%

영역	마을이장		마을주민
	과거	현재	현재
6) 전문적 진료	논산시	대전시	다른 시군 지역
	53.8%	48.3%	97.1%
7) 관공서, 은행, 우체국 이용			면 소재지
			77.2%
8) 친목 모임			면 소재지
			46.3%
출타하는 지역과 횡수	다른 지역으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출타, 주로 논산시		



<그림 2-2> 부여군 초촌면 마을주민 생활권 이용 공간분포

둘째,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 조직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경제활동 조직 특징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창립, 운영,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은 점차 소멸, 쇠퇴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각종 경제 계, 새마을영농회 등이 그것이다. 반면, 마을주민이 개별적으로 가입, 운영, 활동하는 경제활동 조직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그것이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별농가 경영체 관점이 우세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그 다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활동 조직 특징으로 경제활동 조직 특징과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창립, 운영, 활동하는 사회활동조직은 점차 소멸, 쇠퇴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각종 경조사계, 청년회, 새마을회 등이 그것이다. 반면, 마을주민이 고령화됨에 따라 마을 내 사회활동 조직은 점차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노인회, 마을회, 부녀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주민 대부분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읍·면단위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을 내에 있는 공동공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제활동 근간이 되는 공동시설, 공동공간 상태 진단 결과,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 대신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여가를 즐기는 공동시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까닭에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은 공동시설은 계속 정책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공동창고, 공동우물과 같은 경제활동 시설(기반)은 노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는 농촌마을에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관리할 인력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그 외 공공시설 이용 실태 중 면소재지 시설 중 활발하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넷째, 마을주민의 정주 생활 환경 분석결과이다. 현재 마을주민들의 동거가족 형태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 혼자 거주하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형태도 일반 농가주택(단독주택)으로 나왔다. 최근 귀촌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마을을 선택한 경우 대부분이지만 원주민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마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고향, 결혼 등의 이유로 인한 결과이다. 고향이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 계획은 없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다섯째,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행정 소재지에 대한 인식, 마을 공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점차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이용실태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접근성의 불편함, 상업편의시설(상권기능)의 취약, 직장이전 문제 등으로 기인한다. 면 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 이용실태 증가 이유도 상업편의시설(상권기능) 이용의 편리성, 친목모임을 위한 위락시설 확충 등이라고 본다. 면 소재지에서 없어진 공공시설은 주로 시장(상권기능)이다. 마을주민이 느끼기에 상권기능 및 상업편의시설이 소재지 만족도나 방문횟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면 소재지나 군청 소재지 전반적으로 생활환경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3.2. 시사점 및 정책과제

일반농촌지역의 생활권 변화 실태 분석결과로부터 시사점과 정책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활권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역을 선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촌공간 정책을 수립하고 고려할 때,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정책,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생활권 이용 실태 비중은 선명하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양극화 추세도 엿보인다. 특히 연령대별 면소재지 이용패턴 및 각종 생활패턴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함도 주요 특징이다.

젊은 층에게 면소재지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생필품 구입, 생활편의시설, 문화·여가·취미활동 등을 위한 활동반경은 인근 논산시 지역을 이용한다. 반면, 노인층에게 면소재지 이용 빈도는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면소재지에 대한 인식 또한 차이가 있다. 즉, 면소재지에서 공적 업무, 간단한 의료치료, 보건행위, 생필품 구입, 문화·여가·취미활동 등을 여전히 하고 있다. 관공서, 은행, 우체국, 보건소, 공동생활 공간 이용에도 적극적이고 그들만의 오래된 생활습관과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면소재지는 주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 기능,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약한 상업기능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 외 생활기능, 중요한 의료 및 복지, 여가 및 문화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행정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상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상권이 상실된 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초촌면 소재지에 있는 물리적 시설을 살펴보면,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일부 식당 및 노래방만 있고 그 외 편의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군청 소재지는 마을주민이 체감하고 인지하는 수준이 거의 전무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마을주민 대부분은 면소재지 및 군청 소재지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한다. 정책집행자, 연구자 입장에서 보는 생활의 불편함과 편리함, 마을주민 입장에서 보는 생활의 불편함과 편리함 등 입장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수요를 더 반영할 것인지 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 간극을 어떤 지점에서 좁혀야 하는지, 공간 상 어떤 지역(소재지)에 어떤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지 정책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농촌마을을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정책 방향이라면, 면 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성격을 가진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지원 하는 방식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제 3 장

20년 사업 마을의 정주 환경 변화

셋째, 마을인구의 고령화와 감소화로 인해서 생활기능은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초촌면 마을주민은 부여군 내에서도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56%로서 높은 편에 속한다.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문화, 여가, 취미 활동 등을 하지 않고 주로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로 도시권 지역(논산시, 대전시)을 찾게 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큰 불편함도 없고, 있다고 해도 이주를 계획할 의도조차 전무한 편이다.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동력이 없으므로 이런 농촌마을은 점차 후퇴하는 지역으로 변하거나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소멸가능한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농촌공간정책과 인구정책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넷째, 마을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마을 내 상업기능이 취약하다보니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외부로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모든 생활환경의 출발은 이동성, 접근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 마을은 특성 상 행정리 혹은 법정리 단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로 출타해야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농어촌 버스, 자가용 등으로 나타났지만 농촌마을에서 나이가 많이 든 마을주민은 대부분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초촌면은 논산시와 가까워서 논산시 행선의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이라서 주민들은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버스정류소까지 가는 길이 인도가 없고 버스를 타는 시간만큼 걸어서 버스정류장까지 가야 하는 일이 수고스러운 일이다. 농촌마을에서의 다양하고 손쉬운 수요자 중심형 대중교통 정책과 사람 중심의 도로인프라 등도 아울러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주민의 경제활동과 조직, 사회문화 활동과 조직, 공동시설 및 공동공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지역리더나 후계인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사회 전체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활동이 쇠퇴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던 조직, 시설, 공간 등 활용률 또한 저조하게 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에 있는 유희시설 및 자원 등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 지역 내 혹은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여 젊은 인구층을 유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다.

마을에 새로 유입된 젊은 층은 농림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문제인식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도 무리인 상황이다. 공동체 생활도 지역 내에서 세대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식 차이가 커서 참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세대별, 연령별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생활패턴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대전시 서구 증촌마을

1.1. 마을 개요와 여건 변화

■ 지리적 여건

증촌마을은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서구 증촌1길(지번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에 해당되며 대전시 남서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 논산시 벌곡면과 접하고 있다.



증촌마을 위성사진(출처: Daum)

증촌마을 가구 배치 위성사진(출처: Daum)

마을 앞뒤로 약 200~400m의 산들이 있고, 마을 앞을 지나는 벌곡천(갑천) 주위로 농경지(논)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선 증벌들이라 한다. 벌곡천에 설치된 보(湫)와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어 가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40여 호 가구는 산재(散在)되어 있지 않고 마을 뒷산을 배경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마을 뒤, 좌우로 그리 높지 않은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벌곡천이 휘어 감고 있어 풍수 이론의 배산임수(背山臨水) 형태를 하고 있다.



마을 전경

마을 앞 벌곡천(갑천)

■ 마을의 유래

대둔산을 벗삼아 솟아 있는 월성산 기슭에 자리한 증촌마을은, 고려 개국공신인 무송(茂松) 유(庾)씨 시조 충절공 유급필 장군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400여 년 전에 22세손 통덕랑 웅(雄) 할아버지가 이곳에 터를 잡으신 후, 인근의 영골 마을(현재의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부근)에까지 자손들이 대를 이어 번창하고 있다. 유씨 후손들은 5세손 녹송 할아버지가 고려 때 무송부원군에 봉해지신 것을 계기로 본관을 평산에서 무송으로 하여 한 뿌리 자손으로 혈통을 잇고 있다.

마을 뒷산 봉우리가 시루 모양과 유사하여 시루 증(甌)자를 써 증촌이라 했다가 증도문(僧道門)이라 한 적도 있다. 증도문이라는 옛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글 읽는 소리가 집집마다 넘쳤다고 하며, 예절바르고 다복한 장수마을로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증촌은 햇살 바른 곳에 집성촌을 이루어 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상서로운 고장이다. 주변 환경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고향의 보전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2005년 5월 유병천씨를 중심으로 “꽃마을 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007년에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로 선정된 적이 있다.

■ 교통과 생활권

대전광역시 시내권(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증촌마을로 연결되는 기존도로는 협소한 도로 폭, 급커브 등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2015년 대전~논산 벌곡길 확장공사 1구간(대전 서구 괴곡동 벌말~흑석동)이 개통됨에 따라 증촌마을로의 접근성과 인근 대전시 중심부로의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네거리에서 증촌마을까지의 도로거리는 약 13Km이며, 자동차로 약 20분 소요된다. 증촌마을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권은 마을에서 약 4Km떨어진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흑석동)이지만, 의료서비스, 생필품 구입, 문화서비스 관련 생활권은 대전광역시 시내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간선도로의 확장은 증촌마을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확장된 도로(대전~벌곡길)

증촌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은 크게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흑석동), 서구 도마동 및 대전광역시 중심부로 나눌 수 있다.

마을에서 기성동까지의 이동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7~8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나, 고령노인층은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환승 없이 약 15분 정도면 기성동까지 이동할 수 있기에 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 마을 내 정류장에서 기성동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06시가 첫차이며 막차는 22시05분이다. 평일 기준 배차간격은 약 50분이며 하루에 20회 운행하고 있다. 또한 기성동에서는 대전광역시 시내권까지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일반 농촌마을에 비해 주변 대도시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기성동(흑석네거리)에서 대전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첫차가 05시50분, 막차가 22시20분이며 하루 39회 운행하고 있다.

증촌마을의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은 43.3%¹⁰⁾로 전국 평균 65.1%, 대전광역시 평균 67.3%에 비해 무척 낮다¹¹⁾. 이처럼 자동차 보유가구가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고령

세대¹²⁾가 많아 자동차 운전이 어려움이 많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자동차 소유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전시 서구 기성동은 물론 대전시 증심부까지 대중교통(버스)이 비교적 잘 연결되어 있어 생활상 이동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로 환경과 대중교통 여건이 비교적 좋아 증촌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권은 대전시 기성동과 대전시 서구 지역까지 넓게 형성될 수 있었다.



10) 2018년 증촌마을 가구별 조사 결과치임. 조사에 응답한 총 30가구 가운데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13가구였음
 1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12) 2018년 증촌마을 가구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세대주의 54.3%가 70세 이상 고령임

1.2. 인구 및 가족 구조

■ 총가구수의 변화

증촌마을의 총가구수는 1985년 58호에서 1994년 50호, 2018년 42호¹³⁾로 약 30년 동안 16호 감소하였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간 8호가 감소한 것에 비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4년 간 동일하게 8호가 감소, 증촌마을의 가구수 감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근 10년 간 증촌마을의 경우 전출가구(2호)보다 전입가구(5호)가 많은 것도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전입가구의 대부분은 도시부(대전)에서 거주하다가 증촌마을로 귀촌하는 경우이다.

■ 전출입 가구 분석

최근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인구가 있는 가구는 2호에 불과하며 고령 세대주의 건강악화로 인한 요양원 입원과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전출한 경우이다. 한편 전입가구는 총 5호이며 12명이 증촌마을로 전입하였다. 전입가구의 세대주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증촌마을 주변 지역(대전 시내권)에 직장을 두고 있다. 즉 증촌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변 도시로 출퇴근하는 귀촌가구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증촌마을 내에 빈집이나 주택지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귀촌하는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 현황

세대주	전출 연도	전출 가족수	전출 목적	참고
김OO	2017	1	요양원 입원	
유OO	2009	3	자녀 교육	현재 세대주만 거주

13) 2018년 7월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수는 49호이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7호를 제외함

〈표 3-2〉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입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가족수	전입 전 거주지	전입 목적
유OO	2018	2	대전 서구 갈마동	귀향
이OO	2017	4	-	귀촌
유OO	2013	2	-	귀촌
선OO	2013	2	대전 서구 흑석동	귀촌
김OO	2013	2	대전 서구 흑석동	귀촌

■ 인구의 변화

증촌마을의 인구는 1985년 224명이었지만 1994년 162명으로 줄었으며 2018년에는 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귀농, 귀촌인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즉 인구의 사회적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 세대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되지(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동거하고자 의향도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고령에 의한 자연사로 8명이 자연감소 하였으나 이 기간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결국 증촌마을의 경우 인구의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인구 증감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3-3〉 증촌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1994년, 2018년)

연도	1985	1994	2018
세대수(가구수)	58	50	42 ¹⁴⁾
인구	224	162	84
세대당 평균 가족수	3.86	3.24	2.00

1985년 224명이었던 증촌마을의 인구는 2018년에는 84명으로 약 30년 동안 62.5%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동안 세대수는 58세대에서 42세대로 27.6% 줄어들어 인구의 감소율과 비교하면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수는 급감하였지만,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다.

증촌마을의 세대당 가족 구성원은 고령 단신세대의 증가 등에 의해 1985년 3.86명에서

14) 총 세대수는 49호이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7호는 제외

2018년에는 2.00명으로 줄었다.

30대 이하의 젊은 층 인구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과반수가 넘는 58.4%였지만 1994년에는 43.8%로, 2017년에는 7.6%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1985년 21.8%, 1994년 34.5%, 2017년 8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표 3-4〉 증촌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구분	1985		1994		2017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0~20대	102	45.5	58	35.8	3	3.8
30대	29	12.9	13	8.0	3	3.8
40대	15	6.7	20	12.3	2	2.6
50대	30	13.4	15	9.3	5	6.4
60대	29	12.9	25	15.4	33	42.3
70대	20	8.9	31	19.1	32	41.0
합계	224	100.0	162	100.0	78	100.0

증촌마을은 대전광역시의 시내권(중심부)과 인접해 있어 이전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구이동(전출입)이 이루어졌다. 최근 5년 간은 귀촌, 귀향을 목적으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전보다 전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주의 자녀들이 이미 교육, 직장, 결혼 관계로 대부분 전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구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나 증촌마을 내의 빈집 또는 택지(대지)가 많지 않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출생자는 1명인데 비해 8명이 노환으로 사망함으로써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증촌마을의 최근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는 감소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서는 인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3-5〉 인구증감의 요인별 변화 (2009~2018)

2009~2018 인구증감수		-4
사회적 증감	전입 (a)	12
	전출 (b)	9
	순증감 (a-b)	3
자연적 증감	출생 (c)	1
	사망 (d)	8
	순증감 (c-d)	-7

■ 전출입자 분석

증촌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육, 직장, 결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70대 이상 고령세대주의 경우 현재 자녀들의 나이가 40~60대이기 때문에 상기의 이유로 20~40년 전에 이미 대부분 전출하였다. 2009년~2018년 전출한 인구는 9명에 불과한데 교육보다는 결혼과 직장 관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 사이에 증촌마을로 귀촌, 귀향한 가구는 총 5가구이며 인구수는 12명에 이른다. 5가구 가운데 1가구만 귀향한 형태이고 나머지 4가구는 인근 마을 또는 대전 시내 권에서 이주해 온 귀촌한 형태이다. 전입한 4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1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3-6〉 과거 5년(2013~2018)간 전입한 가구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가족수	전입 후 직업	전입 전 주소	전입 목적	전입 신고
유00	2018	2	특수 운전기사	대전 서구	귀향	○
이00	2017	4	전기기사		귀촌	×
유00	2013	2	무직		귀촌	○
선00	2013	2	안마사	대전 서구	귀촌	○
김00	2013	2	회사원	대전 서구	귀촌	○

■ 가족유형 변화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고령 독신 세대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과 3대가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급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신세대의 경우 1985년에 8.6%에서 2018년에는 30.9%로 증가하였고, 3대가족 비율은 1985년 31.0%에서 2018년에는 2.4%로 급감했다. 독신세대 비율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독신 노인층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 관계로 자녀들이 외지로 이미 모두 나갔기에 부부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1985년 12.1%에서 2018년 35.7%로 증가하였다.

〈표 3-7〉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핵가족	독신	5	8.6	8	16.0	13	30.9
	부부	7	12.1	13	26.0	15	35.7
	부부+자녀	20	34.5	12	24.0	6	14.3
	편부부+자녀	4	6.9	3	6.0	2	4.8
	(편)부모+(편)부부	-	-	-	-	2	4.8
	미혼 형제자매	1	1.7	-	-	-	-
직계가족	소계	37	63.8	36	72.0	38	90.5
	(편)부모+부부+자녀	17	29.3	10	20.0	1	2.4
	(편)부모+(편)부부+자녀	1	1.7	3	6.0	-	-
	(편)부부+손자녀	-	-	-	-	-	-
기타	소계	18	31.0	13	26.0	1	2.4
	기타	3	5.2	1	2.0	3	7.1
	합계	58	100.0	50	100.0	42	100.0

■ 독신가구 분석

2018년 현재 증촌마을의 독신가구는 총 13가구이다. 독신가구의 세대주는 모두 70대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83.5세로 초고령이다. 독신가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총 13명 가운데 여성이 11명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의 직업은 대부분은 무직이며 일부 가구에서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다. 특별한 소득원은 없으며 대부분의 가구에서 노령연금과 자녀 용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8〉 독신가구 현황(2018)

세대주	성별	연령	직업	소득원
홍OO	여	83	무직	기초생활 수급
김OO	여	80	무직, 소규모 농업	노령연금, 자녀용돈
김OO	여	82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이OO	여	83	무직, 소규모 농업	노령연금, 자녀용돈
이OO	여	89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김OO	여	88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박OO	여	미상	무직	미상
서OO	여	미상	무직, 소규모 농업	미상
손OO	여	미상	무직	미상
유OO	남	86	농업	농업, 노령연금, 자녀용돈
유OO	남	87	농업	농업, 노령연금, 자녀용돈
임OO	여	85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유OO	남	73	농업	농업, 노령연금

1.3.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

■ 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2018년 현재 증촌마을 주민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¹⁵⁾ 농업이 43.2%로 가장 많고 무직 24.3%, 회사원 10.8% 순으로 나타나 취업 구조가 비교적 단조롭다. 이처럼 증촌마을의 경우 농업 외 다른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취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9〉 취업 구조 형태(2018년)

구분	세대수	비율(%)
농업	16	43.2
회사원	4	10.8
공무원	2	5.4
자영업	2	5.4
무직	9	24.3
기타	4	10.8
합계	37	100.0

농업이라고 응답한 16가구 가운데 6가구(37.5%)는 자가 소비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거의 없는 농가이다. 농업 형태는 벼농사가 대부분이며 일부 소규모의 밭작물(노지)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시설원예, 축산, 과수농업은 규모가 매우 작다.

전업농 비율이 1985년에 91.3%였던 것이 2018년에는 23.8%¹⁶⁾까지 줄어들었으며 비농업 가구는 1985년 2.6%에서 2018년 42.9%로 급증하였다. 향후에도 증촌마을은 은퇴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령은퇴농가는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무직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촌마을의 경우 고령자들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15) 총 42가구 가운데 조사에 응한 37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16) 2018년의 경우 연간 농업소득이 2백만 원 이상의 농가비율임

〈표 3-10〉 증촌마을 가구의 농업/비농업 현황(가구, %)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105	91.3	52	55.3	10	35.7
	농업, 비농업 겸업	7	6.1	18	19.1	6	21.4
	비농업	3	2.6	24	25.5	12	42.9
합계		115	100.0	94	100.0	28	100.0

주) 무직인 세대주는 제외. 2018년 경우 37세대 조사 결과

■ 농업 경영주의 연령

증촌마을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8년 현재 65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이미 되어버렸다.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에 53.6세, 1994년 63.2세, 2018년에는 74.7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농업 경영주가 계속해서 증촌마을에 거주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연령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영주의 평균 연령을 낮춰줄 수 있는 후계자나 외부로부터의 젊은 농업인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농업 경영주의 연령	1985년		1994년		2018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	-	-	-	-	-
30대	10	20.8	-	-	-	-
40대	7	14.6	9	23.7	-	-
50대	13	27.1	7	18.4	-	-
60대	15	31.3	10	26.8	4	25.0
70대 이상	3	6.3	12	31.6	12	75.0
계	48	100.0	38	100.0	16	100.0
평균 연령	53.6		63.2		74.7	

주) 2018년 농가수는 소규모 자가소비형태의 농가는 제외

〈표 3-12〉 증촌마을과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연령	증촌마을 (2018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	1.1%	0.9%
40대	-	6.4%	5.4%
50대	-	21.4%	20.3%
60대	25.0%	31.7%	31.6%
70대 이상	75.0%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 마을 농경지 면적의 변화¹⁷⁾

증촌마을 내 농경지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약 25,000평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그 후에는 농경지 면적에 큰 변화가 없다. 2017년 농경지 면적이 1994년에 비해 8,000평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지인이 소유한 농경지를 제외한 면적¹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증촌마을 역시 다른 일반 농촌마을처럼 은퇴농가가 증가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주변 이웃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 많아 호당 경작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3〉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변화

구 분	1985년	1991년	1994년	2017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평)	87,697	71,476	62,091	54,358
농가 호수(호)	48	38	38	27
호당 경작 면적(평)	1,344	1,313	1,160	2,013

주) 2017년 면적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소유한 면적은 제외. 논 46,585평, 밭 7,773평임

증촌마을의 경우 호당 경작 면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충남 평균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증촌마을의 농업 구조는 소규모 가족농 중심이라 할 수 있다.

17) 2017년 8월에 조사한 결과임

18) 2017년 8월 증촌마을 이장(통장) 인터뷰에 의하면 외지인이 마을 농경지를 소유한 면적은 전체의 약 10%라고 하였음

〈표 3-14〉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구분	증촌마을 (2017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0.67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임

■ 농기계 보유 변화

증촌마을의 경우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농업을 하고 있기에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 농기계 가운데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트랙터 3가구, 관리기 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1985년과 비교하면 경운기 외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 새로운 농기구를 보유하는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경운기	6	6	9	7
트랙터	-	-	1	3
이앙기	-	-	2	1
콤바인	-	-	1	1
관리기	-	-	-	3

■ 농업임금 변화

2018년 증촌마을의 농업 임금(작업료)은 농작업의 종류(논농업, 밭농업)에 상관없이 1일에 남자는 약 10만원, 여자는 8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금액은 1985년에 비해 남자는 약 20배, 여자는 약 16~26배 정도 증가되었다. 과거 남녀간 농업임금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6〉 농업임금의 변화

구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2018/1985
남자(천원/1일)	5	10	40	100	20.0
여자(천원/1일)	3~5	4~8	15~20	80	16.0~26.7

1.4. 사회구조의 변화

■ 사회집단 현황

표3-1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증촌마을의 사회집단수는 1986년 25개에서 1994년에는 16개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6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혈연집단인 무송유씨 문중계는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지연집단인 행정부락도 존속되고 있다.

〈표 3-17〉 증촌마을의 사회집단 현황

구분	1986년	1994년	2018년	
혈연 집단	1(무송유씨 문중계)	1(무송유씨 문중계)	1(무송유씨 문중계)	
지연 집단	1(행정부락)	1(행정부락)	1(행정부락)	
이익 집단	경제적	5	1	1
	사회적	18	13	3
합계	25	16	6	

■ 혈연집단과 지연집단 활동 현황

혈연집단 무송유씨 문중계에서는 매년 시제와 종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문중계의 종회는 이전부터 시제 전후해서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시제는 중증별로 음력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선대에서 후대의 순으로 지낸다. 증촌마을은 소중중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매년 시제를 올리고 있다.

증촌마을은 1989년 이전까지 충청남도 대덕군 기성면 평촌3리로 지칭되다가 1989년 1월 1일자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대전직할시 기성동 13통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 서구 증촌1길(지번 주소: 서구 평촌동)에 해당된다. 증촌마을은 지역사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통장이 있으며 그 아래 반장을 두고 있다. 마을 정기총회는 기본적으로 연 1회 연말에 개최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임시총회가 열린다. 정기총회에서는 회계 결산보고와 통장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통장 선출을 한다.

■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 활동 현황

경제적 이익집단은 현재 유일하게 수리계가 남아 있다. 증촌마을의 수리계는 일명 증촌보라고 부르며 마을 앞을 흐르는 벌곡천(갑천)의 물을 이용하여 증촌뚝(중별들)의 논에 관수하기 위하여 보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농민들의 자생 조직이다. 1986년 이전까지는 농가 43호로 구성되었으나 1986~87년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13호가 늘어나 56호의 농가로 구성되었다. 1994년에는 62호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현재에는 40호로 줄어들었다. 2018년 현재 가입된 40호가 가운데 대부분은 소규모 경작을 하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수리계를 관리, 운영하는 농가수는 그리 많지 않다. 수리계 이외의 경제적 이익집단인 마을금고는 1990년에, 저축계는 1991년에 해체되었다.

한편 사회적 이익집단으로는 친목계, 노인회, 부녀회 3개 조직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노인회만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친목계, 부녀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노인회는 1989년에 조직되어 현재 회원수가 37명이고 매월 15일 정기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1.5. 생활, 정주환경의 변화

■ 가구별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

증촌마을 주민들의 가구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10만 원 미만이 20.8%, 월 10만 원~20만 원 미만이 29.2%, 월 20만 원 이상 50%로 나타났다. 응답한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183,100원이며 표준편차는 약 149,400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생활비(식비+광열비+의료비) 전체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광열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5만 원 미만이 54.5%, 10만 원까지 누계하면 81.8%를 차지한다. 응답한 가구의 월 평균 광열비는 약 74,700원으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가구별 광열비의 표준편차는 약 73,400원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구입비와 외식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20만 원까지의 비율이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한 가구의 월 평균 식비는 약 19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별 표준편차는 약 209,900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식비의 경우 주요 생활비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증촌마을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2018년)

구 분	월 평균 지출액(원)	비율(%)
의료비	183,125	40.4
광열비	74,772	16.5
식비(식료품 구입+외식)	195,870	43.1
합계	453,767	100.0

■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19)

증촌마을 가구의 73.9%는 저축액이 0원으로 나타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상생활에 있어 큰돈이 들어 갈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본인이

19)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높지 않음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가구가 많다. 1천만 원 이상 저축액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7.4%에 불과하며, 증촌마을 가구 당 평균 저축액은 약 6,547,000원 이다.

한편 가구당 부채를 살펴보면 62.5%가 부채가 없는 것을 나타냈으며, 1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는 12.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증촌마을 가구 당 평균 부채액은 약 9,208,000원 이다.

■ 가구별 자동차와 생활가전 보유 현황

가구별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43.3%로 나타나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과 대중교통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 소유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가전의 보유 현황을 보면 텔레비전, 냉장고는 100% 보유하고 있으며, 세탁기 96.7%, 전자렌지 93.3%, 청소기 86.7%, 에어컨 8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촌마을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가전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컴퓨터는 43.4%, 공기청정기는 30.0%로 나타나 비교적 보유율이 낮은 가전에 속한다.

〈표 3-19〉 증촌마을의 가구별 자동차, 생활가전 보유 현황(2018년)

구분	응답가구수	보유가구수	보유비율
자동차	30	13	43.3%
텔레비전	30	30	100.0%
냉장고	30	30	100.0%
세탁기	30	29	96.7%
전자렌지	30	28	93.3%
청소기	30	26	86.7%
에어컨	30	24	80.0%
컴퓨터	30	13	43.4%
공기청정기	30	9	30.0%

■ 주택환경의 변화

2018년 현재 증촌마을 주택의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²⁰⁾ 93.3%가 자가 소유이며, 극히

20) 총 42가구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2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임

일부 세대가 전세 또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증촌마을 세대의 대부분은 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의 건축 후 기간²¹⁾을 보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축 후 20년 이내의 주택이 5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은 23.1%이며 건축 후 평균 기간은 27.3년으로 나타났다.

〈표 2-20〉 증촌마을 가구의 건축 후 기간

구분	0~10년	11~20년	21~30년	31년~
해당 가구 비율	11.5%	46.2%	19.2%	23.1%

거주자 스스로 판단한 현재 주택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0%가 '양호하다', 26.7%가 '보통이다', 33.3%가 '불량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보통이상의 상태가 66.7%를 보여 주택환경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노후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향후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2018년 현재 증촌마을은 신개축 주택과 노후 주택 그리고 일부 폐허(빈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증촌마을 주택의 난방 방식을 살펴보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심야전기 포함) 33.3%, 화목 10.0%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 환경

증촌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마을과 가까운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에 있는 OO의원, OO한의원이다. 또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시내권

21) 총 42가구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2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임

에 있는 OO대병원, OO대병원 등 대학부속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기성동에 소재한 보건지소는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 증촌마을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2018년) 복수응답

구분	이용 가구	미이용 가구	이용가구 비율
기성동 소재 의원	15	15	50.0%
대전시 소재 OO대학병원	13	17	43.3%
대전시 소재 기타 병원	13	17	43.3%



증촌마을 대부분의 가구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형태를 보면 자녀들의 부양가족에 포함된 형태로의 가입이 60.0%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직장의료보험 20.0%, 지역의료보험 16.7% 순으로 나타났다. 1994년 조사 시에는 직장의료보험이 약 50%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 가구가 많아 직장의료보험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3-22〉 의료보험 가입 현황

구분	1994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직장의료보험	24	49.0%	6	20.0%
지역의료보험	15	30.6%	5	16.7%
의료보험	10	20.4%	1	3.3%
자녀부양	-		18	60.0%

■ 시장(市場) 생활권의 변화

증촌마을 주민들의 시장이용 생활권을 살펴보면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은 마을에서 약 1.2Km 떨어진 기성농협 평촌지점 하나로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동차나 버스를 이용 약 7~8분 거리에 있는 기성농협 본점 하나로마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기성면 흑석리의 5일장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형성되었으나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증촌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던 기성농협 평촌지점 마트가 2018년 9월 1일자로 기성동에 있는 기성농협본점으로 통합이전됨에 따라 증촌마을 주민들의 시장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3〉 증촌마을 주민들의 시장생활권(2018년) 복수응답

구분	평촌동 기성농협 하나로마트(지점)	기성동 기성농협 하나로마트(본점)	대전 서구 도마동 전통시장
이용 가구 비율	77.8%	14.3%	42.9%



1.6. 종교와 세시풍속의 변화

표3-2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증촌마을 가구별 신봉하는 종교를 살펴보면²²⁾ 불교를 신봉하는 가구가 1986년, 1994년 그리고 2018년에도 45% 전후로 가장 많다. 이렇듯 증촌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불교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가구는 1986년 8.9%에서 2018년 17.2%로 증가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구는 1994년 이후 약 35%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증촌마을 종교별 가구수 현황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불교	26(46.4%)	22(44.0%)	14(48.3%)
기독교	5(8.9%)	4(8.0%)	5(17.2%)
기타	1(1.8%)	4(8.0%)	0(0.0%)
무종교	23(41.1%)	17(34.0%)	10(34.5%)

한편 과거에 성행하였던 증촌마을의 각종 세시풍속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행하고 있는 세시풍속으로는 설날에 가족(집안)단위로 차례를 지내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집안 및 동네 어른들에 대한 세배를 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또한 정월 대보름에 윷놀이를 즐기고 백중 때 마을주민들이 모여 여름철 보양음식을 먹는 행사는 현재도 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행하던 안택굿²³⁾, 농악, 춘축²⁴⁾, 영등제²⁵⁾, 경칩먹기²⁶⁾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

22) 2018년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3) 안택굿이란 정초에 날을 잡아서 판수나 무당을 불러다가 한해동안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줏신, 조상신 등에게 기원하는 것을 말함. 굿이 끝나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음
 24) 춘축은 입춘날 춘축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등에 붙이고 송축하는 행사임
 25) 영등제는 음력 이월 초하루날 부녀자들이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풍신(風神: 영등할머니)에게 기원해서 무병안락과 풍년을 비는 풍신제의 하나임
 26) 경칩먹기는 경칩날을 전후해서 마을 근처의 산골짜기 논이나 개울에서 개구리알을 건져다가 소주에 타 마시는 풍습임. 증촌마을에서는 1995년경에도 이러한 풍습이 남았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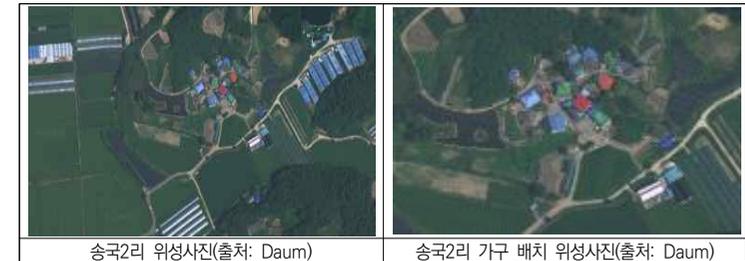
2.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2.1. 마을 개요와 여건 변화

■ 지리적 여건

송국2리가 속하는 초촌면은 부여군의 동부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는 논산시 광석면, 북쪽으로는 공주시 탄천면, 남서쪽으로 부여군 석성면 및 부여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송국2리는 초촌면의 중부에 위치하며 면소재지(응평)로부터 2km 동북방향에 자리잡고 있다. 군청 소재지인 부여읍까지는 18km, 논산을까지는 15km의 거리이다. 논산-부여간 도로(4번 국도) 접근까지는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송국2리는 마을 뒤에 해발 40~50m의 낮은 구릉지를 두고 있는데, 즉 북서쪽에서 남동향으로 뻗은 주구릉지에서 갈라진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마을은 가운데 자리잡은 송현으로 이 마을의 중심을 이룬다. 송현 마을 북쪽으로 산학골(송현으로부터 700m)이 있고, 남동쪽으로 참새골(송현으로부터 300m)이 자리 잡고 있다.



초촌면 전체로 보면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으나 송국2리는 대부분 낮은 구릉지이고 그 사이에 논과 밭이 형성된 전형적인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연화천(蓮化川)이 농업용수로 이용되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해 경지마다 관정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마을의 유래

송국리는 백제 이전부터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통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인류가 의식주를 해결하던 장소였음이 밝혀진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 하국리, 하평리, 신송리 일부와 노성군 소사면 덕상동 일부를 병합하여 신송과 하국의 이름을 따 송국리라 하였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취락지로 가장 유명한 송국리 선사취락지가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 선사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시시대부터 어떤 형태로든 주거지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전에 의하면 산학골은 경주 이씨인 李 某씨의 10대조가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온 것이 마을이 형성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때를 산학골이 형성된 시기라고 본다면 이 부락의 역사는 400년 정도 된다. 또한 송현부락은 밀양 박씨의 20대조가 개촌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새골에 대해서는 마을의 유래에 대한 구전도 알려진 것이 없다. 송현(松峴)의 지명은 소나무가 많다는 뜻의 '소나무 고개'에서, 참새골은 찬 샘물이 나온다는 뜻의 '참새골'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 교통과 생활권

송국2리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는 1995년 초에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된 폭 6m의 연화천 제방도로이다. 이 도로는 799번 지방도(탄천-공주 간)와 연화천 제방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연화천 제방을 따라 논산방면으로 뻗은 제방도로를 확·포장한 것이다. 이 도로

의 총 길이는 2km 정도로 부여-논산 간 4번 국도와 연결된다. 이 도로가 확·포장되고 나서부터 응평-논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한편 면소재지를 거쳐 4번국도(부여~논산 간)와 799번 지방도(탄천-공주 간)가 교차하는 십자가(석성면 소재지: 4km)까지 가면 논산과 부여로 갈 수 있다. 이 십자거리의 군내 버스(농어촌버스)는 물론 논산, 공주방면이나 서울방면의 직행버스(또는 고속버스)도 정차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마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하튼 면소재지인 응평(2km)까지 가야 한다. 주민들은 이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마을이 도로가 통과하는 주변이 아닌 막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부여-논산 간 4번 국도 직행, 고속버스 정류장

면소재지인 응평까지는 논산-응평 간 및 부여-응평 간 군내버스(농어촌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와 논산이 모두 생활권에 속한다. 부여읍과 논산시까지의 버스로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군소재지인 부여는 거리도 멀고 운행횟수도 적어 송국2리 마을주민들에게 부여군보다는 논산시가 더 가까운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버스 정류소(응평, 면소재지)	농어촌버스 시간표(면소재지)

2.2. 인구 및 가족 구조

■ 총가구수 변화

송국2리 마을 총가구수는 1985년 34호에서 2012년 23호, 2018년 19호로 약 33년 동안 15호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가구수 감소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송국2리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는 1가구이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온 가구는 2가구로 마을 총가구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 전출입 가구 분석

최근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인구가 있는 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한 1호에 불과하다. 반면 전입해 온 가구는 총 2호 가족수는 6명이다. 서울에서 귀촌을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와 인근 부여군 석성면에서 양송이 농업을 위해 귀농한 가구가 다. 전입 당시 세대주의 연령은 40대와 60대로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이다. 전입해 온 2가구는 현재도 송국2리에 정착, 거주하고 있다. 향후에도 송국2리 마을 내에 빈집이나 주택지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귀농 또는 귀촌하는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5〉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 현황

세대주	전출 연도	전출 가족수	전출 목적	참고
이OO	2013	1	요양원 입원	

〈표 3-26〉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입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가족수	전입 전 거주지	전입 목적
정OO	2015	2	서울	귀촌
김OO	2014	4	부여군 석성면	귀농(양송이농업)



전입한 귀농 주택

귀농자의 양송이 재배지

■ 인구 변화

송국2리 마을 인구는 1985년 140명이었지만 2012년 59명으로 줄었으며 2018년에는 4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귀농, 귀촌가구가 전입해 오면서 인구의 감소 추세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고령에 의한 자연사로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자연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1명 이상이 자연사하는 추세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은 단 1명(1세, 남자)에 불과하다. 결국 송국2리 마을의 경우 인구의 사회적 증가보다는 자연적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마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국2리 마을의 세대당 가족 구성원은 고령 단신세대의 증가 등에 의해 1985년 4.12명에서 2018년에는 2.42명으로 1985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표 3-27〉 송국2리 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

연도	1985	1988	2012	2018
세대수(가구수)	34	33	23	19
인구	140	113	59	46
세대당 평균 가족수	4.12	3.24	2.57	2.42

〈표 3-28〉 인구증감 요인별 변화 (2009~2018)

2009~2018 인구증감수		-6
사회적 증감	전입 (a)	6
	전출 (b)	1
	순증감 (a-b)	5
자연적 증감	출생 (c)	1
	사망 (d)	12
	순증감 (c-d)	-11

송국2리 마을의 과거 30년 간 연령대 인구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30대 미만의 젊은층 인구는 급감하였고 반대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30대 미만 인구비율: 59.3%(1985) → 52.2%(1988) → 19.6%(2018)
 60대 이상 인구비율: 15.0%(1985) → 19.5%(1988) → 58.7%(2017)
 2017년 현재 송국2리 마을의 30대 미만 인구비율이 19.6%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마을의 존속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9〉 송국2리 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구분	1985		1988		2018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0~20대	70	50.0	49	43.4	5	10.9
30대	13	9.3	10	8.8	4	8.7
40대	14	10.0	12	10.6	2	4.3
50대	22	15.7	20	17.7	8	17.4
60대	14	10.0	14	12.4	12	26.1
70대	7	5.0	8	7.1	15	32.6
합계	140	100.0	113	100.0	46	100.0

■ 전출입자 분석

송국2리 마을에서 최근 5년 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된 1가구에 불과하다. 일반 농촌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녀 교육, 직장, 결혼이라 할 수 있다. 송국2리 마을의 경우는 이러한 전출 이유를 갖고 있는 주민이 거의 없어 향후에도 외부로 전출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5년 사이에 송국2리 마을로 귀촌, 귀향한 가구는 총 2가구이며 가족수는 6명이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귀촌을 목적으로 전입한 가구와 인근 부여군 석성면에서 거주하다가 귀농(양송이)한 가구이다.

〈표 3-30〉 과거 5년(2013~2018)간 전입한 가구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가족수	전입 후 직업	전입 전 주소	전입 목적	전입 신고
정OO	2015	2	무직, 소농	서울	귀촌	○
김OO	2014	4	농업(양송이)	부여군 석성면	귀농	○

■ 가족유형 변화

송국2리 마을의 가족 유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고령 독신 세대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과 3대가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급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신세대의 경우 1985년에 5.9에서 2018년에는 26.3%로 증가하였고, 3대가족 비율은 1985년 26.5%에서 2018년에는 15.5%로 감소했다. 독신세대 비율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독신 노인층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 관계로 자녀들이 외지로 모두 나갔기에 부부로만 가족을 구성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부 가족 비율은 1985년 17.6%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하였다.

〈표 3-31〉 송국2리 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

가족 유형	1985년		1988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핵가족	독신	2	5.9	3	9.1	5	26.3
	부부	6	17.6	10	30.3	7	36.8
	부부+자녀	12	35.3	7	21.2	-	-
	편부부+자녀	3	8.8	2	6.1	3	15.8
	(편)부모+부부	-	-	-	-	1	5.3
	미혼 형제자매	-	-	-	-	-	-
소계	23	67.3	22	66.7	16	84.2	
직계가족	(편)부모+부부+자녀	9	26.5	7	21.2	3	15.8
	(편)부모+(편)부부+자녀	-	-	1	3.0	-	-
	(편)부부+손자녀	1	2.9	3	9.1	-	-
	소계	10	29.4	11	33.3	3	15.8
기타	1	2.9	-	-	-	-	
합계	34	100.0	33	100.0	19	100.0	

■ 독신가구 분석

2018년 현재 송국2리 마을에는 5가구의 독신가구가 있다. 5가구 모두 세대주의 성별은 여성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독신가구 대부분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지만 독신이 된 이후 고령이라는 점과 혼자서 농업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 독신가구의 소득원은 노령연금과 농지 임대료이며 일부 가구에서는 자녀 용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표 3-32〉 독신가구 현황(2018)

세대주	성별	연령	직업	소득원
황OO	여	87	무직	노령연금, 농지 임대료
유OO	여	87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김OO	여	80	무직	노령연금, 농지 임대료
박OO	여	77	무직	노령연금, 농지 임대료
오OO	여	80	무직	노령연금, 농지 임대료, 자녀용돈

2.3.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

■ 마을 주민 취업 구조

2018년 현재 송국2리 마을 주민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이 전체 19가구 가운데 13가구 (68.4%)로 가장 많고 회사원, 자영업, 무직이 동일하게 2가구(10.5%)로 나타났다. 이처럼 송국2리 마을은 농업 중심의 취업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송국2리 마을 내 농업 외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가구에서는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형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송국2리 마을주민들의 취업 구조는 단조롭다고 할 수 있다.

〈표 3-33〉 취업 구조 형태(2018년)

구분	세대수	비율(%)
농업	13	68.4
회사원	2	10.5
공무원	-	-
자영업	2	10.5
무직	2	10.5
기타	-	-
합계	19	100.0

농업이라고 응답한 13가구 가운데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는 9가구(69.2%)이며, 나머지 4가구는 소규모 경작의 자가소비 형태로 농업소득이 거의 없는 농가이다. 농업의 형태는 벼농사가 중심이며 일부 시설원예(딸기, 메론 등), 양송이재배를 하고 있다.

송국2리 마을의 전업농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에 91.3%였던 것이 2018년에는 47.1%²⁷⁾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송국2리 마을의 70대 이상의 고령농가(8가구)는 머지않아 은퇴 농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27)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의 농가비율임



〈표 3-34〉 가구별 농업/비농업 현황

가족 유형	1985년		1998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29	85.3	27	81.8	8	47.1
	농업, 비농업 겸업	4	11.8	5	15.2	5	29.4
	비농업	1	2.9	1	3.0	4	23.5
합계	34	100.0	33	100.0	17	100.0	

주) 2018년은 무직인 2가구를 제외한 17가구로 분석한 결과

■ 농업 경영주 연령

송국2리 마을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8년 현재 65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는 전체 13명 가운데 8명으로 61.5%를 나타내고 있다. 송국2리 마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에 48.3세, 1994년 55.3세, 2018년에는 70.3세이다. 이처럼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 경영주가 계속해서 송국2리에 거주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연령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영주의 평균 연령을 낮춰줄 수 있는 후계자나 외부로부터의 젊은 농업인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송국2리 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3-35〉 송국2리 마을의 농업 경영주 연령 분포(명, %)

농업 경영주의 연령	1985년		1994년		2018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3	9.4	-	-	-	-
30대	6	18.8	1	4.8	-	-
40대	6	18.8	5	23.8	-	-
50대	11	34.4	5	23.8	1	7.7
60대	6	18.8	9	42.9	4	30.8
70대 이상	-	-	1	4.8	8	61.5
계	32	100.0	21	100.0	13	100.0
평균 연령	48.3		55.3		70.3	

주) 2018년 농가수는 농업소득이 없는 자가소비 형태의 농가 포함

송국2리 마을의 농업가구 표본수가 매우 적고 비교 연도가 상이하여 유의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70대 이상 초고령 농가비율을 보면 송국2리가 61.5%로 전국 평균 39.4%, 충남 평균 41.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송국2리 마을과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연령	송국2리 마을 (2018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0.0%	1.1%	0.9%
40대	0.0%	6.4%	5.4%
50대	7.7%	21.4%	20.3%
60대	30.8%	31.7%	31.6%
70대 이상	61.5%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 마을 농경지 면적 변화

송국2리 마을의 경우 최근 호당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고령 은퇴 농의 증가로 인해 은퇴농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 또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은퇴농가의 농지를 마을 주민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규모화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가호수는 1985년에 비해 약 1/4로 줄어든 반면 호당 경작 면적은 약 2.9배 늘어났다.

〈표 3-37〉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구 분	1985년	1994년	2018년	2018/1994
마을 내 농경지 면적	90,699	64,307	65,000	0.72
농가 호수	32	21	8	0.25
호당 경작 면적	2,834	3,062	8,125	2.87

주) 2018년 농가수는 농업소득이 전혀 없는 소규모 농가 5호를 제외함

송국2리 마을의 농가당 평균 농경지 면적은 전국 평균이나 충남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마을 내 다른 농가가 임차 또는 매입하여 농지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 내 한 농가에서는 벼농사 20,000평, 밭농사 2,000평, 시설채소 800평 총 22,8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송국2리 마을처럼 일반 농촌마을에서는 고령농가에서 은퇴 후 농지를 마을 주민 또는 외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은퇴농의 농지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농업을 규모화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의 영향으로 한 농가(1~2명)가 대규모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로 경작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다.²⁸⁾

〈표 3-38〉 송국2리 마을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구분	송국2리 마을 (2018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2.69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임

■ 농기계 보유 변화

2018년 송국2리 마을의 경우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에서는 대부분 한 종류 이상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해서 트랙터, 관리기는 늘어났으며 이앙기 줄어들었다. 트랙터와 관리기는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8) 서천지역 벼를 경작하는 농가 인터뷰에 의하면 보통 한 농가(노동력 2~3명)에서 벼농사의 경우 30,000평에서 50,000평까지는 경작할 수 있다고 함

〈표 3-39〉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경운기	3	3	4	3
트랙터	-	-	1	2
이앙기	1	2	5	1
콤바인	1	1	1	1
관리기	-	-	2	5

■ 농업임금 변화

2018년 송국2리 마을의 농업 임금(작업료)은 농작업의 종류(논농업, 밭농업)에 상관없이 1일에 남자는 약 10만 원, 여자는 7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 금액은 1985년에 비해 남자는 약 20배, 여자는 약 17.5~23.3배 정도 증가된 것이다. 남녀 간 농업임금 차이는 약 20~30% 남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2018년 현재 송국2리 마을의 외국인 농업임금은 남자 80,000원 여자 70,000원 정도이다. 남자의 경우만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약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농업임금 변화

구 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2018/1985
남자(천원/1일)	5	7	25	100	20.0
여자(천원/1일)	3~4	5~7	15~25	70	17.5~23.3

2.4. 사회구조 변화

■ 사회집단 현황

<표 3-4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송국2리 마을 사회집단수는 1986년 25개에서 1994년에는 16개로 줄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4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현재 혈연집단인 경주이씨 문중계는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연집단인 행정부락과 사회적 이익집단 2개만이 존속하고 있다.

(표 3-41) 송국2리 마을의 사회집단 현황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혈연 집단	1(경주이씨 문중계)	1(경주이씨 문중계)	1(경주이씨 문중계)	
지연 집단	3	3	1(행정부락)	
이익 집단	경제적	1	3	0
	사회적	6	5	2
합 계	25	16	4	

■ 혈연집단과 지연집단 활동 현황

송국2리의 혈연집단으로는 경주 이씨 문중계가 있으나 경주 이씨 문중계가 언제 조직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송국2리 경주 이씨는 약 300년 전에 당시 공주군 탄천면에서 이 마을로 옮겨와 정착했다. 경주 이씨 문중계는 산학골에 처음 이주한 鐘字의 14대조의 후손들이다. 1994년에 경주 이씨 문중계의 계열 가운데 송국2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는 6가구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 현재는 2가구이다.

송국2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신송리 또는 송현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행정리였으며 현재 소사리에 속해 있는 자연부락인 수랑골도 한 때는 행정적으로 신송리에 속했다고 한다. 1972년에 이르러 송현, 참새골, 산학골이 송국2리라는 독자적인 행정리로 정착되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로는 송국2리의 경우 부여군 초촌면 송국로 80번 길에 해당된다.

송국2리의 지연집단은 대동계와 새마을계가 1994년 조사 시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8년 현재 새마을계는 존속하지 않고 대동계만 존속하고 있다. 대동계

는 기본적으로 마을 내 모든 가구가 참여하며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회에서 회계 결산보고와 이장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이장 선출을 한다.

■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 활동 현황

송국2리 마을의 경제적 이익집단은 현재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1994년 조사 시에는 쌀계, 새마을영농회, 작목반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명확히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사회적 이익집단도 최근 20~30년 사이에 많이 없어지고 현재는 노인회, 부녀회 2개 집단만 존속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조직을 이끌어 갈 리더 부재로 인해 2개의 집단(조직)도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마을 인구도 40여 명에 불과하고 젊은층 인구가 거의 없기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단, 최근 들어 인근의 마을과 연합으로 영농법인체를 구성하였다. 송국2리 마을처럼 인구가 적고 고령화에 의해 새로운 집단(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면 인근의 마을과 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 판단된다.

2.5. 생활, 정주환경 변화

■ 가구별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의 가구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10만 원 미만이 21.1%, 월 10만 원~20만 원 미만이 31.6%, 월 20만 원 이상 47.3%로 나타났다. 송국2리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135,800원이며 주요생활비(의료비+광열비+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이다. 가구별 의료비의 표준편차는 약 82,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열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5만 원 미만이 36.8%, 10만 원까지 누계하면 57.9%를 차지한다. 응답한 가구의 월 평균 광열비는 약 135,000원으로 주요 생활비(의료비+광열비+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료비와 비슷한 27.1%이다.

식비(식료품 구입비*외식비) 지출 현황을 보면 월 10만 원까지 비율이 50.0%를 차지하며 월 3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44.5%를 나타냈다. 송국2리 가구의 월 평균 식비는 약 227,800원으로 주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7%이다. 식비의 가구별 표준편차 약 213,000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42〉 송국2리 마을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2018년)

구분	월 평균 지출액(원)	비율(%)	표준 편차(원)
의료비	135,800	27.2	82,145
광열비	135,000	27.1	133,956
식비(식료품 구입+외식)	227,800	45.7	213,667
합계	498,600	100.0	

■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²⁹⁾

송국2리 마을 가구의 저축 현황을 살펴보면 저축액이 0원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에 불과했으며, 10,000,000원 이상인 가구는 11가구 61.1%로 나타났다. 저축액이 1억 원이 넘는 가구도 3가구 16.7%로 나타나 송국2리 마을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송국2리 마을 가구 당 평균 저축액은 약 48,000,000원으로 대전 증촌마을의 약 6,500,000만 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송국2리의 경우 가구당 저축액의 표준편차가 약 55,750,000원으로 가구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구당 부채를 살펴보면 절반이 부채가 없는 것을 나타냈으며, 1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는 38.9%나타났다. 송국2리 가구 당 평균 부채액은 약 35,888,000원이며 가구당 부채액의 표준편차는 약 60,800,000원으로 매우 크다.

■ 가구별 자동차와 생활가전 보유 현황

송국2리 마을의 가구별 1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63.2%로 나타나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아 승용차보다는 농업용 트럭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가전의 보유 현황을 보면 전자렌지 100%,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94.7% 보유하고 있으며, 세탁기와 에어컨 89.5%, 청소기 78.9%, 공기청정기 6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국2리 대부분 가구에서는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가전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컴퓨터는 52.6%로 나타나 비교적 보유율이 낮았다.

29)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은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높지 않음

〈표 3-43〉 송국2리 마을의 가구별 자동차, 생활가전 보유 현황(2018년)

구분	응답가구수	보유가구수	보유비율
자동차	19	12	63.2%
텔레비전	19	18	94.7%
냉장고	19	18	94.7%
세탁기	19	17	89.5%
전자렌지	19	19	100.0%
청소기	19	15	78.9%
에어컨	19	17	89.5%
컴퓨터	19	10	52.6%
공기청정기	19	13	68.4%

■ 주택환경 변화

2018년 현재 송국2리 마을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100%가 자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건축 후 기간을 보면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축 후 20년 이내의 주택이 5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은 15.8%이며 건축 후 평균 기간은 21.1년으로 나타났다.

〈표 3-44〉 송국2리 마을 가구의 건축 후 기간

구분	0~10년	11~20년	21~30년	31년~
해당 가구 비율	42.1%	15.8%	26.3%	15.8%

거주자 스스로 판단한 현재의 주택 노후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8.9가 '양호하다', 15.8%가 '보통이다', 5.3%가 '불량하다' 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송국2리 주택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후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향후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송국2리 마을 주택의 난방 방식을 살펴보면 등유를 사용하는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심야전기 포함) 15.8%, 화목 10.5%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 환경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마을로부터 약 1.5Km 떨어져 있는 기초 보건의료기관인 초촌 보건지소를 이용하거나 도로 거리로 약 15Km 떨어진 논산 시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촌면 소재지에 보건지소외의 의료기관은 한의원이 1개소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은 없다. 행정구역 상 송국2리는 부여군에 속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논산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응급환자 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는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대학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표 3-45〉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2018년)

구분	이용 가구	미이용 가구	이용가구 비율
초촌면 소재 보건지소	17	2	89.5%
논산시 소재 병원	18	1	94.7%
대전 등 주변 대도시 병원	3	16	15.8%



면사무소 소재 보건지소

논산시 소재 종합병원

송국2리 마을 모든 가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된 가구가 52.6%로 가장 많으며, 자녀들의 부양가족에 포함된 형태의 가입이 3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료보험은 15.8%로 가장 낮다. 1994년 조사 시에는 직장의료보험이 약 50%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는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자 가구가 많아 직장의료보험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3-46〉 의료보험 가입 현황

구 분	1994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직장의료보험	9	34.6%	3	15.8%
지역의료보험	15	57.7%	10	52.6%
의료보호	2	7.7%	-	-
자녀부양	-	-	6	31.6%
계	26	100.0%	19	100.0%

■ 시장(市場) 생활권 변화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의 시장이용 생활권을 살펴보면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은 마을에서 약 1.5Km 떨어진 동부여농협 하나로 마트와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논산시내 대형마트 또는 전통시장을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송국2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여군에 속하지만 논산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과 시내버스의 운행으로 부여군보다 논산시의 접근도가 높고 용이하여 생활권이 논산시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7〉 송국2리 주민들의 시장생활권(2018년) 복수응답

구 분	초촌면 동부여농협 하나로마트	논산시	기타
이용 가구 비율	84.2%	100.0%	15.8%



면사무소 소재 보건지소

논산시 소재 대형마트

2.6. 종교와 세시풍속 변화

표3-4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송국2리 가구별³⁰⁾ 신봉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를 신봉하는 가구가 1986년, 1994년 그리고 2018년에도 50%에 가까운 비율로 가장 많다. 이렇듯 송국2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불교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는 1986년 8.8%, 94년 19.2%에서 2018년에는 3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서는 천주교가 최근 10.5%로 늘어나고 있다.

〈표 3-48〉 송국2리 마을 종교별 가구수 현황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불교	17(50.0%)	11(42.3%)	10(52.6%)
기독교	3(8.8%)	5(19.2%)	7(36.8%)
기타	1(2.9%)	-	2(10.5%)
무종교	13(38.3%)	10(38.5%)	-

30) 가구별 종교현황이라기 보다는 세대주에게 질문한 것으로 세대주의 종교라 하는 것이 좀 더 가까움

한편 과거에 성행하였던 송국2리 마을의 세시풍속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설날에는 가족 단위로 간단히 차례를 지내며 집안 및 동네 어른들에 대한 세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도 행하고 있는 세시풍속으로는 부녀자 중심으로 윷놀이를 가끔 즐기는 정도이다. 과거에 행해지던 안택굿³¹⁾, 농악, 춘축³²⁾, 영등제³³⁾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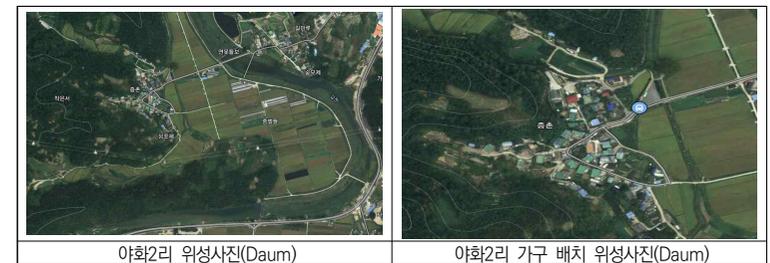
31) 안택굿이란 정초에 날을 잡아서 판수나 무당을 불러다가 한해동안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줏신, 조상신 등에게 기원하는 것을 말함. 굿이 끝나면 제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음
 32) 춘축은 입춘날 춘축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등에 붙이고 송축하는 행사임
 33) 영등제는 음력 이월 초하루날 부녀자들이 부엌이나 장독대에 음식을 차려놓고 풍신(風神: 영등할머니)에게 기원해서 무병안택과 풍년을 비는 풍신제의 하나임

3.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3.1. 마을 개요와 여건 변화

■ 지리적 여건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는 행정구역상 채운면 채운로 36번길에 해당한다. 동쪽으로는 논산시내와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강경읍, 남쪽으로는 연무읍과 인접하고 있다.



야화2리는 마을 전 지역이 완전한 평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 뒤쪽 면소재지 부근까지는 야트막한 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마을로 들어서면 경사지가 거의 없다. 마을 뒤쪽으로는 채운면소재지와 가깝기 때문에 일부 공장과 창고, 그리고 복지시설 등이 있지만 마을의 앞쪽과 좌우는 넓은 평야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마을 가구 수는 41호이다. 이들 가구는 마을경로당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배치되어 있다. 마을의 앞쪽과 좌우는 평야지로 넓은 들판을 이루고 있으나 들판 너머에는 일제 강점기에 쌓은 채운천 제방이 있다. 그 너머에는 호남선 철도가 있고 서쪽으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있다. 마을이 평야지대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큰 도로들로 둘러

러싸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 입구(왼쪽에 주차장, 오른쪽에 쉼터 있음)

마을 앞 평야지

■ 마을의 유래

야화리는 글자 그대로 들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들꽃미 또는 야화라고 하였다. 이 마을은 원래 은진군 화산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현리를 병합하여 야화리라 하고 논산군 채운면에 편입 1996년 3월 1일 논산시 채운면에 속하게 되었다(1996년 3월 1일 논산군은 시로 승격되었다).

야화리는 원래 현재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지금의 마을로 이주해 왔다. 그 후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이 지역에 채운천 등 제방을 쌓고 수리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변지역 사람들은 농사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현재의 마을에 정착하였다.

야화리의 자연부락은 돌고개, 들꽃미, 야화, 하리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야화1.2.3리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131세대 298명(2015년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야화는 채운의 교육의 요람이다. 1936년 6월 10일 채운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1951년 9월 1일 채운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1996년 3월 1일 채운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이 마을에서 석기시대의 돌칼이 나왔다.(논산시지; 논산시청 홈페이지).

마을의 서남쪽에는 원목다리가 있다. 현재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193-2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리는 충남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다리는 고려 말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호남쪽에서 과거 등을 보기 위해 이 지역을 지날 때 천이 있어 사람들이 보통 배를 타고 건넜는데 이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편안하게 이 지역을 지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다리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문에 이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야화리는 고려말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표지석

마을 내 쉼터

■ 교통과 생활권

평야 지대에 위치한 야화2리의 교통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야화2리는 논산시내에서 5.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가용으로 가면 13분 내로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서쪽에 위치한 강경읍과는 5km로 더 가까워 자가용으로 9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화2리 주민들의 생활권은 주로 논산시내이고 다음으로 강경읍내가 해당된다. 생활물품 구매, 의료서비스 등은 대부분 논산시내를 이용하고 강경읍내는 주로 장날에 수산물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한다.

야화2리가 속해 있는 채운면은 논산시내와 가까워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시피 한 상태이다. 면소재지에 하나 밖에 없는 상점인 농협 하나로마트도 시내에 대형 하나로마트가 문을 열자 문을 닫은 상태이다. 마을 주민들의 구매활동이 대부분 논산시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면소재지에 상점은 거의 없지만 음식점은 몇 곳이 성행한다. 농촌 주민들도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최근 농촌에도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산시내 뿐만 아니라 논산에서 강경읍으로 연결된 국도23번 도로변 곳곳에도 상점들이 위치해 주민들은 이곳 상점들을 이용한다. 이곳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다보니 주유소, 타이어판매점, 농기계 수리점, 소형 마트, 음식점 등 많은 상점들이 입지하고 있어 주민들은 시내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생활용품과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논산은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도로와 철도가 부설되어 있다. 야화리도 마찬가지다. 야화리의 서쪽 1km 남짓 거리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야화2리 마을에서 이 고속도로를 바라보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을 볼 수 있다. 야화2리 동남쪽으로는 호남선 철도가 보인다. 논산역에서 뻗어나온 이 열차선은 야화리 앞 들판을 지나 강경읍, 그 이남의 익산역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논산역이나 강경읍에 가서 열차를 이용한다.

이외에도 야화2리에서 채운면소재지로 가다보면 탐정로가 동쪽으로 연결되어 남산리를 지나 은진면까지 이어져 있고 채운로가 남쪽으로 연결되어 용화리, 우기리까지 닿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연무읍이다. 야화2리가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국도와 시도뿐만 아니라 평야지의 작은 길도 촘촘히 연결되어 동서남북 어디로든 빠져나갈 수 있다.

논산시의 확장, 그리고 도로·교통 여건의 발전은 평야지 마을 야화2리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왔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마을인 야화2리가 점점 도시 주변부 마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와도 가깝고 사통팔달 도로 여건이 양호하다 보니 마을 내 주민들의 구성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마을 주민들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외부 인구가 유입되기보다는 단지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주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도로·교통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마을 주변으로 공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마을 내에는 많지는 않지만 마을 입구와 주변에는 건축회사, 농산물유통시설, 복지시설 등이 건설되어 점차 마을 안팎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향후 논산시가 점점 외부로 확장되고 도로 여건이 더 개선된다면 야화2리도 평야지 농촌마을의 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도시 주변의 단순 거주형 마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된다면 향후 야화2리도 도시와 농촌 주민의 혼주화(混住化)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인구 및 가족 구조

■ 총가구수의 변화

야화2리의 총가구수는 1991년 51호에서 2003년 46호, 2018년 39호³⁴⁾로 지난 27년 동안 12호 감소하였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간 5호가 감소하였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7호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화2리가 평야 지대이고 논산시내와 인접해 다른 농촌마을보다 그 감소폭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전출보다는 전입가구가 많기 때문에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27년 동안 총가구수는 완만한 감소 형태를 보였으나 평균 가구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평균 가구수는 4.5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2.1명으로 감소하였다. 1991년에 비해 평균 가구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인구의 과소·노령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인구의 변화

야화2리의 인구는 1985년 51가구, 232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46가구, 112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39가구, 84명으로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가구수와 인구수의 감소와 아울러 가구당 평균 가족 수도 감소하였다. 1985년에는 가구당 평균 4.5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4명으로 약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다시 2.1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85년에서 2018년까지 33년 사이 야화2리의 인구수는 232명에서 84명으로 약 1/3로 감소하였고, 세대당 평균 가족 수는 4.5명에서 2.1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으며 세대수는 51가구에서 39가구로 약 1/4이 감소하였다.

34) 2018년 7월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수는 49호이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7호를 제외함

〈표 3-49〉 야화2리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2003년, 2018년)

연도	1985	2003	2018
세대수(가구 수)	51	46	39
인구	232	112	84
세대당 평균 가족 수	4.5	2.4	2.1

최근 들어 인구 감소폭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전출할 인구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주변 지역에서 마을로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감소를 제외한다면 마을 인구는 다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마을에는 귀향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을의 전출 인구는 2명에 불과하지만 전입 인구는 12명에 달했다. 야화2리는 도시민의 전원생활지로써의 매력은 떨어지지만 논산시내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이 마을이 시내와도 가깝고 교통 등 생활 여건이 양호해 최근 들어 이 마을로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출생자는 1명(여아)에 불과한 반면 고령에 의한 자연 감소는 7명(남성 4명, 여성 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내 출생자는 거의 없는 반면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마을로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마을 인구는 거의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3-50〉 인구증감의 요인별 변화 (2009~2018)

2009~2018 인구증감수		4
사회적 증감	전입 (a)	12
	전출 (b)	2
	순증감 (a-b)	10
자연적 증감	출생 (c)	1
	사망 (d)	7
	순증감 (c-d)	-6

야화2리의 시기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1985년 야화2리의 전체 인구는 232명이었다. 그 가운데 30세 미만이 1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하였다. 1960대 이후 전형적인 베이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30대(11.2%), 40대(10.3%), 50대(11.7%), 60대(10/0)는 10% 안팎의 비율을 보였고, 70세 이상은 10명으

로 4.3%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8년이 지난 2003년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전체 112명의 인구 가운데 30세 미만은 27인 24.1%로 1985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28명으로 18.8%를 차지해 1985년에 비해 비율상으로 배가 늘었고 70세 이상은 28명 25%로 비율상으로 무려 6배가 증가하였다.

2017년 현재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30세 미만이 12명으로 전체의 14.1%, 30대와 40대는 없고, 50대는 16명으로 18.8%, 60대는 20명으로 23.5%, 70세 이상은 37명으로 43%를 차지한다.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3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1〉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7	
연령	30세 미만	122(52.6)	27(24.1)	12(14.1)
	30대	26(11.2)	8(7.1)	0(0.0)
	40대	24(10.3)	13(11.6)	0(0.0)
	50대	27(11.7)	15(13.4)	16(18.8)
	60대	23(10.0)	21(18.8)	20(23.5)
	70세 이상	10(4.3)	28(25.0)	37(43.6)
합계	232(100.0)	112(100.0)	85(100.0)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4를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전출입 가구 분석

야화2리의 최근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인구는 1가구에 불과했다. 전출인구가 적은 이유는 이미 그전에 전출을 완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출할 인구는 모두 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출할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전출한 흥○○는 휴양의 목적으로 세종시로 전출하였다. 전출 전에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인근 찜질방 등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어 배우자와 함께 자녀가 있는 세종시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52〉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 현황

세대주	전출 연도	전출 당시 세대주 연령	전출 가족수	전출 목적	전출지
홍OO	2018	65	2	휴식·휴양	세종시

과거 10년 동안(2009년~2018년) 야화2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가구는 1가구에 불과했으나 전입한 가구는 4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가구, 2015년 2가구, 2018년 1가구가 전입하였다. 전입 당시 세대주 연령을 보면, 40대가 1명, 50대가 1명, 60대가 2명으로 나타났다. 40대인 손○○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귀향해 현재 벼농사와 딸기농사를 짓고 있다.

전입 전 거주지를 보면 손○○를 제외한 나머지 3가구는 모두 인근 논산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유○○는 인근 광석면과 가야곡면에서 전입하였다. 이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에 크게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 종사자는 직업의 속성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동인구가 이 마을에도 전입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야화2리가 논산시내와 가깝고 교통 여건도 좋아 이들이 이 마을로 전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논산시 은진면에서 이 마을로 전입한 한 가구도 같은 경우로 추측된다. 이들은 논산과 주변 지역 문화행사에 공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난 10년 간 전입형태를 보면, 서울에서 1가구가 귀향했을 뿐 대전 등 주변의 대도시에서 전입한 가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야화2리는 귀향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민의 귀촌지로서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마을이 평야 지대라 벼농사 위주의 단조로운 영농형태를 띠고 마을 내 새롭게 거주할만한 토지가 부족하고 논산시내와 인접해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전원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3〉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입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당시 세대주 연령	전입 가족수	전입 전후 직업	전입 전 거주지	전입 목적
이OO	2015	59	2	건설업/건설업	논산시 광석면	귀촌
유OO	2014	65	3	건설업/건설업	논산시 가야곡면	귀촌
손OO	2015	48	5	회사원/벼농사, 딸기	서울시	귀농/귀향
OOO	2018	60	2	문화예술/문화예술	논산시 은진면	귀촌

■ 가족 유형 변화

지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야화2리의 시기별 가족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3~4인 가구와 5인 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1인 가구는 1가구, 2.0%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3가구, 28.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3가구, 33.3%로 증가하였다. 2인 가구 또한 같은 기간에 11가구, 21.6%였으나 2003년에는 18가구, 39.1%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가구, 51.3%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3~4인 가구는 1991년 15가구, 29.4%에서 2003년 7가구, 15.2%로 감소하였고, 다시 2018년에는 4가구, 10.3%로 감소하였다. 5가구 이상은 같은 기간에 24가구, 47.1%에서 2003년 8가구, 17.4%, 2018년 2가구, 5.1%로 나타났다. 1991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5인 가구였으나 2018년에는 2가구에 불과해 가구당 인구 감소가 크게 감소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현재 야화2리의 가구 유형을 보면, 독거 가구인 1인 가구는 14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였고, 2인 가구는 19가구, 48.7%를 차지하였다. 1~2인 가구가 전체의 84.6%를 차지해 대다수의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4인 가구는 4가구, 10.3%, 5인 이상 가구는 2가구, 5.1%를 차지해 그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가장 많은 세대는 2015년에 귀향한 손○○ 씨 가구이다. 손○○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2015년에 배우자 및 자녀 3명(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과 함께 부모가 거주하는 야화2리로 돌아왔다. 그는 귀향한 후 벼농사와 딸기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귀향한 가구는 그의 가족이 유일할 정도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3-54〉 야화2리의 가구 유형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구성 형태(2018년)	
	1991	2003	2018		
가구 수	1인 가구	1(2.0)	13(28.3)	13(33.3)	독거 13가구
	2인 가구	11(21.6)	18(39.1)	20(51.3)	부부 19가구 자매 1가구
	3~4인 가구	15(29.4)	7(15.2)	4(10.3)	부+부부 1가구 부부+자녀 3가구 부모+부부 1가구
	5인 이상	24(47.1)	8(17.4)	2(5.1)	모+부부+자녀 1가구 부모+부부+자녀 1가구
	합 계	51(100.0)	46(100.0)	39(100.0)	
	평균	4.5명	2.4명	2.1명	

■ 독신가구 분석

2018년 기준 야화2리의 독신 가구는 1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남성은 6가구, 여성은 7가구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0대가 2가구, 80대가 4가구, 70대가 3가구, 60대와 40대가 각각 1가구, 50대가 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 가구의 직업을 보면, 70대 이상 연로한 가구는 거의 무직인 상태이나 일부 소규모 농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독신 가구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농업(축산), 운수업(개인택시), 보일러 수리 및 배관 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0대의 독신 가구는 농기계 정비업 및 농작업 대행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신 가구의 주요 소득원은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녀용돈이 가장 많았으며, 연로한 가구에서는 농사짓기가 어려워 다른 농가에 임대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대 이하 젊은 독신 가구에서는 농기계 정비와 농작업 대행을 통한 수익과 보일러 수리 및 배관 설비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5〉 독신가구 현황(2018)

세대주	성별	연령	직업	소득원
천OO	여	76	소규모 농업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녀용돈
박OO	여	79	무직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녀용돈
정OO	여	81	무직	노령연금, 국민연금, 자녀용돈
김OO	여	90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전OO	여	78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정OO	여	89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임대료
이OO	남	89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임대료
구OO	여	86	무직	공무원연금, 자녀용돈, 임대료
권OO	남	57	운수업(개인택시)	월급, 임대료
이OO	남	43	농기계 정비업 및 농작업 대행업, 소규모 농업	농기계정비 및 작업료, 농업수익금
김OO	남	65	농업(축산)	농업수익금, 자녀용돈
석OO	남	54	보일러 수리 및 배관 설비업	작업료
기OO	남	96	무직	노령연금, 자녀용돈

3.3.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

■ 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2018년 현재 야화2리 주민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이 48.7%로 가장 많고, 무직 23.1%, 회사원 15.4%, 자영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야화2리가 평야 지대이다 보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화2리가 논산 시내와도 인접하고 교통 여건도 양호해 회사원과 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인 경우에는 인근 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자영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목수 포함), 농기계수리 및 농작업 대행업, 비닐하우스 시설물 건축업 등이다. 사실 이들은 완전한 자영업자라고는 볼 수 없으나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으로 분류하였다. 무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농사짓기에는 연로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혹은 양도한 경우이며, 기타인 경우는 주민등록만 마을에 두고 대부분 외지에 나가 일해 직업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이다.

야화2리가 평야 지대이다 보니 농업 중에서도 수도작에 종사하는 주민이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딸기 시설재배도 늘어나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은 저지대이다 보니 밭농사나 시설재배가 어려웠지만 몇 해 전 채운천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 마을에서도 시설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논산의 대표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딸기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표 3-56〉 취업 구조 형태(2018년)

구분	세대수	비율(%)
농업	19	48.7
회사원	6	15.4
자영업	4	10.3
무직(은퇴농)	9	23.1
기타	1	2.5
합계	39	100.0

야화2리의 시기별 취업 구조를 보면, 농업 전업이 1985년에는 전체 가구의 52.9%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03년에는 21.7%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33.3%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과소고령으로 겸업 혹은 비농업 인구가 점차 농업으로 돌아선 이유일 수도 있고, 귀농·귀향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소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비농업을 겸업하는 가구를 보면, 1985년에는 전체 가구의 21.6%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12.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8년에도 15.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겸업을 통한 소득도 어느 정도 올렸으나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농업 가구 현황을 보면, 1985년에는 25.5%로 비교적 낮았으나 이후 2003년에는 65.2%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한 5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30년 전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나 이후 비농업 가구가 대폭 확대되었고 이후 고령화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 가구에는 비농업 취업가구, 농업노동 가구, 농지임대가구, 무직, 기타 가구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비농업 분야로의 취업 혹은 농업노동과 농지임대 가구보다는 고령으로 인한 은퇴농, 즉 무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7〉 야화2리 가구의 농업/비농업 현황

가족 유형	1985년		2003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27	52.9	10	21.7	13	33.3
	농업, 비농업 겸업	11	21.6	6	13.1	6	15.4
	비농업	13	25.5	30	65.2	20	51.3
합계	51	100.0	46	100.0	39	100.0	

주) 비농업인에는 비농업 취업가구, 농업노동가구, 농지임대가구, 무직, 기타 가구를 포함

■ 농업 경영주의 연령

야화2리 농업 경영주의 연령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30대 이하 농업 경영주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6명으로 15.8%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2003년에는 2명으로 6.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30대 이하 농업 경영주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0대와 50대 농업 경영주의 비율도 크게 하락하였다. 1985년 40대, 50대 농업 경영주는 각각 31.6%, 26.3%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20.7%, 27.6%로 다소 감소 내지 약간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40대, 50대 농업 경영주가 각각 1명, 5.3%로 크게 하락하였다.

젊은층 농업 경영주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 농업 경영주는 크게 증가하였다. 60대 농업 경영주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26.3%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2.1%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70대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0%였으나 이후 2003년에는 20.7%로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47.4%로 상승하였다. 야화2리 농업 경영주의 절반 가까이는 7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꾸준히 상승하였다. 1985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3.6세로 비교적 젊었으나 이후 2003년에는 63.2세로 평균 10세가 높아졌으며 2018년에는 70.3세로 70세를 넘어섰다. 농가인구의 초고령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58〉 야화2리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농업 경영주의 연령	1985년		2003		2018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1	2.6	1	3.4	-	-
30대	5	13.2	1	3.4	-	-
40대	12	31.6	6	20.7	1	5.3
50대	10	26.3	8	27.6	1	5.3
60대	10	26.3	7	24.1	8	42.1
70대 이상	-	-	6	20.7	9	47.4
계	38(2)	100.0	29(3)	100.0	19(1)	100.0
평균 연령	53.6		63.2		70.3	

주) 2018년 농가수는 소규모 자가소비형태의 농가는 제외. ()는 여성 농업 경영주 수

야화2리 농업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전국과 충남도에 비해 고령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40대 이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전국(2016년 기준)은 7.5%, 충남(2016년 기준)은 6.3%인 것에 반해 야화2리(2018년 기준)는 5.3%로 낮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전국과 충남의 경우 각각 21.4%, 20.3%를 차지하였으나 야화2리의 경우 5.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고령층 농업 경영주는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전국과 충남도의 비율이 각각 31.7%, 31.6%인 반면, 야화2리는 47.4%로 평균보다 약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의 경우 전국과 충남의 경우 39.4%, 41.8%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야화2리는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시 근교이면서 평야 지대인 야화2리의 농업 경영주 연령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젊은 경영주의 탈농 현상이다. 농업 경영을 통해 소득을 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젊은 농업 경영주는 인근 도시 지역을 오가며 겸업을 하거나 아예 비농업 분야로 전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에는 평야 지대의 역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평야 지대는 비교적 영농활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소수 몇몇 농가가 대부분의 농지를 경작하게 되고 그 외 농가는 비농업 분야로 전환하게 되는데 야화2리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하기보다는 마을 내 남아서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남아있는 인구가 많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타 지역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59〉 야화2리와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연령	야화2리 (2018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	1.1%	0.9%
40대	5.3	6.4%	5.4%
50대	5.3	21.4%	20.3%
60대	47.4	31.7%	31.6%
70대 이상	75.0%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 마을 농경지 면적의 변화

1985년 이후 야화2리의 농경지 면적 변화를 보면 1985년 99,757평에서 1994년 85,981평으로 약 14만 평이 감소하였고 이후 2018년에는 80,000평으로 1985년에 비해 약 2만 평이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농가 호수는 38호에서 19호로 절반이 줄었다.

마을 내 농경지 면적보다는 농가 호수의 감소폭이 훨씬 높아 호당 경작 면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2,625평이었으나 1994년에는 2,965평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4,211평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60〉 야화2리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구 분	1985년	1994	2018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	99,757	85,981	80,000
농가 호수	38	29	19
호당 경작 면적	2,625	2,965	4,211

주) 2018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은 마을 이장 인터뷰조사에 의한 대략적인 수치임.

야화2리가 평야 지대이지만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은 전국, 충남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야화2리의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은 1.40ha로 전국(2016년 기준) 1.54ha, 충남(2016년 기준) 1.68ha보다 낮다.

평야 지대인 야화2리의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평야 지대이지만 그 포괄하는 면적이 많지 않은데 반해 마을 내 농가 수는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겸업농가들도 적은 면적이지만 꾸준히 농사를 짓고 있어 평균 경작 면적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1〉야화2리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구분	야화2리 (2018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1.40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임

■ 농기계 보유 변화

야화2리의 농기계 보유 현황도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5년의 경우 경운기가 6대, 트랙터가 1대, 이앙기가 1대였으나 1994년에는 경운기는 3대로 절반으로 줄었고 트랙터는 2대, 이앙기는 3대, 콤바인이 2대로 경운기를 제외하면 이 기간 동안 농업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운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경운기를 대신해 농업용 소형 트랙이 보급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보유 현황은 2018년도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다만 이전에는 없었던 관리기를 5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딸기 시설재배가 확대되면서 관리기의 사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사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농가마다 소형 동력분무기와 예초기는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2〉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1985년	1994년	2018년
경운기	6	3	3
트랙터	1	2	3
이앙기	1	3	4
콤바인	-	2	2
관리기	-	-	5

■ 농업임금 변화

야화2리의 농업 임금(작업료)을 시기별로 보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에는 1일 작업료가 남자의 경우 6천 원, 여자의 경우 4~6천 원이었으나 1994년에는 남자의 경우 3만 원, 여자의 경우 1.5~2.5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다시 2018년에는 각각 10만 원, 6~7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물론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수치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농업 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은 틀림이 없다.

야화2리에도 기존의 벼농사 외에 딸기 시설재배가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외부 지역 노동력과 외국인 노동력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부 지역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하루에 보통 12만 원의 작업료가 지급된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소개료와 교통비 등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마을주민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남자의 경우 10만 원, 여자의 경우 6~7만 원이 지불되고 있다. 마을 내 농업 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야화2리에도 외국인 노동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63〉농업임금의 변화

구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남자(천원/1일)	6	8	30	100
여자(천원/1일)	4-6	5-8	15-25	60-70

주) 여자의 경우 발일일 경우에는 적고 모내기일 때는 높음.

3.4. 사회구조의 변화

■ 사회집단 현황

보통 농촌마을의 사회집단을 크게 혈연집단, 지연집단(地緣集團), 이익집단으로 분류한다.(정명채 등, 1996) 여기서 혈연집단은 문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집단이며 지연집단이란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집단이다. 지연집단으로 대동계와 행정리가 대표적이다. 이익집단은 경제적 이익집단과 사회적 이익집단으로 분류된다.

야화2리의 시기별 사회집단 현황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야화2리의 사회집단은 지연집단 1개, 이익집단 12개로 총 13개이었다. 이후 1994년에는 지연집단 2개, 이익집단 8개로 총 10개로 1986년보다 3개 감소하였다. 지연집단에서는 그동안 해체되었던 대동계가 복원되면서 1개 증가했지만 경제적 이익집단에서 3개, 사회적 이익집단에서 1개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감소폭이 더 컸다. 지연집단은 2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경제적 이익집단은 0개, 사회적 이익집단은 2개로 줄어들어 총 4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4〉 야화2리의 사회집단 현황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지연 집단	1(행정부락)	2(대동계, 행정부락)	2(대동계, 행정부락)	
이익 집단	경제적	4	1(1)	0
	사회적	8	7(1)	2
합 계	13	10(2)	4	

■ 혈연집단과 지연집단 활동 현황

야화2리의 혈연집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내 신씨 조상 중에 참봉을 한 신태근이라는 인물이 있어 신씨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는 해도 종중을 형성해 함께 시제를 지내는 등 집단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혈연집단에 반해 지연집단, 그중에서도 대동계는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화2리의 대동계는 원래 1953년에 조직되었으나 곧 해체되어 그동안 유명무

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오다가 1991년에 60세 이하 남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재조직되어 1994년 회원수가 40명까지 증가하였다.(정명채 등, 1996) 하지만 이후 마을 인구의 과소고령화로 대동계의 활동도 현격히 줄어들어 2018년 현재 대동계는 상조 역할 정도만 하는 청년회로 바뀌었다.

■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 활동 현황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 내 이익집단은 경제적 이익집단과 사회적 이익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야화2리의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는 쌀계, 새마을영농회, 작목반 등 세 개 조직이 있었다. 먼저, 쌀계는 보통 농토의 구입 등 부동산의 취득이나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또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발생하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조직되었다. 야화2리의 쌀계는 부채청산과 자녀 학자금, 농기계 구입 자금, 주택 건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3개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이들 3개 쌀계는 1993년말까지 순번이 모두 완료되면서 해체되었다.(정명채 등, 1996)

새마을영농회는 1970년대 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했던 농사개량구락부와 농업협동조합에서 육성했던 협동회 및 작목반을 통합해 만든 조직으로써 영농의 과학화, 현대화, 협동화를 실현하고, 생산성 증대, 유통 개선, 지역사회개발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지만 이 조직은 새마을운동 이후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화2리에는 1993년에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딸기 작목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자체의 작목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딸기재배 농가는 면단위 작목반에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야화2리의 사회적 이익집단으로는 이전부터 상사계(喪事契), 혼사계(婚事契), 친목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동갑계 등 다양한 조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인회, 부녀회 등만 남아있다. 야화2리의 노인회는 1987년에 60세 이상 38명으로 결성되어 마을 내 친목을 도모해 왔으나 현재는 과소고령화로 인해 경로당 운영 및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야화2리의 새마을부녀회는 1986년 53명으로 결성되어 부녀자들 간 친목도 모와 마을 내 경조사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담당했으나 이 역시 과소고령화로 회원이 감소하면서 현재는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3.5. 생활, 정주환경의 변화

■ 가구별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

야화2리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은 다음 <표3-65>와 같다. 먼저, 의료비는 가구당 월평균 214,600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비는 가구당 편차가 비교적 크다. 지병을 앓거나 큰 수술 이후 정기적인 검진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에 몇 십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되지만 건강한 경우에는 몇 만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야화2리도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고령화 마을이기 때문에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비에는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가스비는 부엌에서 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LPG의 사용료를 말한다. 난방비는 보통 기름(등유), 심야전기보일러 사용료를 말한다. 난방비는 계절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당연히 여름철에는 거의 없는 반면 겨울철에는 매우 많다. 기름보일러인 경우에는 한 달에 20~3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야전기인 경우에는 30~4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몇 해 전에 심야전기보일러로 난방을 바꾼 많은 주민들은 전기료가 비싸 다시 기름보일러 혹은 화목보일러로 바꾸길 원하고 있다.

식비는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비는 식료품 구입비와 외식비를 합한 비용이다. 2018년 기준 야화2리 주민의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281,9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화2리가 논산시내와 가깝고 교통 여건이 양호해 식료품의 구매와 외식이 상대적으로 많아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생활비 중에는 식비가 전체의 44.8%로 가장 많고, 의료비가 34.1%로 다음이고, 주거비가 21.1%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야화2리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2018년)

구 분	월 평균 지출액(원)	비율(%)
의료비	214,600	34.1
주거비(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132,900	21.1
식비(식료품 구입+외식)	281,900	44.8
합계	629,400	100.0

주) 월 평균 지출액은 마을주민의 인터뷰 내용과 가족 수를 감안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수치임.

■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³⁵⁾

야화2리 주민의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을 보면 부채액이 저축액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가구별 저축액은 평균 1,291만 원, 부채액은 1,523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부채액이 저축액보다 평균 232만 원이 많다. 이와 같은 수치는 주민 인터뷰에 의한 수치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진다고는 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야화2리 주민은 저축액보다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액 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응답한 24가구 가운데 11가구는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마을 주민의 절반 가까이는 저축액이 없었다. 저축액이 있는 경우를 보면, 1,000만 원 이하 가구는 5가구, 2,000만 원 정도는 2가구, 3,000만 원 정도는 4가구이고 그 이상은 2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가구별 부채액 현황을 보면, 응답한 21가구 중 부채가 없는 가구는 17가구로 대부분은 부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000만 원 정도라고 응답한 가구는 2가구이고 3,000만 원 정도라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1가구는 부채가 2억5,000만 원으로 다른 가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구를 제외하면 야화2리는 대체로 저축액이 부채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구별 자동차와 생활가전 보유 현황

야화2리의 가구별 1대 이상의 자동차(트럭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60.5%로 나타나 자동차 소유 가구가 그렇지 않는 가구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화2리가 도시 근교이고 평야 지대이다 보니 도로 여건이 양호해 자가용 소유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가전의 보유 현황을 보면, 텔레비전, 냉장고는 전체 38가구 중 37가구로 97.4%가 소유하고 있고, 세탁기는 92.1%, 전자레인지 84.2%, 청소기는 81.6%, 에어컨은 73.7%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컴퓨터는 전체 가구의 26.3%, 공기청정기는 10.5%만 소유하고 있어 생활가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 지역이기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5)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은 주민 인터뷰에 의한 대략적인 수치임. 인터뷰조사에서 저축에 관한 응답은 전체 39가구 중 24가구가 응답했고, 부채액에 관한 응답은 21가구가 응답하였음

(표 3-66) 야화2리의 가구별 자동차, 생활가전 보유 현황(2018년)

구분	응답가구수	보유가구수	보유비율
자동차(트럭 포함)	38	23	60.5%
텔레비전	38	37	97.4%
냉장고	38	37	97.4%
세탁기	38	35	92.1%
전자렌지	38	32	84.2%
청소기	38	31	81.6%
에어컨	38	28	73.7%
컴퓨터	38	10	26.3%
공기청정기	38	4	10.5%

■ 주택환경의 변화

2018년 현재 야화2리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8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37가구(97.4%)가 자가 소유이고 나머지 1가구는 임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화2리 가구의 주택 건축 기간을 보면, 조사에 응답한 30가구 가운데 7가구(23.3%)가 20년 이하이고, 14가구(46.7%)가 20~40년이고, 나머지 9가구(30.0%)가 4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 주택의 건축 기간이 20년 이내보다 40년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마을 주택은 대체로 오래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구주 판단에 자기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한 결과 응답한 34가구 가운데 14가구, 36.8%는 '낙후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11가구, 28.9%는 '보통이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9가구 23.7%는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야화2리 주택은 최근 새롭게 건축된 주택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통이거나 낙후된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화2리 주택의 난방 방식을 살펴보면, 등유가 6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야전기가 23.7%로 나타났다. 기타 가스가 5.3%이고 화목보일러는 2.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겨울철 전기 사용료가 비싸게 나와 다시 등유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 의료 환경

2018년 현재 야화2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조사에 응답한 36가구 중 30가구, 86.1%는 주로 논산시내라고 응답해 주민 대부분은 논산시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산시내에는 백제병원, 고려병원, 성모외과 등의 의료기관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 중 4가구, 11.1%는 대전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에는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상급 병원이 있어 병환이 위중한 경우에는 대전시내의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2.8%(1가구)의 주민은 서울의 아산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야화2리가 속해있는 채운면의 경우 논산시내와 가까워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보건지소 이외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논산시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병환이 위중할 경우 대전시내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소수 일부는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화2리 주민들의 시기별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1994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이 6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직장의료보험이 34.0%, 의료보호가 4.0%,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2.0%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직장의료보험이 50.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역의료보험이 47.4%로 직장의료보험이 더 많았다. 이는 과소·고령화된 마을주민들이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의 직장으로 편입을 많이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 가구는 1가구로 변함이 없었다.

〈표 3-67〉 의료보험 가입 현황

구 분	1994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직장의료보험	17	34.0%	19	50.0%
지역의료보험	30	60.0%	18	47.4%
의료보호	2	4.0%	-	-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1	2.0%	1	2.6%
계	50	100.0%	38	

■ 시장(市場) 생활권의 변화

야화2리 주민들의 시장 생활권은 논산시내이다. 마을에서 약 10분 거리인 논산시내에는 논산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화지중앙시장과 논산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생활용품, 잡화, 농·부식품 등을 구매한다.

논산화지중앙시장은 논산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2004년에 논산시내의 화지시장과 중앙시장이 통합해 변모한 시장으로 농산물, 수산물, 생활용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논산농협 하나로 마트는 최근 매장을 대형마트 규모로 확장해 매장 내 많은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야화2리가 속해있는 채운면소재지에는 논산농협 채운지점 하나로 마

트가 있으나 규모도 작고 물품도 많지 않아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3.6. 종교의 변화

야화2리 주민의 시기별 종교 현황을 보면, 1986년에는 무종교가 69.2%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1994년 28.0%, 2018년 21.1%로 감소하였다. 반면, 기독교는 같은 기간 9.6%에서 24.0%, 31.5%로 증가하였고, 불교는 같은 기간 5.8%, 38.0%, 34.2%로 초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주교 또한 1986년에는 한 가구도 없었으나 1995년에는 5가구, 10.0%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2가구, 5.3%로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야화2리 가구의 종교는 불교가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가 31.5%, 무종교가 21.1%, 천주교가 5.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 결과 고령화로 인해 종교가 있더라도 예배 등 종교 활동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몇 가구 있었다.

〈표 3-68〉 아화2리 종교별 가구수 현황

단위: 가구수(%)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기독교	5(9.6)	12(24.0)	12(31.5)
천주교	0(0.0)	5(10.0)	2(5.3)
불 교	7(13.5)	19(38.0)	13(34.2)
기 타	3(5.8)	0(0.0)	0(0.0)
무종교	36(69.2)	14(28.0)	8(21.1)
무응답	1(1.9)	0(0.0)	3(7.9)
합 계	52(100.0)	50(100.0)	3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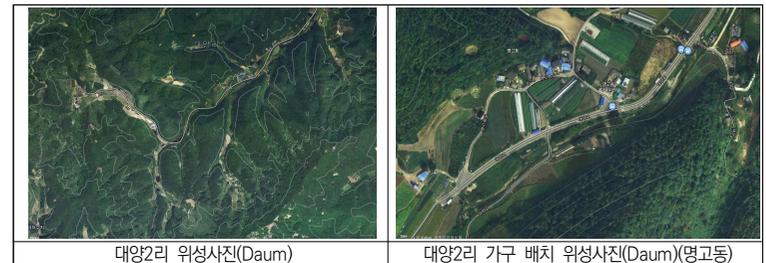
4. 금산군 남일면 대양2리

4.1. 마을 개요와 여건 변화

■ 지리적 여건

금산군 남일면 대양2리는 행정구역상 남일면 대양로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금산군 남일면, 남쪽으로는 진안군 주천면, 서쪽으로는 완주군 운주면과 인접하고 있다.

대양2리는 산간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군에서도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남쪽은 전북 진안군의 용담면과 인접하고 있고 서쪽은 완주군 운주면에 인접하고 있어 충남도와 전남도의 경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뒤쪽으로는 대둔산 자락이 막고 있어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어 막혀있는 마을이다.



주변의 산을 보면, 서북쪽으로 완주군과 경계에 해발고도 732m의 선아봉이 있고 그 오른쪽, 그러니까 대양리의 북쪽에는 650m의 백암산이 자리하고 있다. 대양2리의 남쪽인 진안군 주천면에는 해발고도 800m의 명덕봉이 자리잡고 있다. 그 외 대양2리 주변에는 300~500m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어 첩첩산중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산간 오지마을이다 보니 마을도 골짜기를 따라 산재해 있다. 남일면사무소에서 들어오면 맨 먼저 도로 오른쪽으로 명고동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 명고동마을은 대양2리의 중심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명고동에서 다시 자가용으로 안쪽으로 5분 정도를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두문동이 있고 왼쪽에는 버들골(유곡)이 있다. 두문동의 두문은 두문불출(杜門不出)의 두문(杜門)을 뜻한다. 마을 뒤로는 대둔산 자락 등으로 막혀 있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주민들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2018년 기준 대양2리의 실거주 가구수는 30호이다. 주민등록상에는 39가구로 되어있지만 주소만 마을에 두고 거의 거주를 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있다. 산간지역 마을이기 때문에 경작지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가구는 마을 뒷산 일부를 개간해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경지 면적을 넓혀왔다.



■ 마을의 유래

대양리(大陽里)는 조선시대 말기에 금산군 남이면으로 편입되었으며 이곳은 예로부터 양지바른 곳이라 해서 양지말, 양지촌 또는 대양이라고 불렸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명고리, 두문동, 역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양리라 불렀다. 대양리에는 도룡동, 두문동, 명고동, 입석, 유곡, 백암 등의 자연마을이 있으나 대양2리에 해당되는 자연마을은 두문동, 명고동, 유곡, 삼방 마을이다. 이중 두문동은 대양리 앞을 지나 금산군 남일면과 금산읍내 쪽으로 흘러가는 대양천과 봉황천의 발원지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마을의 유래를 보면, 두문동은 두문(동)골이라고도 불리며 글자 그대로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눈이 많이 오면 오갈 수가 없다고 해서 두문동(杜門洞)이라고 불렸다. 옛날에 선비들이 낙향을 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해서 두문동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 두문동에는 약 15년 전에 건립된 불출암(佛出庵)이라는 작

은 암자가 있다. 불출암은 두문불출(杜門不出)에서 한글은 그대로 쓰고 한자음만 바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연마을인 명고동 마을은 마을 뒤에서 장고소리가 난다고 해서 명고동(鳴鼓洞)이라고 한다. 마을의 서북쪽으로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은 명고동제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자연마을은 유곡, 즉 버들골이다. 두문동의 왼편에 위치하고 대양2리에서는 가장 오지에 해당된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세 개의 자연마을이 지금은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여있지만 이들 마을은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거리도 있어 원래부터 다른 특성을 지녀왔다.

불출암	불출암 정원

■ 교통과 생활권

대양2리는 금산군의 서남쪽 끝자락 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및 생활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다행히 금산군의 끝자락에 위치하다 보니 금산읍내에서 출발하는 군내버스는 명고동 앞까지 온다. 금산읍→명고동(대양리) 간 버스시간을 보면 아침 06:00부터 저녁 19:00까지 5편이 있고, 명고동(대양리)→금산읍 간 버스 시간은 아침 06:40부터 20:30까지 5편이 있다. 그런데 대양2리의 입구에 위치한 명고동 주민들은 버스 타기가 수월하지만 명고동보다 안쪽에 있는 두문동과 유곡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고령의 주민에게는 버스 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대양2리가 산간 지대에 있다 보니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전에서 자동차로 출발하면 대전통영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안영IC에서 빠져나와 지방도 635번을 타고 금산군 복수면과 육백고지산을 돌아 한참을 내려가야 마을에 도달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추부IC 또는 금산IC에서 빠져나와 지방도 13번을 타고 금산읍을 관통한 후 지방도 55번을 타고 금산의 영산인 진악산 남쪽을 돌아 남일면사무소 거쳐 마을에 도달한다.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대양2리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대양2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남이면이다. 남이면소재지에는 면사무소, 농협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음식점(3곳) 등이 있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물품구매, 회합 등은 이곳을 이용한다. 대양2리(명고동)에서 면소재지까지는 3.6km로 자동차로 6분 거리에 있다. 하지만 면소재지에는 기초적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주된 생활권은 금산 읍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읍내에는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시장, 행정과 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 크고 작은 상점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읍내를 자주 왕래하고 있다.



4.2. 인구 및 가족 구조

■ 총가구수의 변화

대양2리의 인구는 1985년 50가구, 182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6가구, 42명으로 가구수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인구수는 약 77%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30가구로 2003년보다 4가구가 증가하였고, 인구수는 46명으로 같은 기간 4명이 증가하였다. 세대당 평균 가족수를 보면, 1985년 3.6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6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 후 2018년 평균 가족수는 1.5명으로 같은 기간 약간 감소하였다.

<표 3-69> 대양2리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2003년, 2018년)

연도	1985	2003	2018
세대수(가구수)	50	26	30
인구	182	42	46
세대당 평균 가족수	3.6	1.6	1.5

농촌마을 인구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대양2리의 최근 가구수 증가는 특이할 만하다. 2003년에 비해 2018년 가구수는 4가구, 인구는 4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양2리는 지리적으로 오지에 해당하고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은 아니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풍경도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 대전 등지의 도시에서 이 마을로 귀농·귀촌이 증가하였다.

현재 대양2리의 실제 거주자는 30가구이지만 주민등록상의 가구수는 39가구이다. 9가구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거나 가끔씩 왕래하는 인구이지만 언젠가는 이 마을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많은 산간 마을과는 달리 대양2리는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다른 마을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구의 변화

최근 10년 간 대양2리의 인구증감의 요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3-70>와 같다. 먼저 사회적 증감을 보면, 마을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전출은 2명인데 반해 타 지역에서 마을로 들어온 전입은 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양2리는 지난 10년 간 전출보다는 전입이 2명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적 증감을 보면, 지난 10년 간 대양2리의 출생인구는 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대양2리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 반면, 사망은 9명(남자 3명, 여자 6명)으로 자연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0년 간 대양2리 마을 전체 인구는 7명이 감소하였다.³⁶⁾

36)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에서 2018년 사이 인구가 42명에서 47명으로 5명 증가한 추세에 반대되는 결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음. 귀농·귀촌 인구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집중된 결과이거나 혹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귀농·귀촌 인구가 누락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70〉 인구증감의 요인별 변화 (2009-2018)

2009~2018 인구증감수		-7
사회적 증감	전입 (a)	4
	전출 (b)	2
	순증감 (a-b)	2
자연적 증감	출생 (c)	0
	사망 (d)	9
	순증감 (c-d)	-9

대양2리의 연도별 연령 현황은 <표 3-71>과 같다. 먼저 1985년 연령 현황을 보면, 전체 182명 가운데 30대 미만, 즉 30세 미만 인구는 77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였다. 30대 인구가 15명으로 8.2%이기 때문에 30대 미만 인구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젊은층 인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는 30명으로 16.5%, 50대는 19명으로 10.4%, 60대는 26명으로 13.7%를 차지하였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16명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하였다.

이후 2003년 연령 현황을 보면, 전체 42명 가운데 30대 미만 인구는 5명, 30대 인구는 2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다. 1985년에는 30대 이하 인구가 마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18년 이후에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은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마을 내 고령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40대는 전체 42명 가운데 9명으로 21.4%를 보였고, 50대는 7명으로 16.7%, 60대는 10명으로 23.8%를 보였다. 고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의 인구는 9명으로 전체의 21.4%를 보였다. 이는 1985년 70대 이상 인구비율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대양2리 인구의 특징은 1985년 인구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1985년 인구가 182명이었는데 불과 18년 이후인 2003년에는 4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산간마을인 대양2리 주민이 대거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1〉 연도별 연령 현황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7	
연령	30대 미만	77(42.3)	5(11.9)	0
	30대	15(8.2)	2(4.8)	0
	40대	30(16.5)	9(21.4)	0
	50대	19(10.4)	7(16.7)	16(34.8)
	60대	25(13.7)	10(23.8)	8(17.4)
	70대 이상	16(8.8)	9(21.4)	22(47.8)
	합계	182(100.0)	42(100.0)	46(100.0)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4를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이후 14년이 지난 2017년 대양2리의 인구 현황으로 보면, 40대 인구는 한 명도 없을 만큼 젊은층 인구의 고사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50대 인구나 70대 인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인구는 16명으로 전체의 34.8%로 나타났고, 70대 이상은 2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약 47.8%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양2리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인구 단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양2리 인구 구조의 특징은 아직 50대가 건재해 일 할 수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03년도 마을 인구는 4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한 실거주자는 아니지만 이 마을에 거처를 두고 주말에 한번 씩 마을을 찾는 가구도 8가구나 돼 마을 인구는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전출입 가구 분석

최근 10년 간(2009년~2018년) 대양2리의 전출인구는 2가구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전출자인 곱○○는 2010년 67세 당시 금산읍내로 이사했다. 원래 금산에도 집이 있어 마을과 금산 읍내를 왕래했던 곱○○는 부인이 사망하자 거처를 아예 금산 읍내로 옮겨 인삼센터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전출자인 최○○는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가 있는 대전시로 전출하였다. 연로한 몸으로 마을에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표 3-72〉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출 현황

세대주	전출 연도	전출 당시 세대주 연령	전출 가족수	전출 목적	전출지
곽OO	2010	67	1	장사 (인삼센터노점)	금산읍
최OO	2016	84	1	자녀 동거	대전시

과거 10년 동안(2009년~2018년) 타 지역에서 대양2리로 전입한 가구는 모두 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에 2가구, 2017년에 1가구가 전입했다. 2013년이 전입한 이 OO는 전입 당시 67세로 작가이다. 그는 서울에서 전원생활을 위해 이 마을로 전입하였다. 마을에 거주하면서 글을 쓰는 틈틈이 자녀가 있는 도시를 오가기 때문에 집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 OO와 같은 해에 전입한 김 OO은 51세 때 경기도 안산에서 이 마을로 전입하였다. 전직은 전기공이었으나 전입한 이후에는 장뇌삼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그의 부인은 도시와 마을을 오가기 때문에 완전한 귀농이라고는 할 수 없다. 비교적 최근에 전입한 최 OO는 마을주민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신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3-73〉 과거 10년 간(2009년~2018년) 전입 현황

세대주	전입 연도	전입 당시 세대주 연령	전입 가족수	전입 전후 직업	전입 전 거주지	전입 목적
이OO	2013	67	1	작가/작가	서울	귀촌
김OO	2013	51	2	전기공/ 농업	경기 안산	귀농 (장뇌삼)
최OO	2017	-	1	-	-	-

■ 가족 유형 변화

지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3년 동안 대양2리의 시기별 가구형태는 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85년에는 전체 50가구 중 1인 가구가 3가구로 6%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26가구 중 13가구로 50%로 상승하였다. 다시 2017년에는 전체 30가구 중 15가구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독거가구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인 가구의 비율 변화를 보면, 1985년에는 20.0%였으나 2003년에는 34.6%로 약

15%가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40.0%로 상승하였다. 2018년 현재 대양2리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90.0%로 거의 대부분은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인 이상 가구는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5년의 경우 3인 가구 비율은 44.0%이었으나 2003년에는 11.5%로 감소하였다. 가구수로는 19가구가 줄어들었고 비율로는 약 32.5%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다시 1.5% 감소한 10.0%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전체 가구의 30.0%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1가구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4〉 대양2리의 가구형태 변화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8	
가구 수	1인 가구	3(6.0)	13(50.0)	15(50.0)
	2인 가구	10(20.0)	9(34.6)	12(40.0)
	3~4인 가구	22(44.0)	3(11.5)	3(10.0)
	5인 이상 가구	15(30.0)	1(3.8)	0
	합 계	50(100.0)	26(100.0)	30(100.0)
	평균 가구원수	3.6인	1.6인	1.5인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7을 참고했고 2018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독신가구 분석

2018년 기준 대양2리의 독신 가구는 모두 15가구로 조사되었다. 그중 남성은 11가구이고 여성은 4가구로 남성의 독신 가구가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촌마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독신가구가 많은 것에 비하면 대양2리의 경우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독신가구 구성 현황을 보면, 90대가 2가구, 80대가 3가구, 70대가 6가구, 60대가 2가구, 50대와 40대가 각각 1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신 가구의 경우 사별로 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몇몇 가구는 생계, 양육,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었다. 40대 독신가구의 경우는 미혼 상태이기 때문이다.

〈표 3-75〉 독신가구 현황(2018)

세대주	성별	연령	직업	소득원
권OO	여	87	무직	원호연금, 기초연금, 자녀용돈
정OO	남	82	농업(2,000평)	농업수익금, 기초연금, 자녀용돈
박OO	여	93	무직	기초연금, 자녀용돈
길OO	남	72	농업(5,818평)	농업수익금, 자녀용돈, 자녀용돈
지OO	남	71	농업(320평)	농업수익금, 기초연금
이OO	남	66	농업(883평)	농업수익금, 기초연금
남OO	남	77	농업(3,740평)	농업수익금, 기초연금, 자녀용돈
오OO	남	72	무직	기초연금
정OO	남	92	무직	기초연금
경OO	남	70	소규모 농업	기초연금, 자녀용돈
전OO	남	77	농업(4,400평)	농업수익금, 기초연금
조OO	여	83	소규모농업	기초연금, 자녀용돈
김OO	남	56	농업(1,000평)	농업소득
정OO	남	46	농업(4,600평)	농업수익금, 제재소 월급
이OO	여	66	작가	원고료, 자녀용돈

독신 가구의 직업 상태를 보면, 농업이 10가구로 가장 많았고 비교적 최근에 귀촌한 1가구는 작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4가구는 무직이었다. 무직이더라도 대부분의 독신가구가 은퇴농이다 보니 자신이 먹을 농사는 약간씩 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양 2리가 산간 지역이다 보니 농업 이외에는 달리 일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신가구의 주소득원은 약간의 농업수익금, 기초연금(국민연금 포함), 자녀용돈이 많았다. 독신가구 중 1가구는 영농을 하는 한편, 인근 제재소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독신으로 귀촌한 이○○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경제활동 구조의 변화

■ 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대양2리 주민의 취업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2018년 현재 주민들의 취업 구조를 보면, 전체 30가구 중 22가구가 농업(임업 포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마을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 농업 이외 다른 일을 하기란 쉽지 않다. 농업을 제외하면 자영업이 2가구가 있다. 자영업은 무속인의 경우인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의 일을 않는다고 한다. 기타의 경우는 종교인과 작가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양2리 두문동에는 민간이 세운 작은 암자인 불출암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거주한다. 두 스님은 암자를 운영하는 한편 틈틈이 신자들과 함께 주변의 농경지에 텃밭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주된 수익은 신자들로 받는 보시이기 때문에 취업 구분에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귀촌한 경우에도 수익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취업 구분에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3-76〉 취업 구조 형태(2018년)

구분	세대수	비율(%)
농업	22	73.3
회사원	0	0
자영업	2	6.7
무직(은퇴농)	4	13.3
기타	2	6.7
합계	30	100.0

대양2리의 시기별 취업 구조를 보면, 농업 전업이 1985년에는 전체 가구의 84.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03년에는 61.5%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60.0%로 감소하였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일반 농촌마을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대양2리가 산간 농업지역으로 농업 이외에는 여타 다른 취업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겸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85년 겸업농가는 3가구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2003년에는 3가구, 11.6%로 가구수는 증가 없이 비율만 다소 증가하였다. 2018년도 겸업가구는 4가구, 13.3%로 2003년보다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대양2리 주민들이 얼마나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겸업농가는 농업 이외 인근 제재소 근무, 종교 활동, 상업 활동(주로 여배우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농업 가구의 경우, 1985년에는 5가구, 10.0%였으나 이후 2003년에는 7가구, 26.9%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8가구, 26.7%로 2003년에 비해 가구수는 1가구 증가했으나 비율은 0.2% 감소하였다. 2003년 이후 대양2리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농업 인구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7〉 대양2리 가구의 농업/비농업 현황

가족 유형	1985년		2003년		2018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42	84.0	16	61.5	22	60.0
	농업, 비농업 겸업	3	6.0	3	11.6	4	13.3
	소계	45(5)	90.0	19(8)	73.1	26(9)	73.3
	비농업	5	10.0	7	26.9	8	26.7
합계	50	100.0	26	100.0	30	100.0	

주1) 비농업인에는 비농업 취업가구, 농업노동가구, 농지임대가구, 무직, 기타 가구를 뜻함.

2) ()안의 수치는 농사철에만 마을에 들어와 영농을 하는 출입농의 숫자로 전체 숫자에서는 제외함. 2018년도 ()의 수치는 출입농과 주민등록상 등록만한 수치를 합한 것임.



■ 농업 경영주의 연령

대양2리의 농업 경영주의 연령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1985년 대양2리의 농업 경영주의 연령 비율을 보면, 30세 미만과 30대가 각각 11.1%를 차지하였다. 40대 농업 경영주도 31.1%로 40대 이하 농업 경영주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3%를 차지하였다. 반면, 1994년에는 3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부재하고, 30대가 21.7%, 40대가 13.0%로 40대 이하 농업 경영주가 전체의 34.7%를 차지해 1985년도에 비해 18.6%가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8년에는 30대 이하 농업 경영주는 부재하고 40대만 1가구, 4.5%를 차지해 199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령 농업 경영주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대양2리의 농업 경영주 가운데 60대 비율은 26.7%, 70대 이상은 8.9%로 전체 35.6%를 차지하였으나 1994년에는 60대가 17.4%, 70대가 21.8%로 60대 이상 농업 경영주의 비율이 전체의 38.2%를 차지하였다. 이는 1985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2018년 농업 경영주 연령 가운데 60대가 36.4%, 70대 이상이 40.9%로 전체의 77.3%를 차지하였다. 이는 1994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는 수치이다. 그만큼 1994년 이후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업 경영주가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1985년도 대양2리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0.3세였으나 1994년에는 55.2세로 거의 평균 5세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8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8세로 크게 증가해 대양2리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8〉 대양2리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농업 경영주의 연령	1985년		1994년		2018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5	11.1	-	-	-	-
30대	5	11.1	5	21.7	-	-
40대	14(1)	31.1	3	13.0	1	4.5
50대	5	11.1	6	26.1	4(1)	18.2
60대	12	26.7	4(1)	17.4	8(1)	36.4
70대 이상	4	8.9	5	21.8	9	40.9
계	45(1)	100.0	23(1)	100.0	22(2)	100.0
평균 연령	50.3		55.2		67.8	

주) 2018년 농가수는 소규모 자가소비형태의 농가는 제외

대양2리 농업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전국과 충남도에 비해서도 훨씬 고령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40대 이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전국(2016년 기준)은 7.5%, 충남(2016년 기준)은 6.3%인 것에 반해 대양2리(2018년 기준)는 4.5%로 낮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전국과 충남의 경우 각각 21.4%, 20.3%를 차지하였으나 대양2리의 경우 18.3%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60대의 경우를 보면, 전국과 충남도가 각각 31.7%, 31.6%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대양2리는 36.4%로 약 5%가 높았다. 70대의 경우는 전국 39.4%와 충남의 41.8%의 중간인 40.9%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령 농업 경영주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의 비율을 보면, 대양2리는 전국에 비해 5.2%, 충남에 비해 3.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9〉 대양2리와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연령	대양2리 (2018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	1.1%	0.9%
40대	4.5%	6.4%	5.4%
50대	18.2%	21.4%	20.3%
60대	36.4%	31.7%	31.6%
70대 이상	40.9%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 마을 농경지 면적의 변화

대양2리의 농경지 면적 변화를 보면, 1985년 105,463평에서 1994년 54,839평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농가 호수도 45호에서 23호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61,512평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1985년 농경지 면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양2리의 농경지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1990년대 들어 농산물 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경쟁력의 상실로 경작을 포기한 경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대양2리의 자연마을인 유곡 안쪽에 가면 산비탈의 넓은 경작지가 방치되어 있다. 농기계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하더라도 경영비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유휴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유는 외지인의 농경지 매입이다. 외지인이 농경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투기의

목적도 있지만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대개 도시민들은 미리 농경지를 매입한 후 마을로 출입하면서 농경지를 관리하다 은퇴를 하면 귀농을 하게 된다. 대양2리가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을이 귀농·귀촌지로 크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마을이 조용하고 풍광이 좋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도시민이 별장 개념으로 텃밭과 작은 집 혹은 농막을 짓고 출입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이 마을의 농경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양2리의 농가의 호당 경작 면적을 보면, 1985년에는 2,344평이었고 1994년에는 2,384평으로 평균 40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2,796평으로 호당 평균 412평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농가 호수는 1가구 감소한 반면, 농경지 면적은 6,673평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3-80〉 대양2리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구분	1985년	1994	2018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	105,463	54,839	61,512
농가 호수	45	23	22
호당 경작 면적	2,344	2,384	2,796

주1) 2018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은 마을 이장 인터뷰조사에 의한 수치임.

주2) 마을 내 농경지 면적은 마을 내 거주 농가의 농경지 면적을 의미함.

대양2리는 산간 지대이기 때문에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은 전국, 충남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대양2리의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은 0.93ha로 전국(2016년 기준) 1.54ha, 충남(2016년 기준) 1.68ha보다 낮다.

대양2리는 고령화로 인해 기존 주민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최근 인구는 증가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마을에 출입농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도시민은 교통 여건이 불편한 대양2리로 거주지를 이전하기보다는 텃밭 정도의 농경지와 농막이나 소규모 주택 등을 마련해 봄과 가을까지 마을을 출입하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출입농이 대양2리로 많이 들어올 경우 마을 거주 농민의 평균 경작 면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81〉 대양2리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구분	대양2리 (2018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0.93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임

■ 농기계 보유 변화

대양2리 농가의 농기계 보유 현황도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5년의 경우에는 경운기만 11대였으나 1994년에는 경운기는 10대로 1대가 줄어든 대신 이앙기는 3대, 관리기는 1대 증가하였다. 그 후 2018년에는 경운기 8대, 트랙터 5대, 이앙기 4대, 관리기 10대로 트랙터와 관리기가 대폭 증가하였다.

1985년에 비해 1994년에 이앙기와 관리기를 보유하면서 마을의 농업 기계화를 실현했으나 2018년 상황을 보면 트랙터가 5대 증가하고 관리기가 9대 증가해 농업 기계화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운기가 다소 줄어든 것은 농업용 트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대양2리는 마을 내 농업 기계화를 어느 정도 실현했으나 아직 콤바인은 없어 다른 마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간지대인 대양2리에는 논 면적이 넓지 않아 콤바인의 구입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2〉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1985년	1994년	2018년
경운기	11	10	8
트랙터	-	-	5
이앙기	-	3	4
콤바인	-	-	-
관리기	-	1	10

■ 농업임금 변화

대양2리의 농업임금(작업료)을 시기별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985년에는 1일 작업료를 보면, 남자의 경우 5천 원, 여자의 경우 3~4천 원이었으나 1994년에는 남자의 경우 2만5천 원, 여자의 경우 1.5~2.5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 후 2018년에는 각각 10만 원, 6~7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물론 물가 상승

분을 반영하면 이러한 농업임금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농업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작업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농촌 지역, 특히 대양2리와 같이 산간 지역에서는 노임 상승문제와 아울러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영농의 지속성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표 3-83〉 농업임금의 변화

구분	1985년	1988년	1994년	2018년
남자(천 원/1일)	5	7	25	100
여자(천 원/1일)	3~4	5~7	15~25	60~70

주) 여자의 경우 발일일 경우에는 적고 모내기일 때는 높음.

4.4. 사회구조의 변화

■ 사회집단 현황

농촌마을의 사회집단은 크게 혈연집단, 지연 집단, 이익 집단으로 나뉘며 이익집단은 다시 경제적 집단과 사회적 집단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1986년 이후 마을 내 지연 집단은 3개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이익집단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6년의 경우를 보면 사회적 이익 집단이 23개였으나 이후 1994년에는 10개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제적 이익 집단은 1개로 변함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양2리의 사회집단은 1986년 27개에서 1994년 14개로 거의 절반이 감소하였고, 다시 2018년에는 6개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1994년을 저점으로 해서 대양2리 마을 인구는 귀농·귀촌·귀향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사회집단은 계속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아 귀농·귀촌·귀향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어떤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표 3-84〉 대양2리의 사회집단 현황

구 분	1986년	1994년	2018년
자연 집단	3(행정리, 대동계)	3(행정리, 대동계)	3(행정리, 대동계)
이억 집단	경제적	1	1(1)
	사회적	23	10(1)
합 계	27	14(2)	6(2)

주) ()은 유명무실한 조직의 개수임.

■ 혈연집단과 자연집단 활동 현황

대양2리의 혈연집단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양2리가 본래 집성촌이 아니다 보니 마을 내 혈연집단이 생길 기반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마을 내 길씨 성을 가진 가구는 남일면의 인근 지역인 부리면에서 매년 문중에서 진행되는 시제에 참여하고 있다. 남일면과 부리면 일대에 길씨 성을 가진 후손들이 많이 살고 그곳에 문중 선산이 있어 그곳에서 매년 시제를 지낸다고 한다.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제를 지내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 집단은 행정리와 마을을 단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양2리의 자연 집단은 대양2리, 명고동 대동계, 두문동 대동계 등 3개의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조직은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다. 대양2리에는 명고동, 두문동, 유곡, 삼방 등 4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을 규모가 비교적 적은 유곡과 삼방에는 대동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통 대동계는 마을의 상호회를 겸하며 마을 내 상호부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동계는 마을 인구 감소와 주민의 이질화로 지금은 거의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대양2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로 인해 현재 대동계에는 몇 가구만 참여할 뿐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 활동 현황

산간 지역이자 농림지역인 대양2리의 대표적인 경제적 이익집단은 작목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양2리에는 1994년에 조직된 채소작목반이 있었다. 대양2리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간 지역이다 보니 고랭지 채소 재배가 가능했던 것이다. 약 10명의 회원이 공동구매, 공동작업, 공동판매를 통해 농가수익을 증대하였다. 고랭지 채소 가격이 좋았을 때는 채소작목반의 활동도 많았고 농가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이후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채소 재배가 줄면서 채소작목반도 해체되었다. 이후 대양2리에 깻잎 농사가 늘어나면서 깻잎 재배를 하는 몇몇 농가들이 대양1리 깻잎 작목반에

참여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대양 1리와 2리의 깻잎 재배 농가들이 하나의 작목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회적 집단은 상사(喪事), 혼사(婚事), 친목, 봉사 활동 관련 조직이 있다. 대양2리도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어 왔다. 1986년에는 사회적 집단이 23개에 이를 정도로 마을 내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94년에는 10개 조직으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노인회와 부녀회 2개 정도로 감소하였다. 현재 노인회와 부녀회의 운영도 쉬운 편은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노인회도 운영이 어려워 현재 마을 이장이 노인회 총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녀회도 고령으로 인해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마을 내 사회적 이익집단이 감소하였다고 해서 마을 주민의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을 제외하면 마을 주민의 사회적 활동은 마을 밖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친회, 동갑계, 기타 모임 등이 마을에서 먼 단위 혹은 군 단위로 확대되어 활동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4.5. 생활, 정주환경의 변화

■ 가구별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

대양2리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은 다음 <표 3-85>와 같다. 먼저, 의료비는 가구당 월평균 183,4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양2리가 산간 지역이라 교통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개인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가구당 평균 지출은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는 123,3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비에는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가 포함된다. 전기료와 가스비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소요되지만 난방비의 경우 계절별로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난방비의 경우 겨울에 추가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일년 평균 비용을 산정했다.

식비의 경우, 식료품 구입비와 외식비로 구분되는데 이를 합한 가구당 월평균 식비는 285,500원으로 조사되었다. 대양2리가 산간 지역이고 주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식비는 다른 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5〉 대양2리의 가구당 주요 생활비 지출 현황(2018년)

구 분	월 평균 지출액(원)	비율(%)
의료비	183,400	31.0
주거비(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123,300	20.8
식비(식료품 구입+외식)	285,500	48.2
합계	592,200	100.0

주) 월 평균 지출액은 마을주민의 인터뷰 내용과 가족 수를 감안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수치임

의료비, 주거비, 식비를 합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592,200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별 비율을 보면, 의료비 31.0%, 주거비 20.8%, 식비 48.2%로 식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비와 주거비 순이었다.

생활비 가운데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3가구이었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836,700원이었다. 교육비 지출 내용을 보면, 대학생 학비와 생활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³⁷⁾

대양2리의 가구당 평균 저축액은 1,435만 원이고 부채액 평균은 968만 원으로 저축액이 평균 467만 원이 많았다. 이와 같은 수치는 가구주 인터뷰를 통한 조사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양2리 주민은 저축액이 부채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구별 저축액 현황을 보면, 300만 원 이하가 3가구, 1,500만 원이 1가구, 5,000만 원이 2가구, 6,000만 원과 1억5,000만 원이 각각 1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축액이 없다는 가구는 15가구였다.

가구별 부채액 현황을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3가구, 1,000~2,000만 원이 2가구, 2,000~3,000만 원이 2가구, 7,000~8,000만 원이 2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다는 가구는 17가구였다.

■ 가구별 자동차와 생활가전 보유 현황

2018년 기준 대양2리의 가구별 자동차 및 생활가전 보유 현황은 다음 <표 3-86>과 같다. 먼저, 1대 이상의 자동차(트럭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30가구 중 15가구로 50.0%를 차지하였다. 15가구 중 2가구는 2대의 자동차(자가용+트럭)를 가지고

37) 가구별 저축액과 부채 현황은 주민 인터뷰에 의한 대략적인 수치이다. 인터뷰조사에서 저축에 관한 응답은 전체 30가구 중 23가구가 응답하였고, 부채액에 관한 응답은 25가구가 응답하였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가전의 보유 현황을 보면, 텔레비전은 93.3%, 냉장고는 100.0%로 나타났고, 세탁기는 73.3%, 전자레인지 70.0%, 청소기는 60.0%, 에어컨은 16.7%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컴퓨터는 전체 가구의 26.7%, 공기청정기는 3.3%만 소유하고 있어 일반 생활가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표 3-86〉 대양2리의 가구별 자동차, 생활가전 보유 현황(2018년)

구분	응답가구수	보유가구수	보유비율
자동차(트럭 포함)	30	15	50.0%
텔레비전	30	28	93.3%
냉장고	30	30	100.0%
세탁기	30	22	73.3%
전자레인지	30	21	70.0%
청소기	30	18	60.0%
에어컨	30	5	16.7%
컴퓨터	30	8	26.7%
공기청정기	30	1	3.3%

■ 주택환경의 변화

2018년 현재 대양2리의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가구 중 27가구, 90.0%가 자기 소유이고, 나머지 3가구는 임대(월세)이거나 사찰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양2리 가구의 주택 건축 기간을 보면, 전체 30가구 가운데 신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이하가 8가구(26.7%), 11~30년이 7가구(23.3%), 31~50년이 4가구(13.3%)이고 비교적 오래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51년 이상이 5가구(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노후도에 관한 조사 결과, 전체 30가구 가운데 11가구(33.3%)가 '낙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가구(23.3%)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8가구(26.7%)는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양2리의 4개 자연마을 가운데 다른 마을보다 더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유곡에 신규 주택도 많고 노후 주택도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대양2리의 주택은 일반 마을에 비해 노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양2리 내 신축 주택(유곡마을)

대양2리 내 폐가

대양2리 주택의 난방 방식을 살펴보면, 화목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유가 23.3%로 나타났다. 심야전기는 1가구인 3.3%였고 기타 연탄 등도 있었다. 다른 농촌마을에서는 등유와 심야전기가 많지만 대양2리의 경우 산간 지역이다 보니 난방에서도 화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의료 환경

2018년 현재 대양2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30가구 중 27가구(90.0%)는 주로 금산 읍내에 소재한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 읍내에는 현재 365병원, 새금산병원, 세란병원, 김치원한의원, 금산군보건진료소 등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가구는 주로 대전의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그 외 조치원 병원과 경기광주병원을 이용한다는 가구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 병원을 특정해서 다니기보다는 병환 정도에 다르게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확신할 필요는 없다.



기성동 내 소재 의원
(출처: <https://3313465.blog.me>)

금산365의원
(출처: <http://cafe.daum.net/geumsan365clinic>)

대양2리 주민들의 시기별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조사에 응답한 24가구 중 직장

의료보험이 8가구, 26.7%를 차지했고, 지역의료보험은 16가구, 53.3%를 차지하였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보다 두 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구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했거나 가입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장(市場) 생활권의 변화

대양2리 주민들의 시장 생활권은 금산 읍내이다. 읍내까지는 마을에서 약 30분 거리이지만 읍내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인 금산인삼시장, 금산인삼약령시장 등 각종 인삼과 약재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고 일반 시장인 금산시장과 각종 도매점이 있어 마을 주민들은 이곳 시장에서 생활용품, 잡화, 농부식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산 장날에 맞춰 장에 간다.

평상시 필요한 물품은 금산농협 남이면지점의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읍내에 가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금산수삼센터

금산시장

4.6. 종교의 변화

대양2리 가구주의 시기별 종교 현황을 보면, 1986년에는 무종교가 70.6%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1994년에는 71.5%로 약간 증가한 후 2018년에는 53.3%로 감소하였다. 반면, 불교는 같은 기간 13.7%에서 14.3%, 26.7%로 증가하였다. 약 15년에 두문동에 세워진 불출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암자에는 두 분의 비구니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86년 9.8%에서 1994년 7.1%, 2018년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 경우도 같은 기간 5.9%, 7.1%, 6.7%로 큰 변화는 없었다. 기타에는 무속인이 포함되었다. 대양2리에는 무속인 가구가 2가구 있다. 대양2리가 산간 지역이고 기운이 좋다는 속설이 있어 예전부터 이 마을에 무속인도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아울러 외부에서 이곳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이 마을의 무속인도 고령화되다 보니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7〉 대양2리 종교별 가구수 현황

구 분	단위: 가구수(%)		
	1986년	1994년	2018년
기독교	5(9.8)	2(7.1)	3(10.0)
천주교	0(0.0)	0(0.0)	0(0.0)
불 교	7(13.7)	4(14.3)	8(26.7)
기 타	3(5.9)	2(7.1)	2(6.7)
무종교	36(70.6)	20(71.5)	16(53.3)
무응답	0(0.0)	0(0.0)	1(3.3)
합 계	51(100.0)	28(100.0)	30(100.0)

5. 종합고찰

5.1. 조사 대상 마을의 개요(2018년 기준)

마을 명	지역	유형	인구(명)	가구 수(호)
증촌마을	대전시 서구	대도시 근교 농촌마을	84	42
송국2리	부여군 초촌면	일반 농촌마을	46	19
야화2리	논산시 채운면	중소도시 근교 농촌마을	84	39
대양2리	금산군 남이면	일반 산촌마을	46	30

5.2. 마을 인구 변화

5.2.1. 마을 총 인구 변화

■ 마을인구의 지속적 감소

조사 대상 마을 모두 마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5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약 65% 이상 감소하였는데, 2000년 대 초기까지는 자녀들의 교육, 직장, 결혼 등 사회적 감소가 많았으나, 그 후에는 고령에 의해 사망하는 자연적 감소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88〉 4개 마을 인구 변화(1985~2018)

마을 명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224	84	0.38
송국2리	140	46	0.33
야화2리	232	84	0.36
대양2리	182	46	0.25
평균			0.33

■ 최근 마을인구 감소 추세 둔화

최근 10년 간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은 귀농 또는 귀촌인구에 따른 전입인구가, 자녀들의 교육,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전출하는 인구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조사 대상 마을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세대(약 69%)로 자녀들은 이미 10~20여 년 전에 교육,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전출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더 이상 교육,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할 인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산시 야화2리의 경우는 최근 사회적 증가 인구가 자연적 감소 인구보다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귀농 또는 귀촌인구가 농촌마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물론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3-89〉 4개 마을 인구증감의 요인별 변화 (2009~2018)

		증촌마을	송국2리	야화2리	대양2리	합계
2009~2018 인구증감수		-4	-6	4	-7	-13
사회적 증감	전입 (a)	12	6	12	4	34
	전출 (b)	9	1	2	2	14
	순증감 (a-b)	3	5	10	2	20
자연적 증감	출생 (c)	1	1	1	0	3
	사망 (d)	8	12	7	9	36
	순증감 (c-d)	-7	-11	-6	-9	-33

■ 향후 마을 인구 변화 예상

절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귀농, 귀촌인의 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의 사회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오려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마을에서는 귀농 또는 귀촌가구를 언제든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귀농 또는 귀촌가구가 농촌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대지)와 농지가 필요한데 조사대상 마을 실정상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귀농, 귀촌 수요 증가가 농촌지역의 지가(地價)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농촌마을 빈집(폐허)에 대한 재산 가치상승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기에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이 향후 귀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5.2.2. 연령별 인구 변화

■ 젊은 층 인구 감소, 고령 층 인구 급증

30대 이하 젊은 층 인구비율은 급격히 줄었으나 60대 이상 고령 층 인구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농촌마을로 전입해 오는 귀농 또는 귀촌자들도 젊은 층보다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후인 50~60대에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아 고령 층 인구비율을 낮춰주는 인자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3-90〉 4개 마을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

구분	1985		2018		2018/1985
	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비율
0~30대	453	57.9%	27	10.3%	0.18
40~50대	181	23.7%	49	21.1%	0.89
60대 이상	144	18.4%	179	68.6%	3.73

5.2.3. 가족 유형의 변화

■ 3대 이상 대가족 감소, 고령 독신 세대 급증

고령세대 자연사와 자녀들의 전출로 인해 3대 이상이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마을의 3대 이상 가족 비율은 1985년 45.4%에서 2018년에는 8.3%로 급감하였다. 증촌마을과 야화2리의 경우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머지않아 3대 이상 세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 3-91〉 3대 이상 가족 비율의 변화

구분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31.0%	2.4%	0.08
송곡2리	29.4%	15.8%	0.54
야화2리	47.1%(1991년)	5.1%	0.11
대양2리	74.0%	10.0%	0.14
평균	45.4%	8.3%	0.18

1인 독거 가족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 5.6%에서 2018년 35.1%로 약 8배 증가하였는데 금산 대양2리의 경우 독거 가족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촌마을의 독거 가족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독거 노인세대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정주 환경 개선처럼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책보다는 식생활 개선, 정신 건강 유지, 일자리 제공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고령 부부세대 중 배우자가 자연사(自然死)하여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남자(남편)들이 먼저 자연사하여 여자(부인)들만 남는 경우가 많아 독신 세대의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2〉 독거 가족 비율의 변화

구분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8.6%	30.9%	3.6
송곡2리	5.9%	26.3%	4.5
야화2리	2.0%(1991년)	33.3%	16.7
대양2리	6.0%	50.0%	8.3
평균	5.6%	35.1%	8.3

5.3. 마을 가구 수 변화

■ 가구 수 지속적 감소

조사 대상 마을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인구처럼 급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가족구성원 모두 전출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 세대 가운데 1인 독거가구가 많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전입해 오는 귀농, 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마을 가구 수의 감소 추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3-93〉 4개 마을 가구 수 변화

마을명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58	42	0.72
송곡2리	34	19	0.56
야화2리	51	39	0.76
대양2리	50	30	0.6

■ 세대당 평균 가족 수 급감

세대당 평균 가족구성원 수 지속적 감소하고 있는데 1985년에는 약 4.0명이 넘었던 가족 수가 2018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부모 또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가족(3대 이상 가족)은 많이 줄었으며 부부 또는 혼자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표 3-94〉 4개 마을 세대당 평균 가족 수

마을명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3.9	2.0	0.51
송곡2리	4.1	2.4	0.58
야화2리	4.5	2.1	0.47
대양2리	3.6	1.5	0.42
평균	4.0	2.0	0.50

■ 고령 독신가구의 급증

조사 대상마을의 경우 고령 독신가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85년과 비교해서 현재의 독신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적게는 3.5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증가한 마을도 있다.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고령 독신가구에 대한 세심한 정책 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표 3-95〉 4개 마을 독신가구 비율 추이

마을명	1985	2018	2018/1985(1991)
증촌마을	8.6%	30.9%	3.59
송국2리	5.9%	26.3%	4.46
야화2리	2.0%(1991)	33.3%	16.65(1991)
대양2리	6.0%	50.0%	8.33
평균	6.3%	35.1%	33.03

조사 대상마을 고령 독신가구 전체의 82.6%는 70대 이상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 대양2리를 제외하고는 독신가구의 70% 이상이 여성 세대주로 여성 독신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물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표 3-96〉 4개 마을 독신가구 특징(2018년)

마을명	독신 가구수	70대 이상		여성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증촌마을	13	13	100.0%	10	76.9%
송국2리	5	5	100.0%	5	100.0%
야화2리	13	9	69.2%	7	53.8%
대양2리	15	11	73.3%	4	26.7%
평균	11.5	9.5	82.6%	6.75	58.7%

5.4. 경제 활동 구조 변화

5.4.1. 마을주민 취업 실태

■ 세대주의 취업 구조

조사대상 마을 세대주의 취업 형태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농업 종사자가 58.4%로 가장 많고, 농업 외 취업 구조는 회사원, 자영업 정도로 매우 단조로우며 농업 외 취업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무직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증촌마을의 경우 직업이 없는 세대주가 약 25%로 4가구 중 1가구의 세대주가 무직이다. 4개 마을 평균 17.8%의 세대주가 무직 상태이다.

〈표 3-97〉 4개 마을 세대주 직업 비율(2018년)

마을명	농업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무직
증촌마을	43.2%	10.8%	5.4%	5.4%	24.3%
송국2리	68.4%	10.5%	0.0%	10.5%	10.5%
야화2리	48.7%	15.4%	0.0%	10.3%	23.1%
대양2리	73.3%	0.0%	0.0%	6.7%	13.3%
평균	58.4%	9.2%	1.4%	8.2%	17.8%

5.4.2. 농업 활동 실태

■ 농업/비농업 취업 구조 변화

전업농 비율은 감소, 비농가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농 비율은 1985년 43.1%에서 2018년 29.2%로 약 30% 이상 감소하였다. 통계적으로는 겸업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을 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인근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은퇴농이 증가됨에 따라 비농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은퇴농은 대부분 고령농가이며 농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표 3-98〉 4개 마을 농업/비농업 취업 비율 변화

구분	1985	2018	2018/1985
전업농	43.1%	29.2%	0.68
겸업농	21.8%	25.6%	1.18
비농업	20.9%	31.0%	1.48

■ 농업 경영주의 연령

조사대상 마을에서는 젊은 후계농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새롭게 취농(귀농)하는 경영주의 연령층도 낮지 않아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985년에 비해 현재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 17세 높아졌다. 2018년 현재 4개 마을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6세이다. 앞으로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약간 더 높아진 후 더 이상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보통 70~75세 무렵에 농업을 그만두고 은퇴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3-99〉 4개 마을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 변화

마을 명	1985	2018	2018-1985
증촌마을	53.6세	74.7세	21.1세
송국2리	48.3세	61.5세	13.2세
야화2리	53.6세	70.3세	16.7세
대양2리	50.3세	67.8세	17.5세
평균	51.5세	68.6세	17.1세

〈표 3-100〉 4개 마을 평균 농업 경영주의 연령별 비율 변화

구분	1985	2018	2018/1985
	농가 비율	농가 비율	
0~30대	21.8%	0.0%	-
40~50대	48.8%	10.3%	0.21
60대 이상	29.6%	89.7%	3.03

■ 농경지 변화

농가 호당 농경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사대상 4개 마을의 평균 농경지 면적은 1985년 2,284평에서 2018년에는 4,286평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밭보다는 논이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3-101〉 마을별 호당 평균 농경지 면적 변화

구분	1985년(평)	2018년(평)	2018/1985
증촌마을	1,334	2,013	1.51
송국2리	2,834	8,125	2.87
야화2리	2,625	4,211	1.60
대양2리	2,344	2,796	1.19
평균	2,284	4,286	1.88

5.5. 사회집단의 변화

■ 사회집단 현황

조사 대상마을 모두 지연집단, 사회집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1985년과 비교하면 약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촌마을 사회집단이 줄어 든 가장 큰 원인은 마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인적(집단 구성원) 부족현상도 있지만, 각종 사회집단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의해 존속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02〉 조사대상 마을의 사회집단 존속 여부 변화

마을 명	1985년 사회집단 수	2018년 사회집단 수	2018/1985
증촌마을	25	6	0.24
송곡2리	25	4	0.16
야화2리	13	4	0.31
대양2리	27	6	0.22
평균	22.5	5.0	0.22

■ 경제적/사회적 이익집단 실태

경제적 이익집단(수리계, 작목반, 새마을영농회 등)은 대부분 해체되거나 기능이 약화되었다. 조사대상 마을 대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집단은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마을에 작목반, 수리계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과거에는 어느 마을에나 존재하던 저축계, 쌀계 등 각종 계 조직(집단)은 농협, 일반 금융기관 확대, 온라인 뱅킹 등의 영향으로 농촌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사회적 이익집단의 경우 노인회, 부인회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집단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 왔던 청년회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해체되었으며, 과거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던 연령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인회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아 있는 사회적 이익집단인 노인회와 부녀회는 친목도모 형태의 단순한 기능만 유지하고 있을 뿐 경제적 활동, 문화적 활동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인구 감소, 고령화가 마을 내 사회집단 활동 저하 또는 소멸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조사대상 마을에서는 인구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마을 내 경제적, 사

회적 이익집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마을 내 경제적, 사회적 이익집단의 활동력 저하는 곧 마을 커뮤니티 활동력 저하 또는 마을 커뮤니티 붕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농촌마을 자치 기능,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 농촌마을이 가지는 각종 기능들을 제대로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마을 내 다양한 사회집단의 존속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사회집단의 부활과 존속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5.6. 과거와 현재의 마을 변화 고찰

5.6.1. 대전 증촌마을

■ 도시근교 농촌마을로서 기본적인 틀 유지

증촌마을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구역의 외연적 확장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농경지, 자연환경 등이 잘 보전되어 있어 과거처럼 농촌마을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증촌마을 내 또는 주변 마을에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기업(공장)입지 등 개발행위가 20~30년 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다움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증촌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은 도시근교 농촌마을의 일반적 특징인 인근 도시지역(대전시)으로 되어 있으며, 과거보다 도로, 교통여건이 좋아져 생활권이 대전광역시 중심부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소규모 농업중심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증촌마을은 농가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라 호당 경작규모도 일반 농촌마을에 비해 작다. 또한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타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많지 않아 소규모 논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영세농 중심 경제 구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큰 변함이 없다.

고령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은퇴농가들은 경작하던 농지를 마을 내 다른 농가에게 임차해 주고 본인들은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영농을 하거나 별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증촌마을에는 농업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농업외 소득시설, 상업시설 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농업중심의 단순한 경제 구조를 보이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고령 은퇴를 제외한 비농가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본인 또

는 자녀들이 다른 지역(대전권)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형태이며, 공무원, 자영업이 많다.

■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있음

증촌마을은 인구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마을 내 존속했던 사회적 이익집단과 경제적 이익집단이 사라지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마을 내 집단(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마을 잔치, 주민들 간 교류 활동, 마을 청소 등 농촌마을 고유의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 귀농보다는 귀촌자의 증가 추세

최근 10년 간 증촌마을로 전입해 온 대부분이 주변의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농촌마을에서 전원생활을 누리며 도시지역으로 출퇴근하고자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귀농보다는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으며 일자리 확보가 용이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의 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집성촌에서 일반 농촌마을로 점차 변하고 있음

증촌마을은 오래 전 무송유씨의 집성촌으로 형성된 마을로 아직까지는 집성촌으로서의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유씨 외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입해 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무송유씨 문중계가 존속하여 매년 시제와 종회가 열리고 있지만 점점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어 집성촌으로서의 본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5.6.2. 부여 송국2리

■ 마을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농촌마을로서 기본적 모습 유지

송국2리의 경우 마을인구와 세대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마을의 외형적인 모습은 축소되었지만, 농촌마을 경제 근간이 되는 농업규모는 과거와 큰 변화 없어 농촌마을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여건이 좋아지고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주변 논산시, 부여군 시내까지의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주변도시의 외연적 개발이 송국2리까지는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농촌마을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 고령은퇴농과 중대농의 양극화 뚜렷

과거에는 농가별 경작면적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가구당 경작지 면적이 최소 240평에서 최대 31,000평으로 표준편차가 9,850평 정도로 매우 커졌다. 특히 논농사를 중심으로 중대농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농가 호당 평균 경작면적도 1985년에 2,834평에서 2018년에는 8,125평으로 약 2.9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령 은퇴농가들은 경작하던 농지를 마을 내 다른 농가에게 임차해 주고 본인들은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영농을 하거나 별 다른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송국2리 마을 또한 농업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농업의 소득시설, 상업시설 등)이 거의 없어 단순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고령은퇴농과 중대농 간의 농가소득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농촌마을 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 귀농, 귀촌으로 적합한 마을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 예상

송국2리는 양송이, 메론, 딸기 등 소규모 경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조건을 갖추고 있어 귀농인들에게 적합한 마을이다. 또한 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논산시, 부여군 시내권을 두고 있어 출퇴근 형태의 귀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듯 송국2리는 귀농, 귀촌자에게 적합한 마을이며 전입해 오려는 수요도 있지만, 송국2리 내 빈집이나 휴경지가 거의 없어 현재의 실정으로는 귀농귀촌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 귀농·귀촌자들을 농촌마을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농경지,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마을 내 경제 활동은 농업 중심으로 단순함

농업(논농업)중심의 경제 활동은 과거나 현재나 거의 변함이 없다. 고령 은퇴농이 보유하고 있던 농지는 마을 내 다른 농가에 임차해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외지인에게 임차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고령 은퇴농은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영농을 하는 정도로 별 다른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5.6.3. 논산 야화2리

■ 최근 10년간 야화2리 인구는 다소 증가함

평야지대인 야화2리는 지난 80년대 이후 마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10년(2009~2018) 동안 인구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증가는 자연 감소에 비해 사회적 증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화2리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자연 감소(출생-사망)는 6명인데 반해 사회적 증가(전입-전출)는 10명으로 전체적으로 4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야화2리의 인구가 지난 10년간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논산시내와의 인접성, 교통의 편리성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전입 가구는 4가구인데 이 중 서울에서 귀향한 1가구를 제외한 3가구는 논산 시내에서 이 마을로 이주하였다.

■ 주민 직업 분화와 혼주화(混住化) 현상 심화

야화2리는 원래 평야지대로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지었으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탈농이 가속화 되고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외지 인구의 전입으로 혼주화 양상의 가속화 되었다. 마을의 농경지가 대농에게 집중되면서 농사를 그만둔 농민들은 인근 공장, 건설현장, 시설물 설치, 요양원, 식당, 길거리 판매 등 생계를 위해 여러 일자리로 진출하였다.

야화2리는 논산시내로부터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면소재지와는 1~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논산시내와 기타 지역에서 마을로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마을 인근에 공장, 물류 창고, 식당, 판매점 등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 도농 혼주화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농촌주민을 농업에서 배제하는 평야지 경지정리의 모습

야화2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잦아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이 지역의 식량수탈을 위한 제방을 쌓아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1980년 이후 정부에서 추진한 경지정리 정책으로 마을주민들은 농사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는 있었지만 농지가 점점 대농가에 집중됨으로써 마을 내 중소농가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었다. 농사여건이 어렵게 된 중소영세농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많이 이주해 1980~2000년 사이 마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도시로 이주를 하지 않는 주민들 가운데 근로 가능한 주민은 인근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았고, 고연령으로 근로가 어려운 주민은 농지를 다른 농가에 임대해 주고 있다.

■ 벼농사 이외 딸기 등 시설채소를 재배하나 수익은 높지 않음

논농사 이외 다른 농사는 거의 불가능한 이 마을에서 배수시설의 획기적 개선은 마을 영농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밭농사는 논둑에 심는 콩과 마당에 심은 고추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을에서의 밭농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시설재배는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가 주로 재배되었고 규모가 큰 시설농가는 외부 인력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논산지역 일대에 딸기재배가 늘어 생산이 과잉되고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딸기 가격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을 내 시설재배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5.6.4. 금산 대양2리

■ 자연부락별로 특성이 다름

대양2리는 산간마을로 크게 두문동, 명고동, 유곡, 삼방 네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네 개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행정리로 묶여 있지만 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과 생활 범위가 달라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 네 개의 자연마을은 골짜기를 따라 형성되었고 지리적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문동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면 밖을 나갈 수 없다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할 정도로 지리적으로 오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 간 교류 활동은 어려움

네 개의 자연마을 가운데 마을회관은 대양2리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명고동에 있기 때문에 명고동 마을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주민 간 교류활동을 진행할 수 있지만 명고동에서 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두문동, 유곡, 삼방 마을은 마을회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다른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이동이 자유로운 몇몇 장년층을 제외하면 고령화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마을 활동 참여는 더욱 어려운 상태이다.

■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도시민 전입 증가

대양2리는 1985년에 50가구였으나 2003년에는 26가구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구수가 감소했다. 이는 마을의 교통이 불편하고 영농환경이 좋지 않아 도시로 이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 내 인구는 다소 증가해 2018년 현재 대양2리에는 30가구, 46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내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마을 전체가 산간지역으로 전반적인 형세가 아늑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도시민이 이 마을로 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의 마을 내 전입은 2000-2010년 사이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귀농·귀촌이 붐을 이루면서 대전 등 도시민이 전원생활을 위해 조용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이 마을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을 내 출입농과 행정등록상의 주민이 많음

마을 내 전입자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전원 생활형 전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마을과 도시를 오가면서 계절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즉, 봄에서 가을까지는 주로 마을에서 거주하고 겨울에는 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주민인 경우에도 고령으로 인해 겨울에는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나가 거주하다 봄이 되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출입농의 경우, 마을 내 가건물을 짓거나 폐가를 수리해 거주하는 가구도 있고 일부는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 임시 거주지로 만들어 출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을에는 거주하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등록된 주민도 10명이나 될 정도로 '유령주민'도 많은 상태이다.

■ 마을 내 영농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음

도시민의 전입으로 인해 마을의 영농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들 가운데 취미농인 경우에는 하수오, 산양삼 등 약초재배 농가도 있고 전업농인 경우에는 깻잎재배가 늘고 있다. 최근 젊은 귀농인을 중심으로 깻잎재배가 늘면서 이웃 마을과 연합해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다. 깻잎재배의 경우 산간지역에서는 기후 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이 마을에서도 가능해졌다.

5.7. 농촌마을 유형별 차이점 도출과 발생 요인 분석

■ 인구, 가족 구조

인구증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 간 도시근교마을의 경우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마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농촌마을과 산촌마을에서는 사회적 증가보다 자연적 감소가 많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도시근교마을이 일반 농산촌마을보다 귀농 또는 귀촌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농촌마을, 산촌마을의 경우 향후 귀농귀촌 또는 귀향하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비율을 8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의 마을에서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3대 이상 거주 비율이 도시근교 마을은 3.8%에 불과하지만, 일

반 농촌, 산촌마을에서는 10~15% 정도로 도시근교 마을의 3배 이상 많다. 유형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근교 마을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학교, 직장이 있어 젊은층이 도시 지역으로 독립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거가족 비율과 세대당 평균 가족구성원수를 살펴보면 산촌마을이 다른 유형의 마을보다 독거가족 비율이 높으며 평균 가족구성원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 경제 형태

농업종사비율은 일반 농산촌마을이 도시근교 마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도시근교 마을의 경우 마을 인근 도시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근교 마을의 세대주가 무직인 가구가 23.7%로 농촌마을, 산촌마을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그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연관성이 있는데 도시근교 마을은 농업 종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업외에 별다른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가당 경지면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농촌마을이 다른 유형의 마을보다 2~2.5배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촌마을은 특히 벼농사 중심으로 규모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업농 비율과 비농가 비율을 보면 도시근교마을이 전업농 비율이 가장 낮고 비농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근교마을의 경제구조에 농업중심에서 벗어나 인근 도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겸업농가 또는 비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업농 비율이 가장 높은 산촌마을의 경우 농업 외 특별한 소득원이 없으며 주변 도시까지의 거리도 있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도 많지 않아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구분		도시근교마을 (중촌마을, 야화2리)	농촌마을 (송곡2리)	산촌마을 (대양2리)
인구·가족구조	인구증감요인 (최근 10년 간)	사회적 증가 = 자연적 감소	사회적 증가 < 자연적 감소	사회적 증가 < 자연적 감소
	3대이상 가족 비율(%)	39.1(85년) ⇒ 3.8(18년)	29.4(85년) ⇒ 15.8(18년)	74.0(85년) ⇒ 10.0(18년)
	독거 가족 비율(%)	5.3(85년) ⇒ 32.1(18년)	5.9(85년) ⇒ 26.3(18년)	6.0(85년) ⇒ 50.0(18년)
	평균가족수(명)	4.2(85년) ⇒ 2.1(18년)	4.1(85년) ⇒ 2.4(18년)	3.6(85년) ⇒ 1.5(18년)
마을 경제 형태	농업종사비율(%)	45.9(18년)	68.4(18년)	73.3(18년)
	무직비율(%)	23.7(18년)	10.5(18년)	13.3(18년)
	농가당 경지면적(평)	1,980(85년) ⇒ 3,112(18년)	2,834(85년) ⇒ 8,125(18년)	2,344(85년) ⇒ 2,796(18년)
	전업농 비율 변화(%)	72.1(85년) ⇒ 34.5(18년)	85.3(85년) ⇒ 47.1(18년)	84.0(85년) ⇒ 60.0(18년)
	비농가 비율 변화(%)	14.1(85년) ⇒ 47.1(18년)	2.9(85년) ⇒ 23.5(18년)	10.0(85년) ⇒ 26.7(18년)

주) 85년 표시의 야화2리 3대이상 가족 비율, 독거 가족 비율은 91년 자료임

5.8. 향후 농촌마을 위상 변화 전망

5.8.1. 대전 증촌마을

■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에 충족하는 전원마을로서 기능이 강해 질 듯

증촌마을은 대전 시내권까지 접근성이 좋고 주변 자연환경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 휴양 또는 도시로 출퇴근 하는 형태의 귀촌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내 농경지가 많지 않기에 귀농을 목적으로 증촌마을에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귀촌인구와 출향민의 귀향에 의해 마을인구 유지 가능

증촌마을은 귀촌인구 증가는 물론 집성촌이라는 특성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간 출향민들이 다시 증촌마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절대 숫자는 적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자녀들이 귀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증촌마을의 경우 귀촌인구와 출향민의 귀향으로 전입인구가 증가한다면 증촌마을의 인구는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농산촌마을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마을소멸' 문제는 증촌마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집성촌의 성격 점차 약화

무송유씨 시제와 종회를 이끌어 온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해 관련 행사 참석율이 낮아지고 관심도 적어지고 있어 집성촌으로서의 명맥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무송유씨가 아닌 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증촌마을로 전입해 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집성촌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 마을 내 경제구조 다각화와 외부와 교류 확대 필요

현 상태 증촌마을은 소규모 농농업 중심의 단순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도시근교라는 점과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주말 농산물 장터, 농산물 꾸러미 등 고령농가도 참여 가능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많지 않아 증촌마을 내 커뮤니티 활동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기에 외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 증촌마을 출신 출향민들이 근교 대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 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증촌마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5.8.2. 부여 송국2리

■ 농농업 중심으로 규모 확대 지속될 듯

아직 남아 있는 고령농가가 향후 10년 내외로 은퇴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고령농가가 경작하던 농지는 비교적 젊은 농가가 임대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농업이 중대농으로 전환될 경우 송국2리의 농농업은 4~5호의 전업농가에서 모두 경작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권 변화 초래 가능

현재 송국2리의 생활권은 1차적으로 초촌면 중심지, 2차적으로 논산시 또는 부여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동이 어려운 초고령층 인구 증가와 인구의 자연적 감소로 인해 1차적 생활권 중심지인 면소재지의 생활서비스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적 생활권인 면소재지의 생활권 기능은 약화되고 2차적 생활권인 주변 중소도시의 생활권 기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토지의 외지인 매입이 늘어날 경우 농촌마을 기능이 상실될 우려

토지가의 상승과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외지인 토지 매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도 송곡2리의 경우 일부 농경지는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다.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날 경우 무분별한 용도변경에 따른 농경지 상실, 농촌경관 훼손 등 농촌다움을 저하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될 우려가 있다.

■ 마을 내 경제구조 다각화와 외부와 교류 확대 필요

송곡2리는 농농업과 일부 양송이, 시설원예로 이루어진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차 농산물 생산에 치중되어 있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농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을 내 농산물 가공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령자의 재능(기능)을 활용한 수작업 형태의 농산물 가공품 또는 직거래(온오프라인)를 모색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고령화와 젊은층 인구가 많지 않아 송곡2리 내 커뮤니티 활동력은 점점 저하되고 있기에 외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나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게끔 지원해 주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8.3. 논산 야화2리

■ 도시 외곽지역으로써 도농 혼주화 현상 가속

야화2리는 평야지대이기 하지만 면사무소와 지척의 거리로 논산시내와 인근 강경을 과도 자동차로 10분 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을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을 주위로 공장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도농 혼주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마을 입구에는 먼 단위의 경로당이 들어와 있으며 마을 안에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 시설이 들어와 운영되고 있다.

■ 마을 주민의 생활권은 논산시내권으로 편입

논산의 도심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야화2리에서 불과 1~2분 거리인 면소재지는 갈수록 쇠퇴해 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논산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야화2리가 평야지대이고 교통여건도 양호하며 대부분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논산시내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중앙시장에서 생활물품을 구입하고 논산시내에 있는 병원을 다닌다. 반면, 면소재지에는 최근 개장한 음식점 몇 곳을 빼면 상점도 거의 없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기에는 기초 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 논농업은 대농에 집중되고 시설원예는 감소 전망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농지가 점점 대농 위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농가는 농지를 대농에게 임대 주기보다는 위탁영농을 통해 소득을 보전할 것이다. 위탁영농을 하는 이유는 농업노동력은 줄이면서 쌀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농은 이앙기, 콤팩트, 트랙 등을 보유하고 있어 위탁영농을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내 확대되었던 시설원예는 향후 정체내지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딸기 등 시설원에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비를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산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체 작물이나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외지 인구 유입으로 마을 인구는 증가하지만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은 저하 예상

최근 들어 외지로부터 인구 유입으로 마을 인구는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마을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몇몇 가구는 마을이장도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 직업도 다양하여 마을 내 공동체 활동 참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마을 내 농가도 중대농과 영세소농으로 2분화 되어 중대농은 영농활동에 집중하지만 나머지 영세소농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마을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다. 향후 10년 후 마을 인구구성을 보면, 고령농은 점차 줄어든 반면 외부 전입 인구는 증가해 주민들 간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도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5.8.4. 금산 대양2리

■ 마을은 현상 유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대양2리는 2003년 26가구 42명에서 2018년 30가구 46명으로 가구와 인구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마을 내 고령인구의 자연감소보다는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마을인구가 증가했지만 최근 마을 내 귀농·귀촌인구는 많지 않아 향후 마을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문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인 불출암에 신도들이 꾸준히 찾고 있어 이 암자를 중심으로 작은 커뮤니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들어 자녀들의 귀향이 다소 있지만 자녀들은 오래된 낡은 주택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금산읍내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할 때만 오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녀들의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마을사람들의 참견 등의 이유로 마을보다는 읍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마을 주민과 동화되지 않는 출입농은 증가

마을이장에 따르면 행정상에 등록된 인구 가운데 10명 정도는 등록만 되어 있을 뿐 마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가건물을 짓고 금산읍내를 오가며 10년 넘게 화훼(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도 있지만 마을 활동에는 전혀 참여를 안 해 마을 주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많은 출입농들은 도시와 마을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주민등록이 마을로 되어 있어도 마을 활동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 마을 주민은 이들을 마을 주민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대양2리는 자연풍광이 좋고 아늑하기에 전원생활로는 적합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의 문화와 의료 시설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을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도시와 마을을 오가는 출입농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화와 마을 간 단절로 마을 활력 상실

대양2리에는 현재 40대 이하 인구는 1명도 없고 70대 이상은 전체 주민의 48%를 차지한다. 주민의 자녀 가운데는 귀향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거주지는 금산읍내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시민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

기는 하지만 마을 자체가 산간 오지마을이다 보니 젊은 층이 정주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특히 면소재지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금산읍내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함께 마을로 귀농·귀촌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마을에 들어오는 귀농·귀촌인 또한 퇴직 후인 중장년층이 대부분이고 이들 또한 산골 구석구석에 산재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산림농업과 깃털농사는 증가하지만 소득 보장은 불확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대양2리는 고령지 기후에 속해 주민들은 고랭지 채소 재배로 많은 수익을 올렸으나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해 고랭지 채소는 타 작물로 전환되면서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용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표고버섯 또한 이전만큼 소득이 안 되어 현재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다만 최근 귀농인을 중심으로 산림을 이용한 약초재배와 깃털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농사 여건이 불리하고 가격 보장을 장담할 수 없어 향후 대양2리의 농업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양2리에서 농업을 통한 소득 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업농보다는 겸업농과 취미농, 영세소농 위주의 농업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5.9. 조사대상 마을의 공통된 정책 과제

■ 시대 변화에 적합한 농촌마을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 지원책 마련 필요

농촌마을 커뮤니티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 마을 인구의 지속적 감소이다. 특히 젊은 층 인구의 감소에 의해 마을을 운영(경영)할 리더의 부족과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집단(조직)의 기능 저하 또는 소멸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흔히 말하는 “마을 소멸”, “한계 집락”에 다다를 수 있다. 현재의 농촌마을 실정을 고려한 마을 공동체(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

■ 고령은퇴농가를 위한 안정적 소득원 필요

많은 고령농가나 은퇴농가에서는 별 다른 소득원 없이 기초노령연금, 자녀 용돈, 농지 임차료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보다 질 높은 삶을 보내기 위해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 귀농귀촌자를 위한 택지, 농지 확보를 위한 전략 필요

새롭게 유입해 오려는 귀농 또는 귀촌가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오고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촌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주택지(택지)와 농지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개인소유의 빈집, 휴경지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의 택지 조성 등 새로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하다.

농촌 마을 내 공동체(커뮤니티) 역량만으로는 마을의 자치 기능은 물론 건전한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의 주체들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 마을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주체들의 힘을 빌리거나 일시적 도움을 받으면서 침체된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 농촌마을 간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마을 내 인적자원의 질적, 양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변 마을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4. 다음은 마을 내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보기를 보시고 각 문항에 응답해주시시오.

〈보기〉	
① 수리계	② 마을금고
③ 저축계·쌀계	④ 새마을 영농회
⑤ 작목반	⑥ 산림계·어촌계
⑦ 영농조합법인	⑧ 농업회사법인
⑨ 마을기업 및 농촌공동체 회사	⑩ 협동조합(농수협 제외)
⑪ 사회적 기업	⑫ 들녘경영체
⑬ 기타 (무엇:)	

4-1. 위 보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4-2. 위 보기에서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경제활동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4-3. 위 보기에서 예전에는 활발했으나 최근 참여 주민이 줄어든 경제활동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4-4. 위 보기에서 예전보다 최근 참여 주민이 늘어난 경제활동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4-5. 위 보기 중에 마을 단위를 넘어 넓은 범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조직이 있다면, 해당 조직의 범위를 고려하여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인근마을 범위)

(면 단위)

(군 단위)

5. 다음은 마을 내 사회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보기를 보시고 각 문항에 응답해주시시오.

〈보기〉	
① 마을회	② 노인회
③ 청년회	④ 부녀회
⑤ 새마을회	⑥ 농민회
⑦ 상사(喪事)관련 계	⑧ 혼사(婚事)관련 계
⑨ 친목계/동갑계/놀이계	⑩ 동호회(취미여가활동 모임)
⑪ 마을개발위원회 및 사업추진조직	⑫ 귀농귀촌 조직
⑬ 기타 (무엇:)	

5-1. 위 보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5-2. 위 보기에서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사회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5-3. 위 보기에서 예전에는 활발했으나 최근 참여 주민이 줄어든 사회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5-4. 위 보기에서 예전보다 최근 참여 주민이 늘어난 사회 조직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10. 마지막으로 이장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리명	부여군 초촌면 ()리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세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이상
직업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직(관공서·회사)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무직/퇴직 ⑦ 기타(무엇:)
거주 기간	총 ()년
고향 여부	① 고향마을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② 현재 마을로 시집 또는 장가를 옴 ③ 고향마을이지만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옴 ④ 아무 연고 없이 현재 마을에 들어옴 ⑤ 기타(무엇:)
연락처	

참고문헌

<문헌>

- 부여군지편찬위원회(2003), 부여군지.
- 유학열·강마야·박경철·정지인(2017), 일반농촌 마을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중 강마야 작성 부분.

<홈페이지>

-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html/kr/intro/intro_050103.html)
- 부여군 초촌면 홈페이지 (http://tour.buyeo.go.kr/html/dong16/jachi/jachi_0502.html?&GotoPage=3)